



10

198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10호

(루게 444)



## ◆◆◆◆◆◆◆◆ 차 례 ◆◆◆◆◆◆◆◆

당기발.....	4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외 1 편).....	5
백두밀영의 귀틀집뜨락에서.....	6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	6
나의 노래 .....	7
위대한 향도자 .....	8
만민이 우러르는 <b>김정일</b> 각하.....	8
온 나라가 하나의 자랑속에.....	9
우리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의 빛나는 실현 .....	10
청춘과원의 새노래 .....	16
꽃속에 열매속에 .....	16
사과 따는 처녀들 .....	17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	18
이 가슴에 간직된 뜨거운것.....	18
백리라 청춘과원 .....	19
당생활에 대한 생각 (외 1 편).....	20
휴식.....	23
당에 비길것은 .....	31
조국의 물맛 (외 1 편).....	31
협곡의 맑은 흐름 .....	32
해바라기 .....	32
력사적인물의 전형화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	33
백두산의 돌 .....	38

우리 어머니 .....	39
방직은 곧 예술입니다 .....	46
날으라 천리마여 .....	46
그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	47
락원의 수도 평양 (외 1 편).....	48
형제의 나라 중국에서 .....	49
평양—베이징 .....	57
잊을수 없는 사람 .....	58
전선을 넘어온 글썽지 .....	60
돌 격 로 .....	63
맑은 하늘 .....	64
나 의 집 .....	68
기쁨의 나들문 .....	69
꽃을 피우네 .....	71
갑문아, 갑실아 (외 1 편).....	72
용해공의 노래 (외 1 편).....	73
생활의 참된 길동무로 .....	75
풍 년 열 매 .....	77
먼곳에서 .....	80

# 당기발

리 성 철

내 어릴적

야영소 백사장에 었어지며 달리며  
벽차게 안아본 미래의 푸른 하늘도  
꿈결에도 총총 마음에 빛나던  
백두의 그 소중한 별들도  
너에게 어려있어라 당기발이여!

아버지의 군공메달 쏘아보며  
내 생각하던 위훈의 참된 진리  
언제나 속삭여주는 기발  
장백의 눈보라를 짓누르며  
밀림에 울리던 사향가 노래도  
소중히 가슴에 들려주는 기발

내 다는 몰랐더라  
너의 기폭아래 심장을 키워  
고향앞에 송고한 맹세를 남기고  
병사의 선서를 뜨겁게 외울 때  
어찌해 내앞의 군기가 그리도 불탔던지

어이하여 너의 기폭이 나뭇기는 그아래  
혈전의 로투사도 청춘들도  
하나의 뜻을 안고 뜨겁게 몽켰던지

당기발이여  
참된 전사들의 눈빛엔  
공지와 영광의 노을로 비끼고  
원썬들의 정수리엔  
번개처럼 번쩍이는 기발이여

너는 진정  
백두밀영 사령부천막가의 붉은기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간 투사들  
그네들의 마음속 신념의 불길이던가  
쓰러지면서도 두손 모아

입당청원서를 꺼내들던 전사들의  
심장에 퍼덕이던 영생의 뉘이던가

아직도 식지 않은 그들의 끓는 피가  
뜨겁게 흐르는 기발이여라  
혁명의 항로에 천만을 부르며  
등대처럼 해불처럼 타고르는 기발이여라

죽어도 이 기발 지키면  
전사의 삶은 빛나고  
이 기발 잃으면  
치욕의 운명 면치 못하거니

살아도 배신자는  
쳐다도 못보는 기발  
쓰러졌어도 의리를 지킨 전사는  
안겨 영생하는 품

당기발이여  
진정 더는  
우리 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이고 신념  
우리 당중앙의  
드림없는 의지이고 열정  
혁명의 진두에서 빛발치는  
정의와 승리, 불패의 기치

자주세계의 노을을 펼치며  
락원의 강산을 가꿔가며  
인민은 영원히 너를 들고 승리하리  
우리 수령님 뜻을 이어  
우리 당중앙의 두리에 뭉쳐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가리라  
오, 당기발 주체의 기치여

#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외 1편

황 명 성

국경과 국경을 넘어  
가시는 길도 수만리  
대륙과 대륙을 지나  
오시는 길도 수만리

아버이 우리 수령님 반기여  
가시는 길 오시는 길  
꽃향기에 묻히었네  
꽃주단이 펼쳐졌네

씨비리의 봇나무숲이라  
엘바강의 은빛 흐름이라  
찾으신곳 들리신곳 어디나  
환영의 꽃물결 축원의 꽃바다

사랑의 해빛 만리에 비치어  
나라마다 꽃피는 봄날

거리에도 마을에도 집집에도  
경사로운 기쁨의 명절

수령님 뵈옵는 감격안고  
수령님 모시는 영광안고  
아이들은 희망을 속삭였네  
어른들은 미래를 그리었네

친선의 정을 안고 가시는 길  
단결의 뉴대를 이어놓고 오시는 길  
만리 또 만리... 끝없이 멀고멀어도  
꽃속에 노래속에 먼길이 아니었네

세계가 환호하며 따라선 수만리  
조선이 마중하며 달려간 수만리  
수령님 받드는 마음엔 국경이 없어  
아, 가깝고도 가까운 길이었네

## 하늘에 별을 보아도

하늘에 별을 보아도  
명절처럼 잊지 못할 그날의 그 감격  
하늘에 별을 보아도  
그리움안고 따라서던 그 마음

별이여 정다운 별이여  
지금도 나를 보고 속삭이느냐  
수령님 대륙만리 먼길을 가실제  
그리워 간절던 내 마음 네 다 알고

가도가도 무연한 씨비리대지  
수령님 지나실곳 어딜가  
그 길에 위병이 되고저  
그 길에 꽃주단 펴고저

밤에도 깊은밤 잠못들고  
푸르른 창공을 우러르면  
미소하며 반짝이는 별무리  
나를 찾아 나를 불러

은하길 만리 내 마음 달리면

수령님 위해 철을 당겨 피여난  
장미꽃다발의 첫 향기 풍겨주는듯  
모스크바 와르샤와 프라하  
환영의 거리거리에 세워주는듯

그 밤따라 류달리 정답던 별들은  
수령님 품에 안기여 축복받은  
베를린 세쌍둥이의 고운 눈빛이었던가  
수령님 해빛안고 설레이던  
피콜레세계곡의 전만 꽃송이였던가

친선의 꽃무지개 늘이시며  
단결의 대화원 가꾸시며  
아, 수령님 이어가신 사람과 의리의 길  
하늘의 별들이 다 알거니

인류를 위해 바치신 은정  
혁명을 위해 쌓으신 업적  
별이여 네가 불멸의 글발로 새겨다오  
천년을 이어 만년을 이어 빛나도록!

## 백두밀영의 귀틀집뜨락에서

박 희 구

별빛 흐르는 사령부의 뜨락에  
위병인양 근엄히 서있는 한그루 나무  
너와 함께 내 하루밤만이라도 지새고싶구나  
이 귀틀집에서 우리 수령님  
백두밀영의 긴긴 밤을 밝히셨거늘

뛰창가에 소리없이 커지던  
그 등잔불을  
여기서 너는 제일먼저 보았지  
꺼질줄 모르던 그 불빛에 젖어  
너와 함께 하늘의 별들도 목메어 설레었지

때로는 설레임소리를 멈추어  
그이의 명상 나래치게 하고  
때로는 설레이는 억만잎새우에  
새날을 불러오시는 그이의 환한 미소를 실어  
밀림의 바다우에 노을로 펼쳐드리었으리

푸른가지 줄줄이  
지붕우에 드리워  
아름다운 산향기를 다 모아오고  
기승치며 불어오는 눈보라도  
한몫으로 막아서던 너

너만 아는 그 깊은심 심려에  
눈시울 뜨거이 적시던 그 눈빛들을

사령부의 안녕만을 부탁하며  
이 뜨락을 떠나던 그 간절한 당부들도  
너는 넋론으로 새기고  
잎새마다 총총 별빛으로 담아안았구나

아, 네가 지켜선  
이 귀틀집에서  
위대한 수령님  
광복의 해발을 삼천리강토에 펼치시여  
희망찬 나의 삶도  
누리에 빛나는 오늘의 조국도 꽃피워주셨나니

세상에 둘도 없는  
영광의 첫자리에 깊이 뿌리내려  
사령부초병의 그 자세 그 숨길로  
금지높이 서있는 한그루 나무  
너와 함께 언제나 여기 있고싶은  
나의 마음 나의 눈앞에

오, 너는 이 숭엄한 뜨락을  
조국땅 끝에서 끝까지 넓혀주나!  
우리 수령님 우리 당중앙  
우리려 웅위하는 온 나라 인민들을  
혁명의 사령부의 영원한 초병으로 세워주며  
너는 끝없이 설레이고 설레이구나!

##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박 호 범

한결음 두결음  
언제는 나아가고  
세결음 네결음  
바다가 물러서는  
갑문의 그 한끝을 걸으시여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흙무지 돌무지를 넘으시고  
목단추를 열어젖히시며  
산과 바다 멀리 가까이  
수십리 건설장우에 손을 드시여라

손을 얹으시며

일을 많이 했으니 수고도 많았다고  
수고가 많았으니 보람도 크다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바다우에 쪽- 금을 그으시여라

금을 그으시여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깊이  
마천령기슭의 갯도를 헤아리시던  
그날의 그 손길을 드시여

인류문명의 상상봉  
인민대학습당의 높이를 헤아리시며  
천년 미래를 열어주시던  
그날의 그 손길을 드시여

금을 그으시여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싶다니  
다 보여주자고  
우리 식의 갑문을 보여주자고 하시고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헤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 하시며  
수십리 날바다우에  
위대한 손길을 펼쳐주시거니

해빛을 싣고  
물새들은 즐거이 날으고  
산이 메아리치고  
바다가 화답하며  
전투에로 내닫는 대진군

바다에 수십리 언제가 들어앉고  
산악같은 언제안에  
생명수가 출렁이고

벼바다가 넘실거릴  
대자연개조의 전투장을 거느리고  
건설의 진두에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손길을 따라  
어깨를 솟구며 언제가 나아가고  
위훈의 기발이 휘날리는  
긴긴 언제를 딛고  
80년대의 장엄한 력사가 굽이치나니

아, 그이는  
령도의 영재  
건설의 영재  
영명하신 **김정일**동지!

우리 어깨 총성의 산악이 되어  
갑문을 일으켜  
그이를 받들어  
아, 천년을 변함없으리라!  
아, 만년을 노래하리라!

## 나의 노래

박 세 옥

찾아온 이 땅이  
못잊을 땅이여서  
친애하는 그이의 뜻을 받들어  
불타는 검덕이여서  
내 부르는 노래도 뜨거움에 젖나니

노래여 되여다오  
맑은 공기가 되여다오  
깊고깊은 막장  
수고많은 광부들의 가슴에  
맑은 공기가 되여다오

되여다.오, 나의 이 노래  
해종일 해빛을 보지 못하는  
광부들의 머리우에  
푸른 하늘이 되여다오  
해빛이 부서지는  
가없이 푸른 하늘이 되여다오

노래여 나의 노래여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러운  
흰 명주수건이 되여다오  
수건이 되여

광부들의 땀젖은 이마를 씻어다오

노래여, 너는 나의 녀이 아니더냐  
너는 나의 심장이 아니더냐  
이 노래에 나의 소원을 담았거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청춘의 삶을 바쳐가는 막장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여다오  
봄날의 향기로운 꽃향기가 되여다오

굽이굽이 험한령을 넘어  
그이 오시여 몸소 걸으신 막장길  
검덕의 광부들이 한마음 지켜가는  
깊고긴 굴길을 밝혀주는  
칸데라의 불빛이 되여다오  
착암기의 정날이 되여다오  
우뢰처럼 구르는 광차들의 바퀴가 되여다오

되여다오, 되여다오  
노래여 나의 노래여  
향기 그윽한 꽃다발이 되여다오  
꽃다발이 되여  
언제나 땀에 마를줄 모르는

검덕의 광부들의 가슴에 안겨다오

아, 정녕 그럴수만 있다면  
한생을 내 여기서

이 노래 부르리  
이 노래 불러 행복하리  
-검덕광산에서-

## 위대한 향도자

우샤 샤르마

주체의 해발 넘치는  
조선과 온 세계에 찬란히 빛나는 향도의 별  
그 별은 인민의 사랑을 받으시는 위인  
주체위업의 계승자  
우리는 위대한 그이를 우러러보네

그 별은 혁명의 빛발을  
평화의 순결한 빛발을 세계에 뿌리네  
그 별은  
밝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심장속에서 붉은 피 더욱 끓게 하네  
누구나 제힘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그이는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만민의 친근한 아버지  
인류를 새세계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네

향도의 빛발 뿌리시는 그이는  
만민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전세계를 이끌어가시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인민들은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네

필자 국제적리해를 위한 인디아연구소 서기

## 만민이 우러르는 김정일각하

존 자미드

시내물 모여 대하를 이루듯이  
수억만 사람들의 흠모의 마음  
만민이 우러르는 **김정일**각하께 쏠리어라

그이의 예지  
태양의 빛발보다 밝고  
그이의 품은  
지구의 풀보다 넓다네

시대의 정신과 인민의 지향을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불굴의 의지로  
구현하시는분  
그이를 온세상 사람들 우러러따르네

그이께 온세상 만물도 감사를 드리네

백두산의 정기를 안으시고 탄생하신분  
세련된 령도로 불멸의 업적 쌓아올리시여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받고계시는분  
그이는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각하

민족의 영웅 **김일성**주석을 모시였기에  
조선은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행복의 락원으로 꾸려지더니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함께 모시여  
조선은 자주주의 락원으로 꽃피났어라

날이 갈수록 조선으로 쏠려가는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자주의 노을로 붉게 물들고  
 세계는 자주의 꽃동산으로 가꾸어지나니  
 우리 언제나 그 은혜로운 해발이신  
**김정일** 각하를 우리르노라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이께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 시를 드리노라

필자 말파신문 《오리존트》 부주필

## 온 나라가 하나의 자랑속에

안 정 기

꽃피는 살림에  
 바랄것 더는 없다고 아뢰었건만  
 잠시 지나시는 길에도  
 산이 높아 텔레비존이 흐리겠다고  
 마식령우에 중계탑을 세워주신 이야기

너무도 고마움에 목메어  
 이고장 할머니  
 세상사람 다 몰라도  
 우리 마음 그이만은 알아주신다고  
 이 가슴 뜨거이 울려주더니...

렬차에서 만난 분조장아바이 말엔  
 눈시울 후더워 차창을 열었노라  
 재령벌에 찍으신 그이의 자욱따라  
 세세년년 벼이삭도  
 춤추며 저리도 설레인다고  
 강물은 산넘어 칠칠 들을 적시니  
 관개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이런 이야기 이런 자랑  
 이 땅엔 하 많아  
 어느 짧은 병사는  
 친애하는 그이께서 손길을 한번 드시면  
 날바다가 땅이 되고  
 갑문이 순간에 솟아오른다고

그러면 그 말이 참으로 믿어지고  
 그 자랑이 내 자랑으로 여겨지고  
 그러면 그들이 한고향 친구로 되고  
 그들이 모두 내 혈육처럼 소중해지더라

아 그 어디를 가도 그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는 하나 자랑도 하나  
 친애하는 그이께서 베푸신 은정

위대한 전변을 펼치신 기적  
 전설이 되어 수놓아지는 이 땅

이름없는 어촌마을 처녀들은  
 다시마밭에 쪽배를 타고  
 그이와 함께 노를 저었다고  
 나어린 렬차원은  
 그이께서 가시는 길 끝이 없어  
 렬차를 따라  
 해가 뜨고 달이 웃는것을 보았다고

진정 감격 없이는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 끝이 있으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  
 태양의 품에 살아 빛나는 별들  
 자나깨나 그이 우리러  
 진정 못하는 마음들이거늘

그러기에 이 땅은  
 그 어디를 가나 낮설지 않고  
 그 누구를 만나도 남갈지 않아랴  
 온 강산이 이 자랑속에 설레이고  
 온 나라가 이 기쁨속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숨쉬거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 모시여 궁지높은 우리 인민  
 그이 받들어 비약하는 우리 조국  
 오 행복이여라 영광이여라

이 위대한 시대의 맥박속에  
 내 작은 심장의 고통도 합치나니  
 굶이치는 이 열정의 대하속에  
 빛나는 물방울로 나도 한생을 살고저

## 우리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의 빛나는 실현

강 성 만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리론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시고 발전시키여 창시하신 주체적문예리론의 전일적인 체계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중추적인 리론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고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이끄시여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드시는 그 력사의 나날에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한편 우리 문학예술건설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인류문예사상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한 수많은 독창적인 문예리론들과 문예방침들을 내놓으심으로써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를 처음으로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주체적문예리론의 대백과전서를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수 있습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가 매우 중요하고도 심중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문학예술활동의 특성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사업은 매개 작가, 예술인들의 다양하고 비반복적인 개성과 풍부한 창작적환상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그 어떤 일반적인 규정이나 공식으로만 다스릴수 없다. 문학예술은 그에 적합한 능란한 당적지도방법을 요구하며 이것이 없이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참다운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건설할수 없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가 매우 중요하고도 심중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특히 혁명의 원수들인 제국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를 비난함에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있는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쇠불이를 다루는 로동계급은 인간의 심장을 휘여잡는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할수 없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당의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를 헐뜯고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에 대한 올바른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만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당의 권위와 위력을 시위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헐뜯으려는 온갖 계급적원수들의 도발책동을 저지과 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로 이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존엄과 위력과 관련되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관련되는,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려는 온갖 원수들의 도발책동을 짓부시는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전하게 통일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발전되였고 우리 당은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있다.

×

문학예술의 당적령도에 관한 우리 당의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어떤 체계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령도하겠는가 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준 완성된 리론으로서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아무런 편향없이 승리로 령도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바로 보장하려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방법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근본립장과 태도를 반영한것으로서 문학예술건설에서 진정한 로동계급의 당과 기회주의적당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에서 문학예술을 어떤 체계로 어떻게 지도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즉 문학예술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전환시키

고 당이 그것을 틀어쥐고 지도할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전적으로 창작가들의 사회조직인 문학예술인동맹과 같은 외곽단체에 맡기고 당은 여기서 물러설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문화예술부와 같은 행정지도기관에 위임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우리 문학예술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시여 이 문제해결에서 그 누구도 할수 없었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옹바르게 령도할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도체계를 빛나게 완성하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문학예술사업을 그 어떤 행정조직이나 그 어떤 외곽단체에 내맡기려 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원쑤들의 소란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문학예술사업을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와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강유력한 체계를 세웠다.

문학예술을 당이 틀어쥐고 지도하는 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작가, 예술인들과 문학예술일군들속에서 당의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오직 당중앙의 결론 밑에 모든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이에 있어서 문학예술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다루는, 사회의 정치사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사소한 비로동계급적인것에 대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수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건설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혁명적문학예술건설도 생각할수 없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과 불굴의 의지가 천명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당이 문학예술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등대로 만들고 우리 문학예술인 대오를 당의 믿음직한 친위대, 근위대로 꾸리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려는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당이 지도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은 혁명투쟁과 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령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당과 행정, 사회단체들의 호상관계를 옳게 규정하고 이들이 당중앙의

지도밑에 하나로 통일되어 문학예술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자면 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령도적역할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창작사업에서 제기되는 행정실무적문제와 예술인 교양문제들을 담당수행하는 인전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당, 문화예술부, 문예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문학예술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우리 식의 3위1체의 독창적인 지도체계를 완성하였다.

이 체계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부의 행정조직자적기능과 문예총의 교양자적기능을 높이며 집체적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문학예술인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창작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문학예술지도체계이다.

이것은 예술지도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손을 떼고 예술인들의 창작단체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체계나 또 예술지도를 행정기관이 도맡아 하는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예술지도체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문학예술행정기관은 당의 문예정책과 방침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통제자적기능과 창작조건보장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수행한다. 이와 함께 문예총은 사회단체로서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창작으로 불려일으키는 교양단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행정지도기관인 문화예술부와 당의 인전대인 문예총의 사명과 기능을 비상히 높임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전반사업을 빈틈이 없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게 하였으며 우리 당의 지도가 문학예술건설과 창작의 모든 부문에 드림없이 철저히 관철되게 하였다.

새로운 창작지도체계는 또한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서 혁명적근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이끌어주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지도체계라는데 근본특징이 있다.

새로운 지도체계에는 작가, 예술인들과 광범한 근중들이 높은 혁명적자각과 창조적열의를 가지고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한다.

당의 지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의 유기적인 결합,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세워주신 당의 지도체계의 혁명적본성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그들 도와주고 지도하는 사람이 다같이 공통된 사상과 지향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창작에서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인민앞에 내놓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작가, 예술인들과 문학예술일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어주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예술행정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창작사업이 어떤 개인의 사업으로가 아니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모든 작가, 예술인들과 광범한 군중들이 이 사업에 주인다운 립장과 자각을 가지고 참가하게 하였으며 문학예술 창작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로동계급의 당의 문학예술에 대한 가장 완벽한 지도체계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모든 문학예술부문에 드팀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지도체계로서 당의 지도밑에 당과 행정, 사회단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작가, 예술인들과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체계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령도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 내용을 올바르게 규정하는것이다.

그것은 문학예술사업은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로선상문제와 함께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 그리고 예술인지도 등 실로 복잡한 내용을 포괄하는 사업으로서 이 모든것을 당이 올바르게 틀어쥐는가 못쥐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관건적문제에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는 무엇보다먼저 작품창작에 대한 방향상지도와 내용상지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당중앙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령도함에 있어서 방향상으로 지도할뿐아니라 내용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문학예술건설의 로선과 원칙들을 규정하여줄뿐아니라 문학예술창작과정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내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우리 식의 독창적인 리론을 밝혀주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상문제나 방향상문제만을 규정하고 창작과정지도에서 손을 떼는것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력을 약화시키고 부르조아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것으로 규정하였다.

력사적경험은 당이 예술창작과정을 힘있게 틀어쥐지 못하면 아무리 문학예술건설에 대한 올바른 로선과 원칙을 규정하여도 창작과정에서 로동계급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이 나와 혁명의 원수들에게 사회주의제도와 로동계급의 당을 헐뜯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준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로선상문제만이 아니라 창작과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이 문예방침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그리고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위치와 사명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과정은 결코 문학예술창작과정과 분리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은 수많은 문학예술창작과정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올바르게 건설하자면 로동계급의 당은 필연적으로 문학예술창작과정을 힘있게 틀어쥐어야 하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문학예술창작과정을 힘있게 틀어쥐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는 중요한 사상의식형태의 하나로서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의 경험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방향상문제와 함께 문학예술창작과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때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그 언제나 우리의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문학예술건설로선과 원칙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가 건설하는 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 계급적, 당적, 민족적 성격, 그리고 문학예술발전에서 지켜야 할 제 원칙들과 유일한 창작방법 과거유산에 대한 당의 립장과 태도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명을 줌으로써 작가, 예술인들과 일군들이 명백한 지침과 기준을 가지도록 하였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그리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실로 수많은

은 문제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독창적인 방침이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주제방향도 명백히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문학예술을 령도함에 있어서 조선상 지도나 방향상 지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창작과정을 틀어쥐고 그 내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창작과정에 대한 지도는 내용상지도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라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리론을 밝혀주시었다.

로동계급의 당의 문학예술창작과정에 대한 지도가 내용상지도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라는 것은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작품창작의 내용을 틀어쥐고 당의 정책이 사상예술적으로 옹계 구현되도록 하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아주어 창작가들을 옳은 창작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문학예술창작과정에 대한 지도가 문학예술작품의 그 어떤 형식이나 형상수법에 관한 지도로 흐르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였다.

작품의 내용에서 정치적선이 뚜렷이 선 이상 그것을 표현하는 형상수법이나 수단 같은것은 창작가가 자유롭게 끌어야 하며 오직 이럴 때만이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 결합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문제를 리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온갖 편향도 철저히 경계하였다.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개성을 절대화하면서 창작을 자유화하고 당성원칙을 거부하는 편향을 반대하는 한편 창작적개성을 무시하는 편향을 다같이 반대하였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창작의 《자유화》를 철저히 반대하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다정다감한 정서와 건전한 취미를 반영하는 예술적개성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백가지 작품은 백가지가 다 개성적이어야 한다는 주제적문예리론의 유명한 명제에는 문학예술창작의 특성에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과 태도가 반영되어있다.

오늘 우리 나라 문학예술이 사소한 도식주의적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생동한 형상으로 가득찬 다양한 문학예술로 발전한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 창작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독창적으로 규

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열적으로 투쟁하여오신 빛나는 결실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또하나 풍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그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다름아닌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직접적담당자라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문학예술에 관한 정책적지도를 옹바르게 하는것과 함께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이고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었다. 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는 창작에 대한 정책적지도로 실현될뿐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로 구현되며 로동계급의 당은 여기서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독창적문예방침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문학예술창작의 내적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

우리 당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령도함에 있어서 그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창작과정은 곧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 문예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문학예술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예술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작가, 예술인대오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문학예술인 대오로 키우고 문학예술창작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 현명한 문예방침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창작에 대한 방향상지도만이 아니라 내용상지도를 틀어쥐어야 하며 문학예술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문예방침은 사회주의문학예술 건설과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튼튼히 틀어쥐게 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을 곧바른 승리로 이끄는 과학적인 문예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당적령도방법을 세우는것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방법을 세우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과 광범한 군중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 힘있게 불러 일으키겠는가 하는 문제로서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체계가 세워지고 령도내용이 옳바로 규정되어도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이 없으면 로동계급의 당은 작가, 예술인들과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이 문제는 창작활동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예술작품이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독창적인 형상론리에 의거하여 창작하는 정신활동의 산물이다. 그런것만큼 예술작품은 그 어떤 꼭 같은 틀에 의하여 재일수 없으며 또 지도될수도 없다.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그릇된 주장이나 창작적 독창성을 누르는 일반적 공식들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사고력을 마비시키며 창작세계를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방법을 세우는 문제는 특히 오늘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더욱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근로인민이 주권을 잡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풍부한 정서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풍부한 한 예술적형상으로 노래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화원을 백화만발하게 가꾸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모색하는 중요한 초점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령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탐색되어 왔으나 아직 뚜렷한 해명을 보기 못하였다.

우리 당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 구현하고 발전시키며 문학예술에 대한 종전의 낡고 고루한 지도방법을 없애고 사람중심의 주체의 지도방법을 완성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을 완성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령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자각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밀고나가는

것이라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우리 식의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문학예술건설과 문학예술창작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가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어야 하며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 자각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독창적인 리론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가장 완전하게 구현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령도방법으로서 문학예술활동의 특성에도 맞는 가장 우월하고 과학적인 령도방법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근본원리로 하고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담당수행한다. 그러므로 세계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각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로 된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문학예술창작의 필연적요구를 가장 완전하게 반영하고있다.

문학예술창작사업은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창조력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인간의 리지만이 아니라 감정이 참여하며 높은 사상과 함께 뜨거운 창조적열정이 요구된다. 팽대한 판단만으로써는 그리고 개념적지식만으로써는 뜨거운 열정으로 높뛰는 사상예술성이 풍부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지도사업에서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만이 아니라 심장을 틀어쥐여야 하며 혁명적열의와 함께 창작적열정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말하여준다. 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심장이 없이는 높은 사상성과 풍부한 정서로 넘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예술을 이끄는 전 력사적인 나날에 그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밀고나갔으며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과 함께 심장을 힘있게 틀어쥐으로써 그들 자신이 스스로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움을 절절하게 노래하게 하였고 심장의 노래, 열정의 노래가 온 강산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에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고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든 혁명적령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문학예술지도를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우리 당의 령도는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과 심장을 힘있게 틀어쥐으로써 그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곧 문학예술사업에

옮겨져 문학예술창작에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을 마련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새로운 창작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뚜렷이 나타내려면 지휘성원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을 소유하고 실천에 옮겨 구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실천적모범으로 로동계급의 당과 일군들이 문학예술지도에서 튼튼히 들어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한 구감을 창조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예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들어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문학예술지도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완성하시었다.

우리 당이 창시하고 전면적으로 완성한 주체의 문학예술 지도방법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문학예술부문에 구현하여 발전시킨것이며 모든 일군들이 작가, 예술인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문학예술창조사업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창작가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그들이 대담하게 사고하고 대담하게 창작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창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창작지도방법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무엇보다 먼저 창작지도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주체적문예사상은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 전과정의 지침이며 총화의 기준이다.

문학예술지도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사업에 앞서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의 정책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여 밀고나가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문학예술지도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문학예술창작의 내적필연성을 구현한것으로서 작품창작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움으로써 믿음직한 창작적성공으로 이끄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지도방법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또한 문학예술창작에 대한 지도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그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창작하도록 이끌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이 독창적인 창작지도방법은 작품창작의 본질적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게 하는것으로서 우리 문학예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창작이란 본래의 의미에서 새것, 독창적인것을 탐구하고 개척하는것으로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창작할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수 있다. 혁신이 없이는 새것이 창조될수 없듯이 대담성이 없이는 새것, 독창적인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없다. 창작가가 줄장부가 되면 작품도 졸작이 나오기 마련이다.

당은 창작가에게 담을 키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문학예술지도에서 착취계급의 관료식 명령식 방법을 철저히 반대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독창적으로 밝힌 창작사업을 계발식으로 지도할데 대한 문학예술지도방법은 일군들이 창작가의 창작적 환상과 열정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머리를 토티움으로써 창작가들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우월한 문학예술지도방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리론은 이밖에도 문학예술창작지도에서 사람을 밀어주고 이끌어줄데 대한 방법,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방법,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 등 실로 문학예술창작지도에서 튼튼히 들어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완성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리론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들어줘야 할 령도체계, 령도내용, 령도방법 등 모든 문제들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혁명적인 해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리론을 하나의 완벽한 전일적인 과학의 체계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고 우리 문학예술을 사상예술성으로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당의 강유력한 사상전선의 무기로 되게 하였다.



시조

## 청춘과원의 새노래

정영호

### 과원의 봄

가물가물 아지랑이  
연두색 봄빛을  
듬뿍 찍어  
파일나무 그루마다  
고이 칠하니

단잠에 묻혔던  
아지마다  
파릇파릇 움이 트는 소리  
사과꽃 만발한  
꿈이 피어나는 소리

가슴에  
젖어들수록  
뜨거운 생각  
걸음마다  
목메여오르는 생각

엄혹한 겨울에도  
대한추위의 날이었지  
아버이수령님께  
차디찬 바람을 막아드리자고  
우리모두  
겹겹이 담을 쌓았던...

백두광야의 바람도  
앞을 못막았는데

이쯤한것이 뭐라는가고  
우리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그이께선  
호탕한 웃음을 터치시였지

날아가던 기러기들  
안식의 잠자리 펴는  
아직은 갈대숲의 진펄  
그이께선 걸으시며  
여기에 무릉도원을 펼쳐놓자고  
사랑의 눈길을 엮으시였지

자옥마다  
눈시울 젖어와라  
아버이수령님  
숫눈길 헤치시며  
그루마다 심어주신 사랑이여서  
이 별의 찬바람을 다 안으시며  
가꾸어주신 봄빛이여서

백리라 청춘과원은  
설레이고 설레이여라!  
향기향기 뿜어울릴 기쁨이  
한껏 망울을 터치는 소리  
아버이수령님  
숫눈길을 헤치시던 그날의 자옥자옥  
아, 봄날이 마주오는 소리

### 꽃속에 열매속에

이른봄의 차디찬 바람속에  
꽃눈을 아껴가며  
나무아지 다듬어주고  
티 한점 앓을세라  
시원스러이 약물을 뿌려주며  
송이송이 키워온 그 마음  
꽃마음  
망울을 터치며  
진정을 터치며  
활짝 피어올라  
백리라 청춘과원

두둥실 꽃구름 바다위에 실렸더니

해종일 불러도 불려도  
다함 모르는 꽃노래  
꽃속에 솟는 달이 어여빠  
한밤에도 잠을 모르는 처녀들의 노래  
꿈을 담아 향기 담아  
새벽에로 닿더니

휘늘어진 아지마다 주렁주렁  
실바람만 내리여도



짜르르 쏟아질라  
하늘가 백리과원이  
울긋불긋 파일바다우에  
등실 두등실...

아, 알알이 눈부신  
파일의 무지개 타고 솟는 해가  
볼수록 황홀해  
처녀들의 청맑은 노래  
휘날어진 아지마다에 실리어  
향기향기 흐르오, 흘러 넘치오

밀물에 씻기우고  
셀물에 씻기우며  
갈대만 설레이던 황야에  
해저물도록 울리던  
조개죽는 너인들의 구슬픈 노래  
어디로 다 흘러갔는가

언덕마다 높이 들린 집집의 처마  
그 한끝을  
꽃속에 잠그어  
꽃마을  
그 한끝을  
무르익는 열매속에 잠그어  
환희의 마을

아! 백리라 청춘과원이여!  
꽃속에 열매속에  
정녕 사람들의 마음도  
늙음을 모르는 청춘이여라!  
삶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영원히 꽃피우며  
드림없이 영글리우며...

## 사과 따는 처녀들

바구니  
아롱다롱 꽃수놓은  
수확바구니  
옆에 끼고  
과원의 처녀들  
사과를 따네

춤추는 나무아지 타고  
사뿐사뿐  
사과풍년 싹풍년...  
노래도 절로  
춤도 절로

불불는 석양은 눈부신 조명등  
백리라 과원은 드넓은 무대  
일손은 마냥 흥겨워  
처녀들의 부푼 가슴 나래돌히고  
바구니 바구니마다  
향기로운 파일은 그득그득

-애들아, 이걸 어쩜 좋니  
아무리 따내도 끝이 없는걸...  
기우는 저녁해 야속도 해라  
안타까이 바라보고 또 보는가  
빨간 머리수건의 처녀

그러자 일손 채고 익살많은  
과원의 처녀들  
복치듯 터져오르는 웃음  
터져오르는 익살  
-걱정도 팔자다 애  
총각과 만날 시간 놓칠가봐나  
호아, 호아, 호아...

한마디의 대꾸도 나오지 않아  
한마디의 대꾸도 나오지 않아  
빨간 머리수건의 처녀  
수집음이 두볼에 빨갳게 타니  
또하나의 사과알이  
다롱다롱  
그의 뺨에도 달렸구나!

-사랑은  
새별을 이고 만나야 정든단다  
새벽이슬을 맞아야 함뻍 익는단다  
다시금 허리를 들까볼며  
깎깎대는 처녀들  
머리위로 날아퍼지는 놀란 새무리

아! 한없이 즐거워라

과원의 처녀들  
그 어디에 비길까  
땀흘려 바친 로력이

한껏 무르익은 기쁨  
쏟아져 내리는 로동의 기쁨...

##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무르녹는 과일향기 목메이는  
싱그러운 과원길 걸으며  
조용히  
마음 뜨거이 세여보네  
하나, 둘, 셋...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먼먼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이수령님께  
향기로운 꽃송이로  
서느러움을 드리고싶어  
주렁진 열매로  
기쁨을 드리고싶어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  
백리청춘과원을  
오르고 내리며  
그루마다 골라  
정히  
저택의 정원에 떠보내드렸던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인민의 과원에 기쁨이 주렁져야  
자신께서도 시름을 놓으시겠다고  
바치려던 인민의 진정우에  
오히려 크나큰 은정으로  
고스란히 되돌려보내주신  
영원할 사랑의 이야기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해마다 꽃은 피어  
향기 넘치고  
빨간 열매 주렁주렁...  
이루지 못한 인민의 그 소원을  
너도 알고있는듯  
여기 백리청춘과원에 다시금 뿌리내리고  
설레이누나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과원을 찾는 사람마다  
쓰다듬어보고 어루만져보며  
더운 이슬 어리네  
복받쳐오르는 가슴마다  
수천수만의 뿌리내리네  
억년 드림 모를 인민의 그 마음이 내리네

가슴을 치는 격정이어!  
그이께선  
언제나 그 언제나 모든 은정  
우리에게 다 기울여주시는데  
어찌하여 수천수만의 우리 인민  
세상에 오직 한분  
위대하신 그 한분을  
이리도 다 위해 드리지 못하고 사는가!

아, 열네그루의 사과나무  
세여보네  
세여보고 또 보네  
하나, 둘, 셋...

## 이 가슴에 간직된 뜨거운것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는 몰라  
  
사과꽃향기 그윽한 과원길로  
그 총각은 프락뿔을 몰아가고

고무호스 틀어쥐고 따라가며  
내 뿔어올리는 약물의 분수  
채롱채롱 눈부신 해빛에 싸여  
고요히 피어나는 철썩무지개런가

퐁퐁퐁...  
 물줄기 한번 더 세차게 쏘아주며  
 지그시 웃는  
 그 총각과  
 열결에 마주치는 눈길  
 《어마나! ...》  
 어쩔바 모르는  
 수집음이런가

날마다  
 해마다  
 아지를 뺨치며 자라오르는  
 과일나무아래  
 이 내 단발머리  
 키도 자라  
 마음도 자라

사랑사랑 봄바람  
 따뜻이 입김을 불어주며  
 꽃눈을 띄워주고  
 그 언제 한번 헤쳐보인적 없는  
 이 내 마음엔  
 하늘하늘  
 봄순이 자라

눈섭 검은 그 총각  
 마주보긴 어려워  
 팬스레 가슴 울렁거려도  
 참말이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는 몰라

소리없이 피어웃는

꽃송이  
 천송이 천만송의  
 호호 입김을 모아  
 꽃가루를 묻혀주며  
 남몰래 짓는 미소가 아닌가

번개 내려쨌지고  
 퇴성 울부짖는 그 밤  
 쏟아져내리는 폭우속에  
 꽃 한송이 질세라  
 이 한몸  
 달리고달리던 화원에서  
 동트는 새벽을 맞는 환희로움이 아닌가

펄펄 끓는 불별아래  
 천그루 만그루  
 끝없는 과원의 바다  
 그루마다  
 폭폭 복을 돈구어주며  
 구슬같은 땀방울 흠치는 기쁨이 아닌가

아, 사랑이란 무엇인지  
 나는 몰라

참된 삶을 열어준  
 고마운 이 하늘, 이 땅을 위해  
 바쳐도 바쳐도 다함을 모르는  
 그 마음이 주렁진 열매속에  
 그 총각과  
 말없이 기뻐 웃는 로동의 환희가 아닌가!

꾸밈을 모르는  
 꾸밈을 모르는...

## 백리라 청춘과원

백리라 청춘과원  
 아득한 과원길에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주는  
 끝모르는 감격의 이야기...

세월이 갈수록 뜨거웁소

어버이수령님  
 오시여  
 사과나무도 우리 식대로 심자고  
 한걸음 두걸음  
 몸소 그루사이를 채여주시던  
 원두봉기슭의 그 숲길우의 자욱...

솔비등의 애어린 나무아지우에  
수북이 덮인 눈을  
손수 헤치시고  
하나하나 꽃눈을 세여주시던  
다심하신 그 손길...

그 무슨 말로 다 전하겠소  
이르는곳마다  
그이의 숭엄하신 자옥  
망울을 터치며  
피어나고 피어나는 이야기  
헤아려도 헤아려도  
끝없는 은정...  
끼니마저 잊으신채  
과원을 걸으시였소  
점심일랑 걱정 말라고  
꼭 가시여 드시겠다고  
흔연히 웃으시며 월곡마루 넘으시더니  
또다시 끼니를 잊으시였다오  
점도록 과원을 걸으시며

전화의 날엔  
불에 탄 야산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발길 못떼시더니  
안겨주신 백리청춘과원  
인민이 누리는 기쁨이 보고싶으시여  
더더욱 활짝 꽃피워주고싶으시여

아! 해종일 떠나실줄 모르시였소  
우리의 아버지

눈바람을 헤치시고  
오시여  
따뜻이 움티워 주고가신 그 사랑  
꽃이 되고  
쏟아지는 눈비를 맞으시며  
오시여  
영글리여 주고가신 그 사랑  
열매 되어

하늘가에 닿았구려  
땅이 꺼지도록 실린  
탐스러운 과일  
다치면 쏟아질가봐  
불어내리는 바람도  
삼가 숨을 죽이오

온통 불이구려  
알알이 홍보석  
빛을 뿜는 그 모습  
그만 흐트러버릴가봐  
물씬물씬 흐늘어진 향기도  
조심히 흐르오  
아, 백리라 청춘과원은  
하늘가에 끝나도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  
봄이면 꽃구름  
가을이면 노을빛 구름  
세월과 세월을 이어  
가도가도 끝을 모르오

## 당생활에 대한 생각 외 1편

오 재 신

신입당원시절엔 다 몰랐노라  
동지의 작은 파오를 놓고서도  
그처럼 아파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 심정을-  
조직의 결정을 받들어

새 결의를 다지는 그때만이 아니다  
한가지 한가지  
새로운 분공을 받아안으며  
크고작은 생활의 그 모든것을  
당조직의 위임으로 받들어갈 때

아, 생각은 깊었노라  
당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맡겨주는  
그 모든 일을 성스럽게 받으며...

인민들속에 뿌리박고  
인민의 심장속에 깃들어  
함께 숨쉬며 교락을 같이하는 당조직  
가장 엄숙한 순간에 나를 위해  
나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당회의

범상한 우리들의 생각과

폐사로운 우리의 로동속에  
열정과 창조로 내뻗치는 당의 숨결  
당조직이 손잡아 이끄는 길에  
보람찬 나의 당생활은 이어지고  
한치 드림이 없으니-

한생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드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속에  
참다운 생활의 보람을 둔 나의 당생활이어

내 오늘 이름없는 시인이어도  
이른봄 영농일지에 적히는  
번덕스러운 날씨를 두고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쏟아지는 검은 금의 흐름을 안아보며  
희망찬 조국의 래일을 그려  
심장 더더욱 뜨겁게 불태우노라

때로 길을 가다가도  
장난세찬 어린것들의 어지러워진 손발을

맑은 물에 씻어주며  
내 어린 자식들과 같은 그 눈빛을 마주보며  
꾸지람속에 더없는 애정을 담아주노라

오늘만이 아닌  
머나먼 후날에 대한 생각도  
누가 보지 않는 마음속 시름까지도  
깡그리 터놓으며  
조직앞에 엄숙히 총화짓노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  
이 하나의 신념  
인민이 누려가는 그 생활로  
한폐지 한폐지 공간없이  
매순간을 혁명가의 한생으로 빛내여가는 나의 삶

인민의 뜨거운 지향속에  
한생을 두고  
사랑과 열정으로  
투쟁의 한길을 걸어가는  
오! 나의 당생활이어

## 북창의 밤에 부르는 노래

### 1

나는 왔노라  
북창이어  
화력발전소의 밤이어

가슴 부푸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증기타빈의 진동속에 온몸을 묻고  
빛발치는 전류의 흐름과도 같이 열렬한  
그런 시를 짓고 싶어

현장보이라의 화염속에  
나의 열정의 불꽃을 잠그노라  
자동조작공의 뜨거운 눈길에서  
로동계급의 참다운 지향을 안노라

우리 수령님  
아침이면 먼저  
화력발전소의 굴뚝부터 보신다고-

그래서 한생  
보이라앞을 떠나지 않는다는  
보이라운전공의 그 마음

내릴줄 모르는 증류계의 바늘로  
나는 한구절 한구절을 쓰노라

타빈과 타빈 사이를 말없이 걸어가는  
발전공의 눈빛에 타는 그 생각으로  
빛발쳐 흘러가는 송전선을 지켜선  
배전반공의 그 심중의 말로  
나는 이 노래를 부르노라

아 한키로와트라도 더!  
빛과 열을 뿜으려는 그 열망에 젖어  
불타는 밤  
잠들줄 모르는 북창의 밤이어

### 2

주배전반실 로대우에 나서니  
나의 머리우에  
하늘을 치받으며 곧추선 굴뚝들  
전설속 거인의 숨결인듯  
흰연기 솟구쳐올라라  
북받치는 힘의 분출  
열정의 분화구-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을 날려버리며  
터져오르는 환희의 웨침!

몽개치는 흰연기  
세자루의 붓이런가  
북창의 로동계급이 온 가슴으로 추켜든  
거대한 필봉이런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할  
아, 나의 기쁨이여

보이라운전공의 속깊은 생각도  
저 흰연기에 젖어있고  
발전공의 타는 눈빛도  
저 흰연기에 어려있어라

한점을 가리키는 자동조작반의 계기들도  
저 흰연기의 높이에 어깨를 겨루고  
강렬한 회전의 쾌감에 몸을 떠는 타빈도  
거침없는 저 솟구침에 숨결을 맞추노라

아, 그 무엇으로써도 지우지 못할  
영원한 시를  
조국의 하늘에 써가는 시인  
오늘의 기쁨을 먼 래일로 날라가는  
그리고 또  
휘황한 래일을 오늘로 당겨오는 환희의 노래

순간이라도 흰연기 밋으랴  
저 붓끝이 밋어서랴  
10대전망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비약의 또 하루가 여기서 시작되거니

어버이수령님 바라보실 하늘을 펼쳐놓고  
여기엔 벌써  
그 아침이 밝아있어라

### 3

노래하노라 북창이여  
거인의 붓을 들어  
저 하늘에 새기는 너의 서사시-  
열의 말, 불의 노래로 부르노라

이몸 그대로  
한점 불꽃으로 타오른들  
가슴속 끓는 열정 다 기울였다 말하라  
불러도 불러도 다함없는 이 노래  
저 평양의 하늘 우러러 부치노라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제일 먼저  
화력발전소의 굴뚝부터 보시리니-

북창이여, 굴뚝높이  
전설의 거인처럼 온 하늘을 호흡하자  
수천가닥 송전선을 거머쥔 그 손으로  
대진군의 북을 치자  
번개를 치자

쉬임없이 흰연기 뿜어  
저 하늘에  
불타는 심장의 말을 새겨넣자  
《천역 키로와트시  
전력은 넘려 마시라!》고

당중앙창문에 비낀 저 하늘에  
그 글발이 불타오를 때  
위대한 수령님  
그 글발을 읽으시며 기뻐하시리

북창이여  
어버이수령님 지으시는 그 밝은 미소를  
지니고 살자

낮이나 밤이나 그 언제나  
흰연기 몽개치는 그 아침을 안고 살자  
그 아침으로 한생이 불타고  
그 아침으로 대와 대가 이어지게 하자

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드는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의 노래  
부르고부르며  
깊어가는 북창의 밤  
조선의 밤이여!

-북창화력발전소에서-

## 휴식

림 재 성

옥천로동자구에 있는 식료상점을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로 도내 현지도일정에 포함된 모든 대상들을 하루 앞당겨 전부 돌아보시였다. 그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른아침부터 밤늦도록 불편한 로상에서 해를 지우시고 새날을 맞이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제 최학준에게는 아름답게만 생각되던 공업생산계획이며 걱정스럽던 농사도 막히는것이 없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가 끝난 지금 최학준의 가슴이 그토록 부풀어오르는 또하나의 원인은 오래전부터 애써 찾던 린회석을 학산탐사대에서 발견한것때문이다. 수령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실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절로 설레인다.

래일은 일요일이다. 수령님께서도 이날만은 도내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휴식의 하루를 보내시기로 약속까지 해주시였다.

최학준은 설터로 내금포에 새로 꾸린 휴양지를 점찍고 빈틈없는 준비를 해놓았다.

최학준이 매무시를 바로 하고 부관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쓰시던 글을 마무리하시느라 다시 만년필을 집어드시였다. 활달한 필치로 글을 써나가는 수령님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완강한 의지가 빛발쳤다.

《수령님, 린회석을 찾아냈습니다.》

최학준은 수령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기를 초조히 기다렸다가 말씀올렸다.

《어데서 찾았소?》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강냉이가 잘되는 학산지구에서 찾았습니다.》

《학산... 어디 봅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최학준이 올리는 탐사보고서를 받으시자 재빨리 읽어내려가시였다. 순간 수령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였다.

《매장량... 품위... 모두 대단하군! 대단해!》

기쁨어린 목소리로 거듭 외우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벽에 걸어놓은 지도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시더니 웃음을 깊숙이 기울이시였다.

낮익은 등고선과 각종 지질학적부호들이 수령님의 시야에 안겨왔다. 그이께서는 깊은 골과 험준한 산발들을 그려보시며 요 며칠사이 돌아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도내 농업부문사업을 다시금 돌이켜보시였다. 두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몸소 밟아보신

포전들을 그려보시다가는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며 알곡수확량을 따져보기도 하시였다. 예비는 확실히 이 도와 같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묻혀있다. 린회석! 이것이 바로 풍부하게 잠재해 있는 예비를 동원시켜주는 열쇠로 될것이다.

《학산탐사대동무들이 큰일을 했소... 수고들했소.》

수령님의 얼굴에는 자식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장하게 여겨주시는 어버이사랑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 담담하신 목소리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자애와 기쁨이 어려있는가.

최학준은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느끼며 학산탐사대의 사업을 보고올렸다.

《그 동무들이 소문없이 큰일을 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또 지도를 들여다보시였다. 왜 그런지 학산의 우불구불한 달구지길이며 짙레꽃의 향기가 요란스러운 구릉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마음을 사로 잡고 놓아주지 않는것은 험한 산발들을 넘나드는 탐사대원들의 미더운 모습이었다. 그들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며 정다운 그고장의 오솔길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 보고싶으신 강렬한 욕망을 좀체로 달래이실수 없으시였다.

《도당위원장동무, 래일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은근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아침부터 래일이 일요일임을 상기시키던 최학준의 속마음이 헤아려지시였기때문이다. 아니나다를가, 수령님의 물으심에 학준의 몸가짐이 대변에 굳어지고 눈빛은 간절한 열망으로 번쩍거렸다.

《수령님, 래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였다.

《그래 쉬잔말이지?》

《네,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이께서는 살이 반나마 뾰은 성냥박을 이리굴리고 저리굴리곤하시였다. 잠시 방안을 채운 정적속에서 성냥살 구르는 소리가 툭툭적으로 달가닥달가닥하고 울려왔다. 최학준은 가슴을 짓누르는 그 침묵을 이겨낼수가 없어 또한번 간절한 청원의 말씀을 올렸다. 이 정만은 꼭 받아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데 가서 휴식할 작정입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뜻밖이리만치 선선히 승낙해주시였다.

《저희들은 수령님을 내금포에 모시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로 이루어져있는 내금포는 이 도의 자랑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갈대숲이 무성하고 날짐승들이 멋대로 둥지를 틀던 그 호수가에는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휴양소가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도 몇년전에 다녀가신 그고장을 생각하시는듯 정어린 눈길로 최학준을 바라보시었다.

《호수에 물고기가 많아졌겠습니까?》

《네,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초어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내금포의 초어구경을 좀 해볼가.》

최학준의 두눈은 기쁨으로 번쩍거렸다. 그는 자기의 소원이 것처럼 쉽게 이루어진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이 긴장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학산으로 가는 길을 세세히 묻기 시작했던것이다.

《위원장동무, 학산이 에서 백여리길이라면 조반전에 다녀올수 있겠소?》

수령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우시었다. 자애가 넘치시는 그 조용하신 목소리는 뭔가 광해를 구하시는데 한 너그러움이 깔려있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조반전에 학산에 제격 다녀온 다음에 내금포 초어구경을 떠납시다.》

《예.》

최학준은 미타한 생각이 바이 없지 않았으나 다르게 대답할수는 없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방송신호를 알리는 부드러운 선물이 울려퍼지기 시작하는 푸르스레한 새벽에 도소재지를 떠났다.

이날따라 바다안개가 어찌나 짙은지 열발자욱을 가려보기 어려웠다. 장밤 거치른 수면우에서 뒤채이며 떠돌던 바다안개가 이제야 서두르며 물으로 기여 올라와 좁은 골목과 시원하게 트인 포장 도로를 그물그물 기여다니고 키높은 전주와 건설장의 탑식기중기들, 고층아빠트들, 한껏 신록이 우거진 가로수의 허리를 칭칭 감으며 재물을 부린다.

껌뻑이는 자동차의 전조등, 어데선가 귀따갑게 울리는 야무진 호각소리, 그속에서 아직도 줄음기가 실린 선 목소리들이 간간이 들려왔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하루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항구도시의 이 소음을 뒤로 멀리 밀어던지며 속력을 높였다. 너무나 레사로와진 그 소음속에서도 조국의 숨결을 가늠하시려는듯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몸가짐을 바로 하시더니 안경을 벗어드시었다.

승용차는 앞이 탁 트인 들판길에 들어섰다. 밤새 식어버린 바다가의 선기가 차창으로 스며들었다. 길 양쪽에 위병처럼 대렬을 지어 길게 늘어선 가로수들이 춤추며 환호하듯 우줄우줄 다가왔다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곤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포전들과 저멀리 파상형의 구름들에 충을 이루고 펼쳐진 파원들을 차분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이른아침의 시원한 바람결에 곡식익어가는 산촌의 독특한 향취가 풍겨온다.

《올해 파일작황은 어떻습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최학준 쪽에 미소어린 눈길을 보내시었다.

《최고수확년도였던 작년보다 정보당 석톤을 더 내다보고있습니다.》

《석톤이나 더...?》

수령님께서서는 손가락 셋을 펴보이시며 자못 놀라우신 표정을 지으시었다.

《괜찮소. 그만하면 동무네도 장훈을 부를만 하오. 허허.》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의자등받이를 철썩 내려덥치는 시늉을 하시며 후련하게 웃으시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들길을 벗어나 지세 험한 산협길에 들어섰다.

파상형의 구릉우 파원도, 야산비탈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도 저 멀리 안개속에 자취를 감추고 그대신 바람벽같은 절벽이 승용차의 좌우로 뻗뻗이 죄어들었다. 방금 솟아오른 아침해살이 차창을 뚫고 들어와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이신 수령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다듬어놓은 운석같은 층암절벽이며 바람결에 건들거리는 내가의 버들숲이며가 아침노을에 물들어 불꽃처럼 일튼거렸다. 여기로부터 한동안 험한 울리막길이 시작된다.

어데선가 《우여-이-》 하고 다사한 새떼와 입씨름을 하는 아낙네의 느린청이 길게 울려오는데 저기 누엿한 등성이 풀밭으로 양떼들이 구름처럼 흐른다. 귀를 기울이면 주절거리는 실개천의 물소리도 들리는듯싶었다. 그러나 지금 최학준의 마음을 사로잡고있는것은 산촌의 특유한 이 목가적인 정서가 아니라 한시바빠 불편한 협곡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조바심이었다. 그런데 명상에 잠겨계시는 줄 알았던 수령님께서 문득 웃음을 앞으로 숙이시며 부관의 어깨를 건드리시었다.

《차를 좀 세우오.》

수령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승용차는 인적드문 비탈밭옆에 멎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승용차에서 내리시자 방금 지나온 비탈밭쪽을 바라보시었다. 어째 그러신지 무거운 표정이시다.

최학준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지며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기미는 느낄수 없었다. 기상이 자못 날카로운 대소군봉들이 좌우에 아찔하게 솟아있는 협곡인지라 수령님께서 시간을 내시여 보실만한것도 없거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실만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의문에 싸인채 수령님을 지켜보던 최학준은 저으기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경사진 땀기밭으로 뻗어오른 오솔길에 들어서신것이다. 키를 다투어 우거진 잡초들에 묻혀 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오솔길 좌우에는 짙레덤불이며 엉켜가 텃대로 자라고있었다. 최학준은 앞으로 달려나가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도 털어드리고 싶었으나 워낙 오솔길이 비좁은데다 수령님께서 어찌나 걸음을 급하게 옮겨 짊으시는지 미처 손쓸새가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땀기밭으로 곧추 걸음을 잡아드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게으른 안개가 꾸물거리는바람에 산허리를 안고 저쪽으로 휘여듬하니 굽어든 밭까지 자세히 보시기는 어려우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발돋움을 하시어 그쪽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급히 걸음을 내짚으시었다.

즈분한 물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반달형으로 휘여든 강냉이밭이 차츰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골농사를 다년간 지도해온 학준의 눈으로 볼 때 그만하면 비탈밭의 작황이 괜찮다고 생각되였다. 그랬으나 수령님의 안색은 조금도 풀리지 않으시었다. 웬일인가 해서 땀기밭들을 차례로 살펴나가던 최학준은 한곳에 눈길을 멈추었다. 깊은 골을 마주하고 가로 길게 누워있는 등성이밭 한귀가 별스레 어수선했다. 간밤 이 학산일대에 심상치 않은 바람질이 있었다더니 곡식이 피해를 입은 모양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가로세로 군드러진 비탈밭의 저 곡식을 보신것이다.

《린... 린비료를 많이 주지 못해 이렇게 됐소.》

수령님께서서는 바람에 쓰러진 강냉이대를 어루만지시며 가슴아파하시었다.

최학준은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했다. 수령님께서 오래간만에 즐겁게 보내시게 될 휴식일까지 걱정을 끼쳐드린다는 자책때문이다. 그는 한시바삐 어수선했던 비탈밭에서 내려갔으면 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슬맺은 풀길을 헤치시고 몇땀기의 강냉이밭을 더 돌아보시고야 비탈길을 내리시었다. 험한 비탈길은 내리시면서도 자주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보시는 수령님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얼른거렸다.

찬이슬에 바지가랭이가 화락하니 젖으시었다.

《길을 좀 다그칩시다.》

차에 오르신 수령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재촉하시었다.

《학산으로!》

승용차는 도중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였다. 앞으로 학산까지는 30여리가 남았을뿐이다. 승용차는 도중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였다. 최학준의 눈길은 자주 손목시계를 더듬었다. 그러나 승용차는 10리길도 축내지 못하고 또 멈춰섰다. 앞을 내다보니 검은색과 흰색을 엇갈아 칠한 긴 차단봉이 얼른거리

고 그옆에 늑수그레한 철도일군이 한사람 서있었다. 철도건늑길이었다.

산너머 저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목적이 실리신채 생각에 잠겨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그 유정한 기적소리에 이끌리신듯 몸가짐을 고치시더니 차문을 여시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나 바람벽같은 산들이 가로막혀있는데 그 새잠을 묘하게 비집고 두줄기 철길이 쭉쭉 뻗어나갔다. 가지가지 야생초들이 곱게 자란 츄렁바위밑으로는 바닥의 조약돌들이 손에 잡힐듯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내도 흘러 류다른 벽촌의 정서가 한가슴에 안겨온다. 그랬으나 인가라고는 선로감시원네 집 한채뿐인 산상의 외따른 이 고장은 어데라 없이 쓸쓸한 향수같은것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잠간 주변풍치를 살펴보시다가 선로감시원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시었다.

근방에서는 보기도문 낫선 승용차여서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던 감시원이 수령님을 알아보고 황급히 마주 달려왔다.

《여기서 일한지 몇해나 됩니까?》

수령님께서서는 거수경례를 하는 감시원의 손을 다정히 잡아 내리우시며 친근하신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40년이 돼옵니다.》

감시원이 눈을 습벅이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해방전부터 있었겠습니까?》

《예.》

《40년이란말이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입속말로 뇌이시며 주변의 풍경을 새삼스럽게 둘러보시었다. 층암절벽과 운무에 싸인 아아한 메부리들을 차분한 눈길로 더듬어나가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험곡 새잠으로 뻗어나간 두줄기의 강철케도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해빛을 안고 유난히 번쩍거리는 철길옆 자그마한 공지에는 이고장에 흔치 않은 갖가지 화초들이 다투어 키를 솟구고 그옆 물매 급한 쪽에는 왜싸리가 숲을 이루었다. 오가는 기관차가 들려주는 기적소리를 벗삼아 40년! 결코 산수적개념으로만 계산할수 없는 긴긴세월, 바주는 사람도 없고 시킨 사람도 없었으련만 수격수격 땅을 두치고 씨앗을 묻어 여름내 땀별아래에서 알심있게 가꾸었을 늑은이의 말없는 수고가 가슴뜨겁게 헤아려지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늑은 감시원의 장알박힌 손을 이윽도록 놓지 못하시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선로감시원을 거듭 치하하시고는 왜싸리를 가꾸던 경험을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었다.

선로감시원은 철도국장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한산골 늑은이의 소행을 수령님께서 그토록 대견히 여기시고 관심하고 계시는데 그만 감격하여 목이 메여왔다. 그는 곧 활기를 띠고 말씀올렸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철쭉마다 왜싸리를 많이 심었더니 철쭉이 여간만 든든해지지 않았습니

다. 씨는 반아서 기름을 짜구 나무로는 삼태기를 걸어쓰니 그야말로 썰렁고 알먹고 등지 털어 볼때는 격입니다.》

《허허... 그 말이 옳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이번에는 철쭉과 잇닿아있는 가파로운 산허리에 성벽처럼 꺼멓게 숲을 이룬 잣나무림에 대해 여러가지로 물으시었다.

《이고장의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청청하다가도 바람이 터지면 샅시에 시켜면 비구름이 물러와 무더기비를 퍼붓습니다. 설밀의 눈보라는 또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선로감시원은 정말 지독한 눈보라를 만난 사람처럼 반백의 희숙희숙한 눈섭을 찌프리고 야단스레 고개를 흔들었다.

《성화를 먹이는 사태를 막아보려고 한그루한그루 심었는데 지금은 덕을 단단히 입고있습니다.》

공지에 차서 말하는 선로감시원은 실눈을 해가지고 꺼먼 잣나무숲을 바라보았다.

《작년에 저 앞산에서만 해도 석톤반이나 되는 잣을 땀는데 모두 철도지구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었습니다. 고 귀엣둥이들이 이 내 목을 섭쓸어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매달립니다. 나비처럼 나풀나풀 춤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좀 작은편이면서 단단하게 생긴 선로감시원을 따듯한 눈길로 건너다보시었다.

레루장이 가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감시원에게 어서 렬차를 마중하라고 이르고는 자신께서도 철길쪽으로 다가가시었다.

뚜- 《붉은기》호 전기기관차가 비좁은 협곡에 긴 메아리를 불러일으키며 불쑥 굽인돌이에 나타났다. 끝은 샅시에 요란한 굉음으로 소란스러워지고 한가로이 설렁거리던 나무숲이 태를 치며 설레었다. 제나름으로 청을 뽑으며 우짖던 다사한 산새들이 일제히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회리바람을 일쿠며 육중한 대형화차들이 산중초소앞으로 뱅뱅 지나갔다. 공장, 기업소들로 실려가는 석탄과 쇠돌, 협동전야에서 기다리는 트랙터와 각종 대상설비를 실은 육중한 화차들이 오달진 선로감시원 앞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저는 저 렬차들을 보구 조국의 숨결을 느낍니다.》

눈귀에 잔주름을 짓고 멀어져가는 렬차를 바래는 선로감시원의 말이다. 그 목소리, 그 표정에는 당당한 주인의 긍지와 희열이 어려있었다.

《조국의 숨결! 참 비슷한 말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각에 잠기신다.

승용차가 다가왔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차에 오르실념을 하지 않으시었다.

최학준의 얼굴에는 초조한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줄곧 시계바늘을 지켜보던 그는 수령님께 너무 지체하시였음을 여쭙려 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어느새 선로감시원과 마주앉으시며 이고장의 산세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산세가 사나운것만은 사실입니다.》

선로감시원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었다.

《그러니까 감시원동무, 만약 예서 학산쪽으로 철길을 뚫는다면 어느쪽이 유리할것 같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선로감시원과 함께 산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었다.

대소군봉들을 좌우에 주련이 거느린 주봉 학산이 저기 운무에 싸여 푸르스름하게 보였다.

선로감시원은 궁리를 하는지 턱을 약간 쳐들고 멀리 앞을 살피고있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마침내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다. 그는 길바닥에 나딩구는 몽드려진 나무꼬챙이로 지형도를 그리었다.

《이 골짜기를 따라가며 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철길을 놓을수 있습니다.》

선로감시원은 지세가 험한 이고장에서의 성토란 사실상 벼랑을 까내고 골을 메우는 난공사임을 덧붙여 설명했다.

《성토를 하면 몇리길이나 됩니까?》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50리 길은 착실합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른 방법은 어떤것인가고 물으시었다.

《학산령으로 해서 직발 철길과 잇닿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옛날 이 산골에 뺨스가 다니지 못할 때에는 학산골사람들이 그 령길로 해서 읍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령길이 얼마나 됩니까?》

《15리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긴 차굴을 뚫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여리의 차굴을 뚫는단말이지?》

아버이수령님께서는 학산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외워보시었다. 길고 엄한 계곡의 50리성토나 10리차굴이나 다 같이 간단한 작업량이 아니었다. 선로감시원은 이 방대한 작업량때문에 수령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신다는것을 느끼자 마음을 풀어 드리려고 여러가지로 원심을 썼다.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철길공사를 해야 한다면 50리가 아니라 그 열급이라도 해내겠습니다.》

선로감시원은 지금 철도운수부문의 건설력량이 대단하다는것을 말씀올렸다.

《제자식 자랑하는것 같습니다만 저의 말아들은 철도건설사업소 기사장이고 머느리도 토공기사입니다. 기관사, 역장 다 있습니다. 이너석들만 불러와도 큰몫 하나는 맡을겁니다.》

《집에 자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선로감시원의 말을 흥미있게 듣고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물으시었다.

《예, 아홉남매입니다.》

《그것 참 대단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최학준이쪽을 돌아보시며 인자하게 미소를 그리시었다. 그바람에 이제는 떠나시자고 말씀 올리려던 최학준은 어찌지 못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사양하는 선로감시원의 손에 억지로 담배를 쥐여주시고 성냥을 그으시었다.

《아들딸들이 편지나 자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자라면 등지를 털고 나간 새처럼 저를 낳아 길러준 부모들에게 편지 한장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혁명을 하는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못씁니다.》

《수령님,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선로감시원은 대번에 성수가 났다. 수령님께서 어찌면 그렇게도 자기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지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수령님, 제 그래서 편지도 하지 않는 애녀석들을 되게 꾸짖군합니다. 그런데 로친은 날 보구 봉건이라면서 자식들의 편역입니다. 허.》

《<감투>를 씌운단말입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쏘리는 정때문에 티각태각했을 언덕아래 문화주택을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으시었다.

박꽃이 하얗게 핀 그 집 굴퓏에서 가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앞내가에서 방치소리가 울동적으로 울려온다.

해는 어느덧 높이 떠서 따가운 별을 쟁글쟁글 퍼붓기 시작했다. 최학준은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수령님께 시간이 퍼그나 지체되었음을 말씀 올리었다.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시는 수령님께서도 이제는 떠나자고 말씀하시었다. 정작 떠나시려니 이 적막한 산중에 남게 될 늙은 선로감시원이 마음에 걸리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선로감시원에게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어려워 말고 말하라고 하시었다. 무엇으로라도 그를 도와주셔야 마음이 가라앉을것 같으시었다. 그러나 선로감시원은 애로되는것이 없노라고 말씀 올렸다. 하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다. 수령님께서는 주저하는 그에게 다시금 대답을 재촉하시었다. 선로감시원은 최학준이까지 곁따라 부채질을 하는바람에 용기를 내어 입을 뗐다.

《애로라고 말할것까지는 못됩니다만 저... 막내아들이 올해 의사가 됩니다.》

하고 선로감시원은 입을 열기는 하였으나 또 망설이게 되었다.

막상 말씀을 올리려니 그러지 않아도 마음쓰실일이 많으신 수령님께 일신의 사사로운 문제를 제기하는것이 무엄하게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 어찌나 간격없이 소탈하게 대해주시는지 저도 모르게 불쑥 말씀드리고말았다.

《늘그막에 너무 적적해서 그녀석이 대학을 졸업하면 가까운 리병원이라도 와있게 해볼가 하고 마음먹었는데 말을 들을것 같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말을 안듣는단말입니까?》

수령님께서는 뜻밖의 청이어서 좀 놀라우신 표정을 지으시었다.

《두어번 편지로 찢어보았는데 통 모른체합니다. 야단났습니다.》

《그거 참 야단났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정말 야단이 나신것처럼 급히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드시었다.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수령님께서는 무릎우에 수첩을 펼쳐놓으시고 선로감시원이 불러주는 대학주소와 그의 아들이름을 받아쓰시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오늘중으로 대학에 전화를 걸것.》 하고 쓰시고는 밑줄을 굵직하게 두줄 그으시었다.

《소원을 풀어주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선로감시원은 축축해지는 두눈을 슬쩍거리며 허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승용차는 또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났다.

《참 좋은 동무요. 저런 동무들이 초석을 이루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억년 드물지 않을것ियो.》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고는 뒤를 돌아다보시었다.

자그마한 초소옆에 서있는 오탈진 선로감시원은 마침내 츤령바위에 찾아들고 인상에 깊고 뚜렷한 흔적을 남긴 그 골은 푸른 잣나무숲만이 얼른거린다. 하건만 최학준은 사무치는 깊은 감동과 회오의 쓰라림으로 하여 방금전에 받은 충격의 여운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다.

최학준에게 있어서 방금 지나온 철도 감시초소는 결코 생소한곳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초소를 지키는 감시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일이 없다. 이름없는 산중초소를 지키는 한 로당원의 헌신성을 그렇듯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인민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는 수령님! 작고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누구나 체득하지 못하고있는 이 크나큰 사랑과 위대한 품모양에서 마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학준이다.

이고장의 날씨가 번덕스럽다는 선로감시원의 말은 옳았다. 청청하던 하늘에 어느새 시꺼먼 비구름이 해를 삼킨채 수없이 떼지어 날아왔다. 갑자기 온 천지가 떠나갈듯이 우뢰가 진동하더니 새파란 섬팡이 침침한 협곡에서 눈부시게 병긱거렸다.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앞의 모든것이 시뻘연 장막속에 숨어 부산스레 설레였다. 그러나 이 신령스러운 고산지대의 거치른 노숙도 불과 얼마가지 못했다. 승용차가 비좁은 협곡을 벗어날무렵에는 벌써 눈부신 해살이 구름새짚을 비집고 확 쏟아져내렸다. 단비로 목을 추긴 대지는 한껏 기지개

를 컸다. 주위 풍경은 방금 채색을 끝낸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나 최학준의 마음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학산의 마지막 내리막길이 심상치 않은데다 방금전과 같은 하늘의 노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로상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할 희망은 없다. 바라는것은 이제부터라도 수령님께서 더는 갈길을 지체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하는것뿐이다. 그러나 우려하던 그 일은 마침내 닥쳐오고야말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또 승용차를 세우신것이다.

최학준은 급히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느새 10시가 되었다. 그는 부지중 마음이 죄어들었다. 길없는 산상을 오르내리신데다 피약별속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피곤 하시랴. 모처럼 마련된 휴식시간을 이처럼 불편하신 로상에서 보내시도록 한것은 전적으로 자기탓이라고 생각하는 최학준이었다.

다행히 승용차가 멎은곳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유촉진곳인데다 주변에는 그이의 시간을 빼앗을만 한것이라고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누구나 심상하게 생각할수 있는 최학의 호박넙쿨이 그이의 관심을 끌게 될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호박농사 지은걸 좀 구경할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기 바쁘게 호박넙쿨이 무성한 쪽길로 향하시였다. 멀지 않은곳에서 넙쿨을 손질하던 녀인들이 달려와 머리수건을 벗으며 인사를 올렸다. 그중에는 최학준이가 이미 낯을 익히고있는 처녀작업반장도 있었다.

《호박농사를 썩 잘 지었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먹이 금시 주저앉을것처럼 무겁게 매달린 호박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였다.

《네.》

하고 처녀작업반장은 상긋이 웃으며 대답을 올렸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버림받던 빈땅에 호박과 들깨를 심었더니 여간만 잘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니까 동무네는 앓은자리에서 새땅을 얻은 셈이요.》

《네.》

《생각이 기록해. 아무데 가봐도 새세대처녀들이 한결같이 피바르고 이악하거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애티가 가셔지지 않은 처녀의 복스러운 얼굴을 미소어린 눈으로 정겨웁게 바라보시였다. 고산지대의 노적심한 계절풍과 피약별의 시달림을 받아 가무스레 탄 처녀의 량볼로 맑은것이 방울져 흘렀다. 험한 산골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신 수령님께 변변치 못한 최학의 호박을 보여드리게 된 송구함으로 가슴을 조이던 그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에 저으기 감동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손으로 가슴을 보듬고 수령님의 뒤를 따라 걸음은 내짚었다.

《처녀동무, 올해에 호박을 얼마나 팔것 같소?》

수령님께서서는 옆으로 뻗어오른 넙쿨을 조심스레 덕우에 올려놓으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우리 작업반에서만두 50톤을 예견하고있습니다.》

《50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감탄하시며 아스런히 뻗어나간 호박덕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이윽하여 다시 처녀작업반장쪽으로 눈길을 옮기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로부터 이고장의 풍토에 순화시킨 호박 조숙종의 생태적특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설명을 들으시며 공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께서 손수 호박을 가꾸며 얻으신 경험으로 처녀의 눈을 띄워주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자꾸만 걸어나가시였다. 풀잎에 맺힌 비방울이 수령님의 바지가랭이를 축축히 적시고 바람이 불 때마다 덕우의 넙쿨에서 후둑후둑 떨어졌다. 모자며 어깨가 축축하게 젖으시였으나 그이께서는 처녀작업반장과 나란히 걸으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호박의 봄철씨불임으로부터 필지별 작황까지 세세히 료해하고나신 수령님께서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는데 그이의 변함없이 자애가 넘치시는 눈은 예지로 더욱 밝게 빛났다.

《처녀동무, 이 많은 호박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

수령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였다.

《농장원들의 수입에 보탬이 될가 해서 군채과도 매소에 10톤을 계약했습니다.》

《그건 잘했소. 그다음의 40톤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건 아직...》

신바람이 나서 대답을 올리던 처녀는 귀밑을 확 붉혔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빈땅이던 최학, 길옆 가리지 않고 씨앗을 묻고 정성들여 가꾸기는 했으나 그이상으로 생각을 달려보지 못한 처녀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이 헤아려지시는듯 빙그레 웃으시였다.

《이거 보라구, 처녀동무.》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어깨를 가벼이 다치시며 조용히 의논조로 물으시였다.

《돼지를 좀 기를수 없을가?》

《돼지를 말입니까?》

《그래... 동무도 학산에서 린회석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들었겠지?》

《네, 들었습니다.》

처녀작업반장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놀란것은 그뿐이 아니였다. 최학의 호박농사와 학산의 린회석! 최학준이 이제껏 무심하게 생각했던것들

이 하나의 편채반응속에서 뚜렷한 자기의 표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왕성한 정력이 넘쳐흐르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머지않은 앞날에 학산에는 큰 광산이 일어설 것이요.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남의 나라 창고에 있는 린비료를 믿고 우리 식의 농사를 지을 수는 없소. 그렇소, 린! 린비료가 있어야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잠깐 말씀을 끊고 부드러운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시었다.

《처녀동무, 동무네 농장원들이 돼지를 잘 길러서 광부들에게 보내주면 그들은 신바람이 나서 더 많은 린회석을 캐낼거요.》

《수령님, 꼭 돼지를 기르겠습니다.》

두손을 힘껏 마주치고 수령님을 우러러보는 처녀의 눈은 새별처럼 빛났다. 철부지 소녀에 불과한 자기에겐 그렇듯 크나큰 믿음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하해같은 그 은정을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담아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광부들의 고기는 우리 농장원들이 말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영채가 오롱초롱한 처녀의 맑은 눈을 정겨웁게 바라보시었다. 이런 미더운 사람들과 해종일 들판길을 거니시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었다. 그러면 힘이 나시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즐기찬 지향을 끝없이 이으실 것 같았다.

《광부들에게 공급할 고기문제는 처녀동무를 믿고 내 마음을 놓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학산탐사대에 이르시었을 때에는 정오가 다 되었다.

탐사대에서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보통 일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직발 탐사대실험실에 들리시어 분석을 끝낸 시료를 관찰하시었다. 보실수록 대견하시었다. 외국에서 사오는 린회석에 결코 짝지지 않는 높은 품위의 광석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시료함앞에서 왔다갔다하시었다. 농촌에 빠스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령길을 넘나드는 길손조차 없어 세월의 비바람에 오솔길의 자취마저 희미해지던 산에 이런 진귀한 보물이 묻혀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시었다. 험한 벼랑길을 뚫아오르고 깊은 계곡을 넘나들었을 탐사대원들의 말없는 수고와 가슴뜨거이 헤아려지시었다.

《동무들이 수고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애가 넘치시는 음성으로 같은 말씀을 몇번씩이나 외우시었다.

《수령님, 저희들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령님께서 가리켜주신 곳에서 탐사를 했을 뿐입니다.》

탐사대장은 목이 메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실 매장량에서나 그 품위에서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이고장의 린회석은 그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다. 탐사대에서 여러해 동안 애를 썼지만 린회석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탓할 대신에 학산지구에서 강냉이가 해를 번지지 않고 잘될 뿐 아니라 아무리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덕하지 않으니 필경 린회석의 조화일거라 하면서 한번 탐사를 해보라고 일깨워주시었던 것이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오?》

밖으로 나오신 수령님께서서는 탐사대장에게 물으시었다.

《송천봉으로 이동작업을 나갔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탐사대장이 가리키는 송천봉으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붉은 운무에 싸인 송천봉의 메부리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 명암으로 하여 한층 우람하게 보였다.

《수리개들이 하늘 높이 날았군!》

빙그레 웃으시는 수령님께서서는 주변에 널려있는 대소군봉들을 차례로 더듬어 나가시다가 학산의 중허리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산중턱의 꺼먼 강냉이밭이 류다르게 그이의 눈길을 끌었다. 시꺼멓게 독이 오른 강냉이는 먼데서 봐도 잘되었다는 게 알렸다.

수령님께서 웬 밭이냐고 물으시자 탐사대장이 자기네 부엌밭이라고 대답을 했다.

《강냉이작황이 꽤 참은 것 같소?》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우리 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정보당 10톤은 문제 없을 거라고 들 합니다.》

탐사대장은 긍지를 가지고 말했다.

《린회석덕일거요.》

《그렇습니다.》

《발구경을 좀 합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옆에서 만류할 사이도 없이 가파로운 비탈길에 성큼 들어서시었다. 길이 여간 험하지 않았다. 키높이 자란 잡초와 어수선한 잡관목때문에 오솔길은 완전히 제 모습을 잃어버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최학준과 탐사대장이 여러번 만류하였으나 예까지 왔다가 그 좋은 걸 구경하지 않으면 되겠느냐시며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었다.

어느덧 해그림자가 동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복더위가 한창인 여름의 한낮 해별은 지지는 것처럼 따가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무성한 잡초와 잡관목을 헤치시며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쉬임없이 걸음을 재촉하시었다. 산상의 땀기밭까지 모조리 돌아보실 작정이시다. 마음을 조이며 수령님의 분부만 기다리

고있던 최학준은 그이 앞으로 다가갔다. 더는 지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가 막 간청의 말씀을 올리려는데 마침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뚝 멈춰서시였다. 웬일인가 해서 앞을 살펴보니 바로 눈아래 파상형의 긴 구릉우에 무성한 강냉이밭이 시원스레 펼쳐져있었다.

모자채양을 약간 우로 올려미시고 량손을 허리에 얹으신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나라의 모든 강냉이밭을 이렇게 만드는데가 나의 꿈이요.》

《!! ...》

어버이수령님의 그 밝은 미소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정어린 목소리에 최학준은 차마 내려가지자는 말씀을 올릴수가 없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최학준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부자연스럽게 궁싹거리는 몸가짐에서 그의 말 못할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계시였다.

《학준동무, 너무 근심하지 마오.》

수령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있는 학준이쪽에 몸을 반쯤 돌리시더니 손수건을 꺼내시여 이마전을 훔치시였다.

《말이 났으니말이지 내금포의 배놀이가 아무리 훌륭한데 이 강냉이밭을 구경하는것만 하겠소?》

《수령님!》

《이제 여기에 큰 광산을 하나 잘 꾸립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린비료를 보내줄수 있고 모든 포전들이 이 강냉이밭처럼 잘될거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 동안을 두시고 저멀리 송천봉쪽을 바라보시였다.

《동무들은 나를 보구 늘 만수무강하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인민들이 잘먹고 잘사는것을 보면 저절로 만수무강해지오. 나는 오늘 대만족이요. 나에게 이것보다 더 훌륭한 휴식은 없소.》

최학준은 수첩우로 달리던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수려한 내금포의 해돋이구경을 사양하시고 이른새벽부터 이 험한 산간오지의 오솔길을 밟으셨는지 비로소 느끼는 최학준은 일생을 두고 느끼며 생각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이 짧은 순간에 체험하는듯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람결에 조용히 설레이는 강냉이밭을 취한듯 바라보신다. 최학준의 심장은 초조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름없는 산중초소를 지키고있는 선로감시원이나 나어린 처녀작업반장과의 허물없는 담화도 모두 미래에 태여날 이 광산을 위한것이였고 그것은 보다 풍족해질 인민들의 생활과 잇닿아있었던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잘먹고 잘사는것을 보면 저절로 만수무강해지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한자한자 적어나가던 최학준은 별안간 눈물이 콧 솟아나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배워도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기울이는 사랑의 깊이는 전부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깊어지는 생각속에서 자기를 뒤우치던 최학준은 수령님의 정력에 넘치신 목소리를 듣고야 고개를 쳐들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사대장으로부터 광산개발계획을 들으시던 수령님께서 활기띤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계곡을 따라 철길을 놓을수 있습니다. 학산령밑으로 차굴을 뚫자는 동무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두 공사의 난점과 공사기일이며 투자의 효과성에 대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였다. 학산지구에 광산을 내오며 그 많은 린회석을 어떻게 수송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학산지구에 광산을 내오는 문제에 못하지 않게 중요한지라 최학준의 마음은 스스로 죄여들었다.

수령님께서 선로감시원과 헤어지신 다음 그 문제를 생각해보신것이다.

《내 생각 같아서는...》

수령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한손을 높이 쳐드시여 머리우에 흰 구름을 떠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송천봉의 아아한 메부리로부터 학산의 우거진 참나무숲을 주욱 그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천하를 호령하시듯 정력에 넘치시여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삭도들 놓자는것입니다.》

일행은 막혔던 숨을 길게 내쉬였다. 험한 산과 깊은 계곡에 어차피 벌려놓아야 할 방대한 인입선공사때문에 모두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던것이다.

《도당위원장동무, 수일내로 관계부문일군들의 협의회를 가집시다... 아니, 오늘 당장 합시다. 린회석문제는 조금도 지체할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령님!》

최학준은 오늘이 수령님께 차례진 많지 못한 휴식의 하루임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

최학준은 수없이 엇바뀌면서 흘러가는 산촌풍경을 생각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직은 아무런 뜻도 의의도 없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곧 마주있게 될 도당집행위원들의 얼굴이며 학산의 높은 산정으로부터 쪽쪽 뿜어나간 삭도줄과 그와 잇닿은 풍년벌이 뚜렷한 표상을 그리며 삼삼히 떠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떠반들려있는 조국은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의자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실리신채 기척없이 앉아계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사색속에서는 또 어떤 위대한 구상이 무르익으는지...

## 당에 비길것은

로 웅 렬

당의 고마움을 두고 사람들은  
태양에 대지의 품에 비겨보더라  
허나 천만가지 생각 고르고 찾은  
그 비김만으로 어찌  
당의 은정 다 헤아리라

태양의 파사로움도  
내 기쁨으로 느끼고  
대지가 가꾸는 꽃과 열매도  
반겨맞을수 있는것은  
나를 믿어주고 보살펴주는 품이 있어  
내 마음에 그늘이 없기때문이어라

소박한 일터가 그리도 정답고  
구름우에 불 밝은 나의 집  
저녁이면 아이들의 웃음을

행복으로 받을수 있는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삶이 한없이 보람있기때문이어라

참된 인간의 존엄을 주고  
생에 환희와 빛을 주는  
아, 그것없이 사는 살아도 삶이 아닌  
그 믿음, 그 정치적생명은  
당만이 안겨주고 키워주거니

당이며,  
어찌 그대의 은혜로움을  
태양이나 대지의 품에만 비기랴  
아니여라 내 마음엔  
그대의 고마움에 비길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구나!

## 조국의 물맛 외 1 편

김 윤 철

준령을 넘고 밀림을 헤치며  
대오는 조국으로 조국으로...  
너전사는 드디어 삼지연못가에  
가슴들먹이며 그린듯 섰다

아, 어린 딸에게 마른 젖 물린채  
왜놈의 칼에 숨진 어머니 묻혔기에  
못잊어 꿈결에도 더더욱 못잊어  
하루에도 열백번 안아보던 조국땅

남의 등에 업혀 울며 갔던 그 딸이  
아버이장군님 품에 안겨자라  
유격대의 너전사로 다시 온 길

백리를 천리를 한자옥우에 디뎠구나

오, 은구슬 금구슬 설레이며 맞아주는  
삼지연 조국의 맑은 물아  
내 어머니의 못잊을 눈동자를 싣고  
너도 목메여 철철 넘치는거냐

젖은 눈곱 흠치며 와락 무릎 굽혀  
두손으로 삼지연물 움켜 마시니  
가슴속에 줄줄이 흘러드는 맑은 물  
잃었던 내 어머니 소생하여  
다시 물려주는 달디단 젖맛일세

## 차창에 마주앉아

눈아래에 줄줄이 따라서는  
맑은 산골물에 고기떼 떴다

길은 록음은 푸른 주단이런가  
발기우리 나리꽃은 비단우의 무늬일세

꽃무늬 비단우에 노니는 산새는  
고운 목성 다듬어 가야금줄 튕기고

가야금소리 은은히 들려와  
내 가슴속에 즐거움이 한가득

이런 때면 뜨거운 땀에 폭 젖어  
일하고싶은 욕망 더욱 간절해

급행열차도 굼뜬것만 같고

보람찬 일터에 마음 먼저 가있거니

아 해빛 찬란히 넘치는 내 나라  
사람도 산천도 축복받은 내 조국은

한줄기 령길도 무심한 산발도  
삶의 보람 익혀주는 정다운 교단일세

한마리의 산새도 하나의 꽃송이도  
충성을 다져주는 말없는 스승일세

## 협곡의 맑은 흐름

리 의 석

언제부터 시작된 흐름이나  
어디서부터 달려온 흐름이나  
쉬임도 없이 멈춤도 없이  
줄기차게 내닫는 협곡의 맑은 물

가는길 천리라 만리라 험난해도  
오히려 너는 맑디맑은 청을 돋구어  
청산에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누나  
열백길 벼랑 서슴없이 뛰어내리며

한번 가면 다시 못오는 길이기에  
티를 남기지 말자고  
그 많은 자개돌 옥으로 다듬으며  
흘러 흘러가는 너의 뜻

수수천년 너는 이렇게 흘렀으리  
먼먼 앞날 너는 이렇게 흘러가리  
협곡의 맑은 흐름이여  
아, 당을 받드는 이 마음  
너의 뜻을 안으리

## 해바라기

신 형 길

물오른 푸른 줄기 넓은 잎새  
소담하고 의젓한 너는 좋아  
예쁜 얼굴 고운 꽃  
볼수록 좋아

나비벌 찾아와도  
너는 못본듯이  
비바람 불고불어와도  
언제나 몸가짐 단정하니  
해빛따라 방긋이 미소 짓는구나

따뜻한 온기를 준  
그 은혜 못잊어

뿌리내린 땅  
삶의 자양분, 젖물을 주고  
온기를 준 그 사랑 못잊어

아침에도 낮에도 종일  
한모습  
해빛, 해빛만을 따르거니

길떠나도 한생각  
밤깊어도 한생각  
나도 너처럼 살리  
오직 한분 우리 수령님만을 우러러!



# 역사적인물의 전형화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주인공 리준의 성격형상에 대하여 -

김려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또하나의 본보기로 창조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외세에 대한 환상이 가져다준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력사의 교훈을 찾게 하고 자주사상의 위대한 진리성을 밝히고있는 기념비적명작이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주되는 성과의 하나는 주인공 리준이의 성격형상에서 전형화의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력사적인물의 성격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이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가 제기한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진정한 독립은 민족의 자주적힘에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문제제는 주인공 리준이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극적으로 밝혀지고있다.

주인공 리준이의 애국적행동과 그 제한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 흥망성쇠의 근본문제, 민족의 자주정신의 절박성과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 1

혁명연극 《혈분만국회》가 력사적인물의 전형화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주인공 리준이의 성격형상에서 그의 긍정적인 측면과 제한성을 통일적으로 훌륭하게 전형화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 어떤 문학예술도 시대와 사회제도를 떠나서는 인간을 시대의 전형으로 그릴수 없으며 력사발전의 본질이 체현된 전형적인 생활을 담을수 없습니다. 인간과 생활을 시대와 사회제도와인 관계속에서 그린 문학예술작품만이 진실로 사실주의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시대와 생활의 참다운 거울로 될수 있습니다.》**

참다운 사실주의문학예술은 시대계급적본질을 체현한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을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로 제기한다.

시대의 특징과 계급의 본질을 떠난 인간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리준이와 같은 력사적인물의 시대계급적본질을 전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 인물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력사적인물을 형상화하는데서 그 인물의 긍정적측면과 제한성을 옳바로 규정하고 그리는 문제에 귀착된다.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력사적인물은 해당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 시대의 진보적인 세력을 대변하는 긍정적인물로 된다. 그러나 력사적인물은 그 시대가 도달한 사상적높이의 계선을 넘어설수 없으며 따라서 자체의 제한성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지 않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력사적인물의 형상에서는 진보성, 긍정적인 면과 함께 제한성을 그리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되는것이다.

일정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형성된 력사적인물의 진보성을 옳바로 평가하고 그리는것은 곧 그 인물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화로 되며 이와 함께 현시점에서 력사적인물이 할수 없었거나 하지 못한것을 정확히 찾고 그리는것은 곧 그 인물의 제한성에 대한 예술적일반화로 된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주인공 리준의 성격형상에서 발현되는 진보성과 제한성을 다같이 옳바로 규정하고 그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사실주의적으로 훌륭하게 전형화함으로써 력사적인물의 전형창조에서 고전적본기를 마련하였다.

연극은 주인공 리준의 애국적행동에 대한 형상화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투쟁의 일단을 감동깊게 보여주면서도 리준의 비극적운명에서 당시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투쟁을 찾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새시대가 요구하는 자주의 진리를 밝히고있다.

리준이는 애국충정에 불타는 당대의 열렬한 애국자이며 우국지사이다. 이것은 리준이의 성격에서 주되는 긍정적측면이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고있을 때 매국역적들은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민족반역의 길을 걸었고 변절자, 시정배들은 한때 《애국》을 론하던 그 입으로 매국을 설교하는 치욕의 길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힘, 력사의 흐름은 막을수 없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이 떨쳐나섰다.

거기에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봉건량반들도 있었다.

그들가운데는 매국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를 반대하여 황제에게 상소하던 나머지 봉건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켜 독약을 먹거나 칼로 배를 갈라 순국한 황실의 대신들도 있었다. 하지만 리준이는 죽을수가 없었다. 죽는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망국의 운명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여야 했던것이다.

그는 매국역적들을 증오하고 변절자들을 타매하며 어떻게 하든지 국권을 회복해 보려는 애국의 뜻을 간직하고 활동한다.

국권회복의 길을 찾지 못했을 때 땅을 치며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는것이며 뜻밖에 듣게 된 《만국평화회의》 소식에서 국권회복의 밝은 빛을 본듯하여 기쁨에 넘치는것 등은 애국자, 우국지사로서의 그의 성격적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열렬한 애국자로서의 주인공 리준의 성격은 칼로 자기 배를 가르는 절정장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만국평화회의》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초를 이겨낸것도 그러하지만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확신했던 국권회복의 길이 막혔을 때 그앞에서 머리를 숙인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 조선민족의 항거정신을 시위한 리준의 민족적절개와 애국의 지조는 그지없이 감동적이다.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은 일제의 노예가 아니라고 웨치면서 쌓이고쌓인 민족의 울분을 피로 뿌린 리준이기에 그는 지난 시기

력사가 기록한 수많은 애국자, 우국지사들 가운데서 류다른 애국의 색채를 띠고 우리 나라 반일애국의 력사와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것이다.

그러나 리준이는 애국자, 우국지사이면서도 참다운 애국의 길을 몰랐었다.

하기에 리준이는 후세 민족사에 얼마나 많은 교훈을 안겨주는것인가.

그것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외세에 의존한 애국충정은 아무리 굳고 뜨겁다 하더라도 비극적인것으로 밖에는 달리 끝나지 않을수 없다는 피의 교훈이다.

리준이의 형상이 주는 교훈은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한 리준의 사상과 리념의 제한성, 그의 성격의 제한성에서 흘러나오는것이다. 리준이의 아름답고 고상한 애국의 감정, 굳고 뜨거운 애국의 절개가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무참히 유린되고 통략되었는가 그것은 미국놈때문이였고 미국놈을 믿었던 그의 성격의 제한성때문이었다.

연극은 리준이의 열렬한 애국심에 형상적바탕을 둔것으로 하여 그토록 감동적이고 절절하면서도 그 애국의 넓이 무참히 짓밟혀 나가는데서 절통한 감

정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하고 참된 애국의 길, 자주정신에 관한 사상을 더욱더 심장깊이 새기게 한다.

리준이는 당시 그가 처한 위치와 그가 지닌 사상의 높이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 애국자이다. 리준이에게서 그 이상의 높은 사상과 리념, 생활철학과 투쟁방법을 기대할수는 없다.

1907년 헤그의 《만국평화회의》를 전후한 시기는 이미 1905년에 날조된 《을사5조약》에 의해 일제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조선봉건국가는 사실상 아무런 실권도 행사할수 없는 허수아비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때 벌써 일제와 결탁하여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조장하였으며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횡포는 극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처에서 일어난 의병투쟁이나 부르쥬아 민족운동으로서의 애국문화계몽운동 등 각종 반일운동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옳바른 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해 지도되지 못하고있었다.

조선의 운명은 바야흐로 식민지, 망국의 처지에 굴러떨어지고있었다.

이러한 시대적환경속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분투한 리준의 애국투쟁과 그 활동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우국지사, 조선봉건황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봉건국가의 충신으로서의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미국의 힘을 믿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주인공의 애국적열의가 고조에 이를수록, 그의 투쟁이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나갈수록 그의 사상과 리념의 제한성은 그만큼 진한 형상적색채로 드러나게 된다.

운명직전에 리준이 것처럼 애써 찾은 국권회복의 밝은 빛이란 결국 허위였다고 하면서 《내 할수만 있다면 저 하늘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수 있도록 이 붉은 피로 글을 새겨놓고싶소.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그의 생의 총화였으며 피의 교훈이었다.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 리준이는 나라와 겨레를 끝없이 사랑하고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로 싸운 열렬한 애국자였지만 외세 의존의 허망한 사상적바탕으로 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는것이다.

주인공 리준의 성격을 전형화한 그 형상적의의는 우선 그의 성격적특성과 비극적운명선을 개별적인 한 인간의 운명문제에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에 관한 철학적문제로 승화시키고 일반화하였다는데 있다.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심오하게 일반화한 여기에 이 명작의 철학성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개인과 집단, 사회적존재로서의 한 인간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는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사람은 머저리가 되고 나라는 망하며 혁명은 실패를 면치못한다.

자주성을 잃고 남의 힘을 믿은것때문에 리준이는 비극적으로 죽었고 국권회복의 뜻도 이룩할수 없었다.

오직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주체시대가 개척됨으로써만 인류력사는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받아안을수 있게 되었다.

리준의 성격을 전형화한 형상적의의는 또한 역사적인물의 전형화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고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기치를 견결하게 옹호고수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력사적인물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해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도 안된다.

리준이는 어디까지나 량심적인 애국자, 우국지사에 불과하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리준이의 성격을 격에 맞게 창조함으로써 해당 시대와 계급의 본질적특성을 뚜렷이 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항일혁명투사의 성격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그의 성격의 제한성을 오히려 전형화하였으며 혁명전통물과 력사물창작에서 그 계선을 명백히 그을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다.

## 2

혁명연극 《혈분만국회》가 력사적인물의 전형화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리준이의 성격발전과정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린것이다.

연극은 무엇보다도 리준이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의 논리에 맞게 그 발전과정을 진실하게 그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성격은 순차적으로 생활적론리성을 가지고 발전하여야 합니다. 세계관형성은 단번에 되는것도 아니고 또 단순하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일정한 생활축적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이라고 하여 생활론리를 무시하고 성격발전과정을 자의대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인간에게는 그에 고유한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가 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 주인공 리준의 성격발전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굴곡이 있다. 연극

은 순탄하지 않은 리준의 성격발전과정을 생활적인 전제와 축적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그리었다.

계몽운동은 산산조각이 나고 의병투쟁은 피물에 흘러가고 국권회복의 모든 희망은 닢과 함께 땅속에 묻혔다고 하면서 나라를 구원할 길을 찾지 못하여 땅을 치며 통탄하던 리준이는 미국놈인 헐버트로부터 보내온 《만국평화회의》 소식에서 희망의 《밝은 빛》을 보게 된다. 《만국평화회의》소식과 그에 대한 기대는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새로운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연극은 여기서 주인공이 왜 《만국평화회의》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제를 생활적으로 타당성있게 안받침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우리 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사실상 조선의 명맥을 틀어쥐고 있던 일제침략자들을 리준이는 물론 당시 모든 조선인민들이 철천지원수로 여기고있었지만 미제의 침략자로서의 본성은 아직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이 알고있는 미국은 《약소민족을 위해 애쓰는 강대국》이었으며 《민족자결》을 주장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다.

연극에서 미국에 대한 이러한 환상은 구체적으로 헐버트놈과의 관계를 통해 형상화되어있다.

연극은 우리 나라에 와서 출판업을 경영하던 헐버트놈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리준에게 국권회복을 돕겠다고 했으며 리준이는 그 말을 믿고 그에게 국권회복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대사형상을 통해줌으로써 리준이가 헐버트를 믿고 미국에 기대를 걸수 있는 타당성을 생활적으로 깔고있다.

이것은 헐버트가 리준에게 절대로 랍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래년에 헤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것과 외국의 도움을 받으면 재생의 대문이 열릴것이라고 하는데서 뚜렷이 볼수 있다.

이렇게 리준이는 헐버트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미국을 믿게 됐고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한 《만국평화회의》에 기대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리준의 성격에서의 굴곡은 생활적론리성을 타면서 사상감정, 내면심리의 다양한 변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만국평화회의》를 기본사건으로 하고 그 회의에 나라의 당당한 대표로가 아니라 밀사로가는 리준이의 형상에 초점을 두었기때문이다. 밀사인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에서는 고민과 울분, 희망과 절망의 감정이 동반되게 된다.

그리하여 연극은 리준의 행동선에 우여곡절을 조성하고 그의 번민과 모대김을 시종일관 끌고나갔다.

황제의 신임장과 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제비문제로 황제를 만나야 하는 일, 이것은 독립국가의 조선에서는 아무런 난관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나라 임금도 마음대로 만날수 없는 당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피할수 없는 난관이였다.

게다가 《만국평화회의》를 둘러싼 리준이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도사리고있는 일제침략자들과 대국역적들, 일제침략의 검은 마수가 뻗친 궁성을 지켜가려는 봉건충신들의 극적관계 등은 임금을 만나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연극에서는 리준이와 리위종과의 관계를 태평관에서부터 극적으로 끌고나가면서 리준이를 비롯한 세 밀사의 처지와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또한 리준이와 옥녀와의 인정선을 생활적인 전제로 하여 의병투쟁에 대한 리준이의 견해를 밝히고있다. 리준이는 계몽운동뿐아니라 의병운동에도 더는 기대를 걸수 없다고 하면서 오직 우리 나라와 같은 약소국가는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인류량심에 호소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독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극은 특히 절정장면으로 되는 주인공의 비극적 최후를 그가 《만국평화회의》 회의장에서 배를 가르지 않으면 안되는 극적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연극에서 리준은 처음부터 헤그의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배라도 가를수 있을만큼 그렇게 도도한 성격을 가진 인간으로 형상된것이 아니다.

다정다감한 리준, 처자와 벗들과 겨레들을 열렬히 사랑했던 리준이 것처럼 뒤흔친 회의장에서 피를 뿌리게 된것은 터치치 않을래야 않을수 없었던 그의 울분의 폭발이였다.

리준은 헤그에 가서 만약 일이 뜻대로 안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것인지 그에 대해서 알수 없었다.

더우기 비극적결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비극을 생각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너무도 컸고 순진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도 지나쳤다. 배를 가르느 비극이 아니라 국권을 회복하고 돌아갈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그의 온 심혼을 사로잡았다.

그러한 리준, 그토록 희망에 넘쳐있던 다름아닌 그 리준이 막다른골목에 이르러 온 민족의 울분을 쏟으며 배를 가르게 되는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파렴치하고 그렇게 교활하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는 미국의 위선을 진실로 알았고 미국의 가면에 속았다.

치음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알려준것도 미국이고 대회에 가기 위한 방도를 알려준것도 미국이며 헤그에 가서 지지자, 동정자를 얻지 못하고 모대길 때 《구원의 손길》을 뻗친것도 미국이다.

미국에 대한 리준이의 믿음은 그야말로 확고하였다.

하기에 그의 사상과 감정, 열정과 의지는 《만국평화회의》에 갈수만 있다면, 또 가서 국권회복의 목적을 달성할수만 있다면 그 어떤 굴욕과 수치도, 강박과 고통도 다 이겨내리라는 하나의 지향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서대감으로부터 뺨을 맞는 모욕도, 한갓 궁녀인 상궁앞에 무릎을 꿇는 일도, 궁성에 들어가려고 하인복을 입는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안해의 연약한 어깨우에 가정의 온갖 시름을 걸머지우고 사랑하는 처자들이 당할 고통과 불행을 뼈아프게 새기면서도 분연히 헤그로 향한 리준이였다.

헤그에 가서도 리준은 자주권 잃은 나라의 밀사가 당하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으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리고 일제와 당당하게 맞서기도 한다. 일신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과 공갈도 나라의 독립, 국권회복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수 있었던것이다. 더우기 《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그에게 더욱 힘을 주었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러나 성공을 바라보는 마지막종착점에서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미제와 일제의 공모결탁, 순간에 돌변하는 미제의 립장, 철석같이 믿었던 미제의 배신과 황제의 굴종 등으로 모든것이 일시에 무너지는것을 체험했을 때 리준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기대와 불안, 낙관과 비판의 상반되는 감정이 부단히 교체되는 속에서 축적되어 온 애국의 감정은 드디어 배반당한 믿음과 정체를 드러낸 위선앞에서 말할수 없는 허무감과 극도에 이른 비분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것이다. 미국에 대한 믿음이 컸던만큼 속히우고 배반당한 울분의 감정 또한 이름할수 없이 컸고 국권회복의 희망이 이처럼 컸던만큼 닦쳐온 절망도 또한 그처럼 큰것이였다.

방금까지 일제의 조선침략을 단죄하는 조선대표의 연설에 공감을 표시하고 동정해나서던 여러 나라 대표들까지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일이 없다고 한 조선황제의 《답진》을 듣고는 순식간에 적의를 품고 조선대표들을 모욕한다.

삽시에 달라진 회의장의 분위기, 미제와 일제놈의 대표를

비롯하여 온 회의장이 조선대표의 퇴장을 요구하여 나설 때 리준이는 드디어 자기가 어리석었음을 깨닫는다.

《아, 내 너무도 순진하고 어리석었구나. 이 <만국 평화회의>에 기대를 가졌던것이... 아, 내 너무도 미련했구나 큰 나라의 힘을 빌었던것이...》

리준이의 이 말에서는 너무도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저주와 통탄만이 울린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비극의 근원을 통감한데서 오는 원한의 웨침이었다.

자주권 잃은 나라의 밀사, 그는 나라 잃은 민족의 울분이 가슴속에 차고넘쳐 마치 이제 금시 물목을 찾는듯했다. 운명은 희롱당한것이였다. 울분과 항거의 정신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것을 터칠길은 없었다. 막다른골목이였다. 드디어 그는 천인공노할 원쑤에게 저주를 보내며 미련했던 자신을 통탄하며 칼로 배를 갈랐다.

민족의 울분이 물들여진 검붉은 피를 뿌려서라도 이 원통함을 가실수만 있다면, 저리도 참혹하게 유린당한 민족의 넋을 지킬수만 있다면 그는 한이 없을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피로써도 죽음으로써도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연극은 이처럼 리준이가 배를 가르게 되는 계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극적정황들과 장면들에서 생활적인 전제를 타당성있게 깔아줌으로써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생활과 성격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성하였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또한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파고 들으로써 주인공 리준의 성격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형상하였다.

연극은 국가대사를 맡은 주인공, 사회정치적사변속에서 활동하는 주인공, 인정깊고 다정다감한 남편이며 아버지로서의 주인공의 산 인간개성을 극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남편이 집을 팔았어도 아무런 내색없이 기울어지는 집안살림을 뻔쳐보려고 가게방을 차려놓은 안해며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나라의 기동감답게 툼툼하게 자라나는 아들과 귀여운 딸애, 그들은 리준의 행복이였고 사랑이였다.

연극에서 주인공의 인정적인 생활을 깊이 파고든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생활을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성격의 본질적 측면을 그의 다면성속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하자는데 있다.

희망은 가졌어도 기약하기 어려운 길을 떠나는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리별의 고통을 새겨가는 리준이, 국가대사를 그르칠가봐 안해에게조차 집을 떠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리

준이와 그 사실을 알고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하면서도 남편이 뜻을 이루고 돌아올것을 간절히 바라는 안해에게서 더없이 귀중한 사랑의 힘을 느끼는 리준이, 안해가 부어주는 술잔을 피눈물을 삼키며 기울이고 안해가 주는 송백주에서 사랑의 넋, 조선의 넋을 안고 떠나는 리준이, 국가대업을 성취하고 돌아오라는 안해의 간절한 소원을 이 나라의 소원으로 새기고 떠나는 리준이는 가슴속에 갈마드는 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가 떠난 다음 가족들이 당할 화를 리준인들 어찌 생각하지 않을수 있었으며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솟구치지 않을수 있었으랴.

하지만 아무리 안해와 자식들이 귀중하다 해도 나라의 귀중함에 비할수 없었으며 가족이 당하는 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라 잃은 설움에 비길수 없었다.

리준이는 나라가 있어야 임금도 있고 백성도 있으며 안해와 자식도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수 없었다.

연극에서 보여주는 가정론리적인 생활, 인정적인 생활은 주인공 리준이가 배를 가르고 자결하는 비극적장면과 강한 형상적대조를 이루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다양한 색조로 조명하고있다.

그토록 인정깊고 다정다감한 사람,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이 기다리는 집이 있고 그들에게로 꼭 돌아가고싶었던 사람, 그러한 주인공이 얼마나 절통했으면 칼로 자기의 배를 갈랐겠는가.

그토록 삶을 즐기고 생활을 사랑한 주인공이 삶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였고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퍼부으며 이국만리에 원한품고 쓰러졌다. 아름답고 고귀한 생을 누리려고 모대기던 리준이가 자기 배를 가르고 죽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은 무엇때문이었으며 누구때문이었던가.

그 장본인은 바로 미일제국주의침략자들이다.

이처럼 인정깊고 부드러운 주인공의 생활은 원래 그의 비참한 결말과 너무나도 인연이 없는것이였으며 여기에 또한 연극의 첨예한 극적인 경지가 있는 것이다.

연극에서 극적정황에 맞는 내면심리 역시 주인공의 성격을 다양하게 펼쳐보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리준이가 집을 판 돈을 내놓으며 《리완용놈은 나라를 팔아먹는데 체집이야 못팔아먹겠소?》라고 하는 뜻깊은 대사, 헤그의 초라한 방에서 게 밀사가 리준의 안해가 준 송백주를 마시는 장면과 그때 조국을 그리며 우리에게 살아서 돌아갈 조국이 없고 죽어서 묻힌 조국이 없다고 하는 리준이의 대사 등은 애국심에 불타고 복잡한 체험세계를 거치는 주

인공의 내면심리를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생활을 다양하게 굴절시켜 보여주고있다.

연극은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뜻깊고 의의 있는 생활세부를 극의 특성에 맞게 형상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의 본질적측면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부각하고 뒤생활을 극적으로 펼쳐보일수 있게 하는 데서도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산산조각난 계몽운동의 형편을 보여주는 깨지고 피가 묻은 오성학교간판, 애국의 넋이 깃든 사랑의 감정을 인정적으로 편결시켜주는 송백주, 가족과의 리별에 정서적여운을 주는 사진찍는 장면, 자주권 잃은 나라를 상징한 조선의 국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에 떨쳐나선 백성들의 애국의 뜻을 담아

《조선》이라는 혈서를 새긴 의병대원 태옥의 목수건, 태평관에서 리준이가 품에 넣었던 리 위종의 칼, 헤그에서 일제의 마수가 뻗친 긴장한 분위기를 시사하는 세개의 탄알 등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리준이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뚜렷이 확증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력사적사건과 력사적인물은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 백두산의 돌

구 희 철

여기선

참말로 백두산 여기서

그 어느 눈에 잘 띄우지 않는 돌 하나도

너무 소중하고 뜻깊어

그냥은 바라볼수 없구나

한그루의 이깔나무

그 아지우에 흔들리는 초록의 송라

바위우에 무늬놓은 돌이끼꽃

그우에 었힌 한방울 산이슬

락엽에 묻힌 길

부석도

바람에 날리고 물우에 뜬다는

그 가벼운 부석조차도

그냥은 볼수 없구나

그냥은 돌수 없구나

그 어느 하나도

나라찾던 그날의

수령님 의분의 자욱 새겨져있고

나라찾은 오늘은

수령님 다녀가신 영광의 자욱 어려있어

한자욱도

무심히 디딜수 없는 부석덩이

단 한순간도

그냥은 걸을수 없는 길

그래서 마음조차 서슴어지는가

오 그렇구나 그래서

백두산아, 네우에 올라서니

이리도 가벼운 부석 한덩이

피로 찾은 조국의 무게가 되어

온 우주를 손에 받든듯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되는구나



## 우리 어머니

김련화

그때 내 나이는 일곱살이었다. 한해전에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아버지를 미제원썹놈들에게 빼앗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원아였고 어머니는 원장이었다.

우리 보육원에는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여든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태어난지 한달밖에 안되는 갓난아기도 있었고 금방 밥술을 받아먹기 시작한 두세살짜리도, 나처럼 제법 썸도 세고 동생들도 보살필줄 아는 유치원생도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탁아소와 유치원이 한곳에 있는셈이었다. 애기들은 젖먹이반에서, 두세살짜리는 낮은 반에서, 나와 같이 썸이 든 애들은 높은반에서 생활하였다.

전선과 후방 그 어디에서나 가렬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있었지만 우리 보육원에는 편유며 하얀 흰 쌀이며 사랑과 파자, 소고기와 돼지뒹다리며 없는 것이 없었다. 정말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전쟁통에는 얼핏 상상하기조차 어려우리만큼 풍족하였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불만이 있었다. 그것은 집에서 끔찍이도 나를 위해주던 어머니가, 이 세상 오직 나밖에 없는듯 알사탕 한알이 생겨도 종이에 싸 허리춤에 간수했다가 잠이 든 내 입에 살근히 넣어주던 어머니가 보육원에 오자부터 달라진 것이었다.

우리가 보육원에 온것은 눈이 정쟁이를 치던 1월이었다. 우리는 령을 두개나 넘어 걸어서 왔다. 그때 어머니는 내 발이 얼세라 숨을 두텁게 놓은 버선을 신기고도 안심잖아 모포조박으로 발싸기까지 했다. 그러다나니 신을 신을수 없었다. 어머니는 80리나 되는 솟은길을 내내 나를 업고 걸었다.

그런데 하루밤을 같이 자고난 어머니는 아침에 어디론가 갔다오더니 나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련심아, 이제부터는 어머니곁에 오지 말아.》

《왜요? 그럼 어머니 이제부터 내 엄마가 아니나?》

《왜 아니겠니. 하지만 네가 자꾸 나한테 오면 다른 애들이 부러워하지 않겠니.》

《그 애들한테 엄마가 없나?》

《없지. 미국놈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다 빼앗아 갔단다.》

나도 비록 아버지가 없었지만 아직은 어머니가 있었기에 고아의 슬픔을 다는 모르고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말에 더 시뽀동해 했는지 모른다. 뽀루통해서 몸을 흔드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어머니의 손길은 가벼이 떨리고있었다.

《아니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여기서두 늘쌍 엄마 곁에서 잘래.》

《안돼, 오늘부터 엄만 너 하나만 붙들구 있을수 없단다.》

어머니의 얼굴이 집어서 살던 그 시절 유리고뿌를 깨고도 안갯다고 거짓말을 한 나를 꾸지람하던 때처럼 새하얗게 되는것이어서 나는 더 어리광을 부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품을 떠나 혼자 자다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다른 애들은 썸썸 코까지 끌면서 자는데 나는 늘쌍 만지며 자던 어머니의 말큰한 젖가슴도 없고 내 볼을 간지럽히던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도 없으니 서글픔에 목이 잠기면서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끝내 살그머니 일어나 어머니가 들어있는 원장실로 발뼌 발뼌 다가갔다.

어머니의 방은 비어있었다. 나는 방마다 들여다보며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낮은반 아이들 호실에 있었다. 살뜰한 손길로 모포도 뽀뽀 여미여주고 베개도 바로잡아주면서 어머니는 재미나는 옛말을 해주고있었다. 나는 은근히 심술이 났다. 집에서였다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했을터인데... 나는 보육원에 온걸 후회까지 했다. 그래서 창결에 더 바싹 붙어서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꼬마들이 잠들어서야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놀라며 허리를 굽히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물자국을 본 어머니는 커다란 손으로 그것을 닦아주었다.

《련심아, 내 방에까지 데려다 줄게 어서 가서 자거라.》

함께 가서 자자고 할줄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말이 야속스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나혼자두 갈수 있어.》

통명스러운 내 대답에 가늘게 한숨 지으며 어머니는 나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련심아, 난 또 애기들 방에 가봐야 한단다. 그 애들한테 젖을 먹여야 하거든.》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불만으로 가득찬 나의 귀에는 어머니의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따듯이 잡아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혼자 걸어왔다. 자리에 누워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막 흐느꼈다. 눈물에 베개가 폭 젖어버렸다. 새벽녘에야 어설픈 잠에 들었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아버지 셋이서 집앞

을 흐르는 달래강에 나가 반두로 고기를 잡고 미역도 감는 꿈을 꾸었다. 전쟁이 일어나기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참말 그런 때가 있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방에 있었다.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두툼한 책에 무엇인가 적어넣던 어머니는 할딱거리는 나를 보자 두눈이 둥그래졌다.

《무슨 일이 있었냐?》

《어머니, 나 집에 갔댔다. 아버지랑 함께 셋이서 달래강에 나가 고기도 잡구 먹도 감았다.》

나는 어머니품에 안겨들며 말을 했다.

《네가 꿈을 꿔구나.》

한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흐려지는것을 나는 보았다. 내 입에서 아버지의 말이 나올 때만 그런다는것을 어린 나였지만 알고있었다. 그래서 꿈얘길 한것을 후회하였다. 잠시 창너머로 보육원 앞산밑에 흐르는 해란강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허리에 찬 주머니를 끌었다. 집에 있을 때 돈이며 도장이며 열쇠들을 넣곤하던 주머니였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몰랐다. 어머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반짝거리는것을 꺼냈다. 칼이었다. 해방된 이듬해 봄 토지개혁때문에 군에 올라갔던 아버지가 읍상점에 들러 사왔다는 봉어처럼 생긴 칼이었다. 크지 않았지만 쇠가 좋으면서 아버지는 그 칼로 연필도 깎고 종이도 뺐으며 글을 쓰다가 틀린데를 박박 긁기도 했다. 하지만 칼이 나에게 그토록 인상깊이 남게 된것은 아버지가 그 봉어칼로 호드기를 만들어주었기때문이었다. 내가 다섯살 잡히던 해 봄 달래강 벼들방천으로 나를 데리고 간 아버지는 물오른 버드나무가지를 잘라서 호드기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호드기를 부니 하늘에서 종달새가 지중지중 화답을 했다. 나는 그게 너무 재미나서 손뼉을 짹짹 치며 아버지가 내 입에 물려주는 호드기를 계속 불어댔다. 종달새도 계속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날부터 나는 호드기를 불며 개버들 우거진 방천으로 흰 솜털이 보르르 돋은 자주빛 할미꽃들이 한벌 깔린 달래강가로, 새빨간 꽃술을 함뿍 뒤집어 쓴 백양나무숲속으로 쏘다니었다. 어디서나 새들은 고운 목청으로 내 호드기소리에 화답해주었다. 노래가 한창 고조되어 흥이 날 때면 나는 호드기를 입에서 떼고 쟁쟁한 목청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곤하였다.

각담의 호박꽃 노랗게 피면  
지붕의 박꽃도 하얗게 피지요  
널니리 범나비 날아들면요  
개울가 우리 집 제일 좋아요

...

그때면 새들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가는 바람결에도 살랑대길 좋아하는 백양나무잎새마저 까닥 움직이지 않은채 내 노래를 듣곤하였었다...

늘쌍 연필도 깎고 종이도 베고 나에게 호드기도 만들어준 그 칼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물이였다. 아마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그 봉어 칼을 내 손에 쥐여주었다.

《런심아, 내 이 칼을 줄게 다시는 엄마한테 찾아오지 마 응?》

나는 아버지칼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선풍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보육원에 와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활짝 웃어보이고 아이들한테로 막 달려갔다. 칼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칼은 대번에 아이들을 내 곁으로 끌어당겼다. 저마끔 칼을 만져 보았고 남자애들은 칼날을 손가락으로 슬쩍 쓸어 보기까지 하였다. 얼마나 잘 드는가 보려고 나무를 깎아보는 아이도 있었다.

《좀 무디였구나, 내 갈아줄게.》

하고 기와장을 주어다가 침을 빨아 썩썩 갈아 날을 세워주는 아이도 있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권총을 깎으려고, 자치기를 할 나무메뚜기를 만들려고 나한테 칼을 빌리곤하였다. 처녀애들도 종이로 고깔배며 뿔이며 바저저고리와 바구니를 만들려고 칼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나는 대번에 아이들속에서 제일 인기가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애들한테 다 칼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절대로 아이들이 칼을 제 주머니에 넣고는 다니지 못하게 했다. 잃어 먹을가봐 겁을 낸것이다. 그래서 칼을 다 쓸 때까지 꼭 지켜 서있곤하였다.

그때 우리 보육원에 사내아이 하나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다. 정철이라고 부르는 그 애의 나이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키는 거의 한뼘이나 더 크고 뼈대가 굵은 아이였다. 그 애는 꼬마 군복을 입고 인민군대아저씨들의 군모에서 빛나는 빨간 오각별이 달린 모자까지 쓰고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번에 그 애 뒤를 줄줄 따라다녔다. 나는 좀 시뻘뻘해졌다. 한데 그 애는 리필순이 어느분이나면서 버젓이 큰소리로 그가 자기 어머니라고 했다. 나는 속이 앵돌아졌다. 아이참, 별난 애도 다있지. 우리 어머니 날 자기 어머니라 하며 으시대다니...

나는 툭 쏘아주었다.

《리필순은 내 어머니야.》

《왜 네 어머니야? 군대아저씨들이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

《흥 렴치가 버치만하구나. 왜 나한테서 어머니 날 빼앗자는거야.》



나는 눈살이 꺾어져서 대들었다. 아마 그때 어머니가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대판 싸움을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네가 정철이구나. 내 군대아저씨들한테서 다 들었다. 그래 내가 네 어머니란다. 너와 정철이의 엄마란다.》 하시며 정철이와 그 애 동생을 한품에 껴안아주었다. 나는 두눈이 울통해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가슴에 얼굴을 박고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정철이와 성철이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두눈에도 눈물이 그렇그렇 피어있었다. 어머니가 그때 왜 울었던지를 지금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 순간에는 나보다 어머니한테서 더 귀여움을 받는 정철이가 얼마나 시샘이 났던지 모른다. 그도 그럴것이 어머니는 보육원에 온 이후 언제 한번 나를 그 애들처럼 안아준적 없었던 것이다. 나는 쓸쓸해지는 마음을 참을수 없어 그곳을 떠나버렸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뒤돌아보니 어머니의 인자한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막 뛰어달아났다. 그때부터 나는 정철을 미워하였다. 그리하여 그 애한테만은 칼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 애 역시 한번도 나한테 칼을 밀려달라고 한적은 없었다. 그 대신 정철은 오각별을 자랑했다. 인민군대아저씨들과 함께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오던 얘기로 아이들을 제결으로 끌어간다. 그때 우리 원아들은 누구나 다 인민군대가 될것을 희망했다. 하기에 아이들은 인민군대아저씨들과 같이 차를 타고 왔고 그분들한테서 미국놈 때려잡던 이야기를 수대 들은 정철이를 부러워하고 그 애를 줄줄 따라다닌 것이다. 나의 칼도 더는 인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정철이를 더 미워했는지 모른다.

외로리가 된 나는 어머니가 더 그리워졌다. 그리하여 나는 낮이나 밤이나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 눈길을 쫓곤하였다. 그러다가 한번은 애기들 방에서 나오는 어머니와 딱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 하고 살근이 불렀다. 어머니는 한없이 따뜻한 표정이 실린 얼굴을 나한테 돌렸다. 나는 너무 기뻐 어머니한테로 막 달려갔다. 그런데 돌며 어머니는 얼굴이 엄해지더니 나를 못본척하고 그냥 가버렸다. 나는 너무나 서운해서 입술을 감쌀며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내옆에 서있는 정철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못본척하고 가버렸구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든 나는 정철이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런데 그 애도 마뜩잖은 눈길로 노려보는 것이었다. 나는 마치 제 어머니를 빼앗기나 하는듯 나를 노려보는 그 애가 꽤 씹스러워 더 어머니한테 가려고 별렀

다. 그리하여 이튿날 낮잠시간에 살그머니 침실을 빠져나왔다. 소리 안나게 문을 닫고 널마루에 나선 순간 나는 처마를 떠받들고있는 아름드리 나무기둥 밑에 우뚝 버티고 선 정철이를 보았다. 나는 대번에 새초롬해져서 그 애 앞을 썩 지나쳤다. 그러자 정철은 내 팔을 덥석 잡아쥐며 위협조로 올라탔다.

《너 자꾸 어머니한테 가지마.》

《네가 무슨 상관이란.》

《네 혼자의 어머니가 아니니깐.》

《참 별라기두. 왜 내 어머니가 아니람. 어머니는 내 엄마야. 난 어머니한테 자꾸 갈테다.》

나는 우정 알뜰게 보이랴구 입술을 뽀족 내밀었다. 그리고는 정철이의 손을 뿌리치고 보란듯이 그 애앞을 떠났다. 그때 나는 깨고소한 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정철은 급히 다쫓아왔다.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내 귀를 따갑게 했다.

《너 정말 그러간. 때려줄테다.》

무섭게 부릅뜬 그 애의 눈은 이글이글 타고있었다.

《때려봐, 때려봐. 네가 때린대구 내가 안갈줄 아니. 가서 어머니한테 다 일러줄테야.》

나는 가슴을 들먹이며 마구 내쏘았다.

《에잇 땡땡이같은거. 네가 찾아가문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걸 못보니.》

정철이의 부르친 주먹이 내볼에 날아들었다. 나의 눈앞에서 불꽃이 날렸다. 아프기도 했지만 약이 발끈 올라 엉엉 울었다. 그러자 정철은 주눅이 들어 나를 달래느라고 애를 썼다. 그래서 나는 더 크게 울어댔다. 어머니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정철이를 옥해줄것을 바라면서...

하지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한테로 다가온 어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다 큰 계집애가 왜 소리치며 우는거냐. 방금 잠이 든 애들이 깨어나겠단.》

나는 손가락을 벌리고 그썸으로 어머니를 내다보았다. 얼굴에 늘쌍 인자한 웃음이 떠돌던 어머니, 자장가를 불러줄 때면 두눈에서 봄벌같이 파사로운 빛이 물결처럼 흘러나오던 어머니, 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면 그 손가락들을 입에 물고 살근이 깨물어주던 어머니, 나에게 그리도 눈익어진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색조차 새하얗진 어머니가 엄한 눈길로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는게 싫었다. 애꿎게 욕을 먹었다고 생각되면서 더 슬퍼도졌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버리자 방으로 들어가자는 정철이를 뿌리치고 몰래 보육원을 빠져나왔다.

한적한 골짜기에는 물소리만이 가득차있었다. 나는 잠시 달구지길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갈까 하고 망설이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마을이었다. 그 길은 눈이 정쟁이를 치던 추운 겨울날 어머니와 함께 보육원으로 올 때 걸은 길이었다. 그후로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다. 오른쪽길은 우리 보육원의 남새밭으로 뻗어있었다. 높은반이었던 우리들은 오이와 참외를 따러 세번씩이나 갔었다. 그리하여 나도 혼자서 넉넉히 갈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길이었다.

나는 그길로 걸음을 옮겼다. 먼지가 풀썩풀썩이는 길에는 나와 한낮이 기운 해님이 만들어낸 내키보다 두릅은 큰 그림자만이 가고있었다. 어디선가 와슬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두릿두릿 살펴보니 개꼬리처럼 탐스러운 누런 조이삭들이 바람에 설렁대고있었다. 나는 짧은 다리를 재게 놀리며 종종걸음을 쳤다. 원두막이 보여서야 숨이 나가고 무서움도 사라졌다. 그러면서 내가 없어진것을 알면 어머니 펄쩍 놀라겠지, 그때면 어머니도 날 덜 고와해준것을 후회할테지 하는 생각으로 가슴속에 웅뿔힌것이 좀 내려가는듯했다.

남새밭을 가꾸는 할아버지는 혼자서 나타난 나를 보자 무척 놀라와했다. 어떻게 돼서 왔느냐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어머니가 먼저 가 알리라고 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인츰 오이와 수박, 참외를 따러 온다고 덧붙였다.

《음, 전번에 내려간 오이두 없어질 때가 되었지. 래일은 또 우리 나라가 해방된 날이니까. 너희들에게 맛있는 참외나 수박을 간식으로도 줘야 할게구, 그럼 내가 먼저 오이와 수박 딸데를 정해 놓아야겠구나. 넌 예서 참외나 먹으면서 다리쉬를 하거라.》

나는 먼길을 오느라 피곤하고 목이 말랐던 탓으로 할아버지가 깎아주는 개구리참외를 달게 먹었다. 목구멍이 시원하게 열리는것 같았다. 배가 부르자 나는 졸음이 왔다. 낮잠을 자는데 습관된 탓도 있었지만 오리가 잘되는 산골길을 걸어왔으니 더 노그라질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먹던 참외도 다 없애지 못한채 술곳이 잠들어버렸다. 얼마를 잤는지 나는 두런두런하는 목소리에 잠이 깨었다. 살포시 눈을 떠보니 어둑어둑해진 원두막나들 문을 뚫고앉아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찾아온게 기뻐다. 인제 안아줄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우정 눈을 꼭 감고 자는체 했다. 그런 내 귀에 오이밭할아버지의 석싹한 목소리가 울렸다.

《원장선생마음두 여간 아니웨다. 살불이라군 애 하나뿐인데 그렇게두 결을 안주니 련심이 도망을 칠밖에...》

《아버님, 우리 보육원의 모든 아이들이 절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제 아이 하나만을 불 안고있겠어요.》

어머니의 나직한 음성이었다.

《지금도 난 저를 여기로 보내면서 들려주던 군당위원장동지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난 애 아버지를 원썬놈들 손에 잃구 어찌할줄 몰라 마음어수선했었어요. 생활의 기둥되던분이 없고보니 집안두 마음두 온통 빈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아버지의 손에 매달려가는 애들을 부러운 눈길로 멍하니 쫓고있는 련심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고 눈물이 앞을 흐리군했어요. 정말 살고픈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금방 재진격해서 돌아와 아직 학교문도 열지 않은 때여서 교원을 하던 내가 교단에 서서 늘 보며 기쁨을 느끼던 아이들의 별빛같이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없었기때문에 더 그랬을게라구 생각되어요. 그런 때 군당위원장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군당위원장은 어수선했던 집안팍을 돌아보고나서 잠이 든 련심이 곁에 앉아 그 애의 곱게 땀은 달래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필순동무, 당에서는 동무를 새로 꾸리는 보육원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처음 나는 그 말이 가지는 깊은 뜻을 인츰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나같이 차그마한 농촌의 인민학교 교원이나 하던 녀자가 어떻게 보육원 원장을 하라 하는 위구만 가득했어요. 그런 나의 말을 듣고난 군당위원장은 감회깊은 어조로 이야기했어요. <장군님께서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직접 교아들을 데려다가 최고사령부에서 키우시고계십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략적후퇴후 즉시로 부모 없는 교아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 보육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들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필순동무처럼 원썬놈들에게 납편을 빼앗기고도 맥을 놓지 않고 더 이악하게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그런 동무들이 학원을 맡아주면 우리들도 마음을 놓겠습니다. 엄혹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에서 교아를 키우고계시다니?! ... 전 그때 머리를 들수 없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녀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로서 아이들때문에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제가 어찌 이 땅에 사는 녀인이라고, 이 땅에서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라고 뻑뻑이 말할수 있겠나요. 전 두손으로 타는 얼굴을 가리운채 눈물을 머금고 속으로 말 씀울리었어요. <장군님, 더는 근심 말아주십시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말이예요.》

어머니의 말이 끝난 원두막안에는 잠시 침묵이 깃들었다. 간간지런히 뜬 내 눈에 머리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눈굽을 짚어내는 원두막할아버지 얼굴이 비껴들었다. 나는 덩둘해서 두눈을 크게 떴다. 무엇때문일가? 왜 저처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우시는걸가?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내가 어찌 어머니의 웅심깊은 사랑이며 그에 감동한 할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두눈을 까박거리며 손으로 턱을 고인채 골똥한 생각에 잠겼다.

내가 바스락거리자 어머니가 돌아왔다. 눈귀에 잔주름을 잡으며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요 새침데길 어찌문 좋겠니. 정철인 숙이 까매서 널 찾아다니는데 여기 와서 쿨쿨 잠만 자고있으니...》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그냥 정철이만 두둔하는 듯해서 아무 말도 안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는 내 이마를 장지손가락으로 푹 찢러주었다.

우리는 산골길을 걸어왔다. 보름달이 어머니와 나를 비쳐주었다. 그 하르르한 비단필같은 푸른달빛은 나에게 어머니의 애무처럼 달콤하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내 손목을 꼭 잡고 걸던 어머니는 원두막이 보이지 않게 되자 따뜻이 말했다.

《련심아, 다리 아프지? 내 업어줄게.》

나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지없이 부드럽고 애정넘친 두 눈이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엄마 정말이야?》

주저주저 묻는 내앞에 어머니는 등을 내대었다. 나는 너무 기뻐 어머니의 등에 와락 업히며 두손으로 어머니의 회고 길쭉한 목을 꼭 그러안았다. 온몸이 두둥실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나는 캐드득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다독여주었다.

《련심아, 내 얘기 하나 해줄가?》

업혀서도 가만있질 못하고 이마를 스치는 나무가지를 손으로 간지럽히는 나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응, 해줘. 꼬마들한테 해주는 얘길 나한테도 들려줘.》

나는 작은 주먹으로 어머니의 등을 톱툰 두드렸다.

《그러자꾸나》

어머니는 나를 힘껏 추슬러 올리며 대답했다. 푸른 달빛이 누리에 가득찬 그 신비로운 밤에 내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한생이 가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그리도 넓고 굳건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어머니의 잔등우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감회깊은 추억으로 남았을것이다.

...앞에는 푸른 바다가 있고 뒤에는 기름진 벌이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에 나와 동갑되는 남자애가 살고있었다. 그 애의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는 수산사업소 책임자였고 어머니는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하는 가공반 반장이었다. 그리고 방금 다섯살잡힌 동생은 밥투정, 장난감투정을 하는 무서운 응석꾸러기였다. 한여름 무더운 날이면 그 애네 식구들은 바다에 나가 미역을 감고 조개도 주어 섭죽을 끓여 먹으면서 휴식날의 하루를 재미나게 보내곤하였다. 이 오붓한 마을에 승냥이같은 미국놈들이 기여들었다. 놈들은 그 애네 식구들을 감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기배부속품들을 감춘데와 유격대가 있는곳을 대라고 때렸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대지 않으니 놈들은 사람들앞에서 그 애의 아버지를 총살했다. 그날밤 감방에 돌아온 어머니는 죽을 기운을 내서 비너로 벽밀을 파기 시작했다. 비너가 닳아없어지자 맨손으로 뚫다. 드디어 구멍이 생기자 어머니는 그 애들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꼭 **김일성**장군님한테로 찾아가라고 했다. 형은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양탈을 쓰는 동생의 손목을 거머쥐고 허리까지 묻히는 눈속을 헤집으며 걷고 또 걸었다. 착한 엄마들이 그 애들에게 먹을것을 주고 복으로 가는 길을 대주었다. 이렇게 걸어 한 마을에 들린 두 형제를 엄마들이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자동차에 태워주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두 형제를 넓은 가슴에 꼭 안아주며 《요 쪼꼬만 발루 천리길을 걸어왔단말이지. 장하구나, 장해.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해놓으시고 기다리신다. 거기에 가면 너희들을 따뜻이 보살펴줄 친엄마가 있단다.》 하고 말했다...

《련심아, 그렇게 정철인 동생을 데리구 우리 보육원엘 왔단다. 그래서 정철인 이 엄마를 자기 어머니라구 부른단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아, 그런 애였구나. 엄마두 없이 동생을 데리구 천리길을 걸어서 우리 엄마한테로 온 애였구나. 그런 애를 고깝게 생각한 내가 얼마나 멍공이람.)

나는 정철이의 눈동자처럼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속살거렸다. 그 애는 동생까지 데리구 천리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엄마속을 태우고 또 업혀까지 가는게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어머니 나 내릴래. 인체는 다리 안아파요.》 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나를 앞으로 돌려다 꼭 껴안아주며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춰주었다. 그 부드럽고 신

선한 촉감은 아직도 내 이마에 남아있는듯하다. 나는 집에 있을 때처럼 어머니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속살거렸다.

《어머니 인제부턴 난 정철이와 싸우지 않을래요.》

《우리 런심이 착한 애라는걸 엄마는잘 알지. 런심아, 우리 이담 전쟁이 끝나면 정철이랑 그 애 동생이랑 데려다 한집에서 살자 응?》

《그렇게 해요. 어머니. 우리 보육원애들모두가 함께 살아요.》

나의 쟁쟁한 대답에 보름달보다 더 환하게 웃어 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우리는 백양나무숲속에 들어섰다. 이 숲만 지나면 보육원이 나질것이다. 달빛은 나무가지사이로 줄줄이 비쳐드는데 그 빛을 받아 은전처럼 반짝거리는 백양나무잎새들이 정답게 살랑대고있었다. 나는 마음이 유쾌해져서 쟁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보육원에 와서 새로 배운 비행기사냥군조에 대한 노래였다. 그때 《런심아-》하는 정철이의 목소리가 내 노래소리에 화답해왔다. 눈을 들어보니 달빛깔린 달구지길로 정철이가 달음박질쳐오고 있었다. 《정철아-》 나도 소리치며 마주 달려갔다. 우리는 서로서로 얼싸안았다. 정철이의 손아귀는 무척 역세였다.

《런심아, 우리 서로 친하자.》

정철은 움켜쥔 주먹을 내밀었다. 나도 《응.》 하며 주먹을 내밀었다. 그 애는 주먹을 폈다. 손바닥 위에는 빨간 오각별이 놓여있었다.

《야 오각별!》

나는 손뼉을 쳤다. 별은 달빛을 받아 더 빛났다. 나는 서둘러 치마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자, 받아.》

우리는 서로서로 오각별과 봉어칼을 바꾸어가졌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까지 빙빙 돌았다. 그런 우리를 어머니는 한품에 껴안아주었다. 그 품속에서 우리는 어머니를 영원히 기쁘게만 해드리자고 약속하였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되리라 우리들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원주놈들은 악착하였다. 미국놈 비행기들은 매일 새까맣게 날아와서 깊은 산골인 우리 보육원 주변에다 마구 폭탄을 퍼부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근심을 놓을새 없었다. 어디선가 커다란 폭탄 깽지를 가져다 앞마당에 걸어놓고 귀를 강구고있다가 비행기소리가 먼데서 약하게 들려오기만해도 다급히 종을 치곤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꼬마들을 데리고 방공호로 뛰어들어가곤하였다. 미국놈들의 폭격이 심해지자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 숨어있던 반동놈들이 머리를 쳐들었다. 어

느날 놈들은 갑자기 우리 보육원에 달려들었다. 놈들을 발견하고 지름길을 타고 와서 알리는 원두막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찌렁찌렁한 종소리가 울리자 우리는 모두 방공호로 뛰어들어갔다. 까치떼가 날아오르는 백양나무숲이 와솔렁거렸다. 놈들은 벌써 우리 보육원을 빙 둘러쌌다. 어머니는 술렁대는 아이들을 방공호에서 움쭉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굴앞에다 잎나무단들을 수북히 쌓아놓았다. 굴안쪽에서 겁에 질린 애기들과 낮은반 애들이 울어댔다. 나와 정철은 보육원 어머니들을 도와 그 애들을 달래느라고 무진애를 썼다. 그래도 애들은 계속 울어댔다. 한 아이가 울면 그 결의 애가 따라 울군해서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와 정철은 놈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들가봐 손에 땀을 쥐었다. 잎나무단새로 내다보니 벌써 놈들은 우리 보육원마당으로 들어오고있었다. 순간 나는 종열에 서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표정은 침착하고 눈빛은 엄엄했다. 어머니는 망치를 꼭 쥐고서 종을 치기 시작했다. 땡-땡- 요란한 종소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어머니-)

무엇때문에 어머니가 그리도 힘껏 종을 치는가를 깨달은 나는 어머니를 목메여 불렀다. 정철이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뒤에서 느껴졌다.

《이년아, 종을 그만 치지 못하겠어?》

종소리를 듣고 인민자위대아저씨들이 달려올가봐 겁이 났던지 메돼지같은 놈이 썩 소리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 종을 쳤다. 그러자 그놈은 어머니를 구두발로 찼다. 어머니는 비칠했다. 그러나 망치만은 놓지 않았다.

《네년이었구나. 빨갱이종자들은 다 어데 숨겼어?》

메돼지같은놈은 채찍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갈기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주먹을 부르친 정철은 《내게 총만 있으면 네놈들을 그저...》 하며 이를 갈았다.

《흥,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고 네놈들한테 털끝 한오리 잘못되게 하겠냐, 그 애들은 벌써 마을에 가달았다. 그래 어쩔 셈이냐. 이리같은놈들아, 거긴 무서워서 못가겠지.》

나는 어머니가 것처럼 서리발같은 표정을 지을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본적 없다. 두눈에서 불을 펴며 날리며 대답하는 어머니의 말에 악이 치발

친놈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따귀를 갈겼다. 어머니는 그 이즈러진 상통에 침을 뱉으며 망치로 세차게 종을 치기 시작했다.

《에잇 지독한 빨갱이년.》

메돼지같은놈은 배허벅에 찬 권총을 뽑아들더니 어머니를 향해 쏘고 또 쏘았다.

나는 악소리를 질렀다. 정철이의 손바닥이 날째 내 입을 막지 않았더라면 비명소리는 놈들의 귀에까지 들렸을것이다. 나를 꼭 부둥켜안고있는 정철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삼키며 종소리는 그냥 울리고 있었다.

땡 - 땡 -

어머니가 울린 그 종소리의 여운은 그때도 지금도 내 귀가에서 그대로 울리고있다.

《야, 집과 창고, 방공호들을 몽땅 뒤져라. 빨갱이 종자는 모조리 죽이구 쌀과 고기는 깡그리 털어내구 아무것두 남지 않게 싹 불을 질러라.》

하지만 그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보다 더 높이 울린것은 따발총소리였다. 급보를 받고 달려온 인민자위대아저씨들이 놈들을 포위하고 몽땅 쳐엎애기 시작한것이다.

나는 정철이에게 부축되어 방공호에서 나왔다.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사람들이 빙 둘러선 어머니한테로 갔다. 어머니가 입고있는 하얀 치마저고리는 피로 붉게 물들어있었다.

《어머니, 눈을 떠요. 내 다시는 어머니를 찾아 안갈게 눈을 떠요.》

나는 몸부림치며 어머니를 막 잡아흔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 눈을 떴다.

《련심아,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아, 그것은 집에서 살던 그때 장난에 취한 나를 저턱상머리에 불러들이던 다정한 그 목소리였다. 나는 어머니의 뺨에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비볐다.

《보육원에 와서 내가 널 덜 고와했지?》

어머니의 뜨거운 입김이 내 불이며 턱을 간지럽히었다.

《안예요. 어머니, 인젠 다 알아요. 난 다 알아요. 어머니가 우리모두의 어머니라는걸. 어머님 애먹인절 육해줘요. 육을 해줘요.》

나는 어머니의 목을 그러안은채 발을 동동 구르며 부르짖었다.

《고맙다. 련심아, 정말 그렇단다. 내가 너의 어머니로 될수 있는것은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셨기때문이란다. 너도 크면 알게 될게다. 조국이 없던 그때 너의 언니와 오빠는 굶겨죽이고 병들어 죽였단다. 하지만 해방된 그날에 태어난 너를 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아무 걱정없이 키웠단다. 너에게 어머니가 없어도, 여기 모인 모든 애들한테 이 어머니가 없어도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한품에 안아주고계시기에... 련심아, 나는 마음 좋고 간다...》

어머니는 내 손을 천체 아무 시름도 걱정도 없는 듯 평온한 기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것처럼 평온한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아마 그래서 나에게서는 어머니가 살아있는것 같이 느껴졌던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들딸 가진 어머니가 된 지금에 와서야 나는 이해한다. 어찌하여 어머니가 것처럼 평온하게 눈을 감을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마당에 줄지어 서있었다. 그앞의 책상우에는 백포들 덮은 어머니의 관이 놓여있었다. 그 하얀 관앞에는 내가 놓은 오각별이, 정철이가 놓은 봉어칼이 그리고 우리 보육원 모든 아이들이 한줄씩 꺾어다놓은 빨간 단풍나무가지가 강렬한 빛으로 불타고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슬피 울었다. 정철이가 누구보다 슬피 울었다. 흐느끼는 내 손을 억세게 잡아쥐고 정철은 눈물에 목이 메가지고 띠엄띠엄 속삭였다.

《련심아, 내 다시는... 널 때리지 않을게... 인제 부럽 내 너의... 오빠가 되어줄게...》

가없이 푸른 하늘에서 수리개가 깃을 치고있었다. 만물을 무르익히는 초가을의 찢찢한 해별이 우리모두의 등어깨를 따뜻이 어루만져주고있었다. 이렇게 나의 유년시절도 끝나가고있었다.

# 방직은 곧 예술입니다

륙 주 국

(《방직은 곧 예술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께서 하신 교시이다.)

— 함흥모방직 공장에서 —

송이송이 물들여진 양털  
오색령롱한 구름속을 누비며  
아름다운 방직공처녀들 춤추는듯

아, 당의 따사로운 햇빛과  
인민의 행복한 웃음과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처녀들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짜고있어라

함흥모방직공장  
너는 사회주의 장편서사시  
그대의 작가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  
그이는 비범한 로동계급의 시인이시다  
중국작가대표단 단장

## 날으라 천리마여

류 진

꿈속에서 처럼  
나는 문득 그날의 비행기, 땅크, 포성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는다  
머리를 들어 포연서린 전화의 자취 더듬으니  
공장의 건물이 거연히 나의 눈앞에 나타난다

오! 전우여 그리운 사람들이여  
어느덧 30년이 흘렀구나  
그날의 울부짖던 포성은 사라지고  
나는 오늘에 서있노라

웅장한 기계공장에서 울리는  
무쇠기계들의 고르로운 동음소리  
천만의 기관차들이 내달리는 소리  
승리는 언제나 위대한 조선인민의것

천리마여 너의 장엄한 발구름은  
이렇게 나에게 말하누나  
천리마 나는 너의 모습을 조선에서 보았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조선에서 들었다!

그것을 세기를 헤가르며 날으는 발구름  
나는 본다 너의 모습을  
나는 듣는다 너의 장엄한 발구름소리를  
전우여 그리운 사람들이여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

천리마여  
너는 예속의 울가미를 벗어던졌다  
그렇다, 무겁고 고난에 찬 어제날을 박차고  
너는 이렇듯 기세드높이 달려가고있구나

너는 전투의 불길속을 헤쳐왔기에  
이렇듯 힘차게 줄기차게 달리는것 아니냐  
너는 백두산의 눈보라 헤치며 달려왔기에  
이렇듯 줄기차게 쉬임없이 달리는것 아니냐

천지를 뒤흔드는 천리마여  
너의 수없이 남긴 발자취마다  
붉은 꽃 송이송이 피어

풍만한 열매 주렁주렁 맺혔구나

얼마나 용감한 전사이냐  
얼마나 부지런한 인민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냐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이냐  
푸른 빛 넘치는 산과 들을  
전우여 보느냐 오늘의 현실을

그 꽃송이와 열매들마다에서  
나는 환희의 눈물 흘린다  
노래소리마다에서  
나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는 불같은 천선의 뜨거움을 마음껏 느낀다  
전야에서 나는 푸르른 소나무를 보았다  
푸른 하늘에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의 해불은 나의  
눈앞을 밝힌다

친애하는 전우들이여 이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천리마여 《80년대속도》로 날으고 날으라  
너의 걸음걸음 승리의 자욱을 남기며  
휘황찬란한 미래에도 달리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영원하고 공고한 천선을 위하여  
지난날과 같이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가려나

중국작가대표단 단원

## 그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맹 위 재

그대 평양에서 무엇을 봤느냐  
그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  
아름다움과 함께  
조선인민의 역센 발걸음을 보았노라고

가방들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울긋불긋 옷단장한 너인들  
배움의 길 달려가는 궤마학생들과  
지혜의 가방을 손에 든 대학생들  
달리는 천리군마를 탄듯한 인민군대장병들

그들의 발걸음 씩씩하여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사람마다 힘찬 발걸음 내디디며  
처역! 처역! 처역!

개선문을 지나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며  
불같은 마음 지닌 사람들이

시간을 재촉하며 나아가누나  
한결같은 그 걸음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거니  
전투의 정신없이 어찌 전사의 발걸음 내디딜수  
있으랴  
이 발걸음에서 나는 하나의 민족을 본다  
이 발걸음에서 나는 하나의 조선을 본다

오 만일 평양의 이 발걸음 바라본다면  
그대 알수 있으리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만일 그 발걸음 유심히 바라본다면  
그대 알수 있으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리라는것을

그대 평양에서 무엇을 봤느냐  
그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  
리상과 신념,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조선인민의 장엄한 발걸음을 보았노라고

중국작가대표단 단원

## 락원의 수도 평양 외 1편

한 창 희

금수산의 아침해빛이  
부채살처럼 퍼지니  
네 거리에 무지개 걸리고  
울긋불긋 꽃노을 피어나네

금강의 선녀가 내렸는가  
녀성들의 밝은 얼굴  
출근길을 빛내이며  
사랑의 해빛에 웃음짓고

룡남산마루에서 불어오는  
은혜로운 훈풍이  
천만가락 해살을 엮어  
하늘땅을 수놓아가나니

아 볼수록 정다와라  
이 가슴에 넘치는 탄복의 마음  
자주의 터전에서 번영하는  
의원의 수도 평양이여!

## 밤, 강변에 서서

별이 총총한 거리를 지나  
유서깊은 강변으로 달려가니

낮과 밤 따로 없는 수면에  
해불이 활활 타오르네

백두의 장군별이 내렸는가  
대동강에 곱게 비낀 꽃노을

불밝은 창문들에 웃음보내며  
내 가슴의 금신을 통겨주네

중국작가대표단 단원



# 형제의 나라 중국에서

리 정 술

조선작가대표단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1984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형제의 나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요방동지가 조선에 방문한 역사적인 때였다.

이 기간 우리들은 중국작가협회 일군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중국 각지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난 기간 중국을 방문하시어 다녀오신 역사적인

로정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들은 많은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종천선은 오래고도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지고있으며 조종관계의 년대기는 수많은 감동적인 사실들과 미담들로 가득차있습니다.》**

우리는 방문기간 조종천선의 년대기우에 아로새겨진 이러한 감동적인 사실들과 미담들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가운데서 몇가지 사실들을 아래에 소개하려고 한다.

## 1 첫인사

1984년 4월 24일 우리들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반기여선듯 하늘도 맑게 개이고 날씨도 류달리 따스하였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오고가던 수많은 외국사람들이 우리의 앞가슴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휘장을 보고 **《조선—김일성》**, **《조선—김일성》**, **《포레아—김일성》**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미소를 보내었다.

우리를 만난 일본 일중우호협회理事는 **《나는 김일성** 주석을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영상도 일본인민들이 텔레비존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이 정치를 하시는 공화국북반부는 참말로 백성을 위한 사회입니다. 저는 남조선에는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첫걸음부터 우리들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는 영예와 행복감으로 하여 세차게 높뛰었다.

우리와 만난 중국 문화부 려지선부부장은 조선작가동지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호요방동지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초청에 의하여 5월초에 곧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미 보도하였습니다.》**

호요방동지의 조선방문은 중조친선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조선작가동지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난 기간 중국을 방문하시어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참관하게 될것입니다.》**라고 자랑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들을 만난 중국작가협회 일군들과 작가들 그리고 중국인민들은 마치 한피줄을 이은 친혈육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맞이해주었다.

우리는 이국땅이 아니라 제집에 온듯한 생각이 들었다.

## 2 력사의 자욱을 따라

우리 작가대표단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고궁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고궁은 명나라와 청나라때의 궁정사적과 고대문화예술이 집대성되어있는 박물관이다.

고궁은 지금으로부터 5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동서의 길이가 750메터이고 남북의 길이는 960메터이다.

고궁의 성벽의 둘레는 3,420메터로서 높이는 근 10메터에 달한다.

고궁은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고 고궁둘레에는 52메터의 넓이를 가진 큰 강이 있다.

면적은 72만평방메터이고 궁전의 실들은 9000개에 달한다.

아름다운 조각들과 그림들, 문화재보들이 그대로 간직되어있다.

해방후 중국은 고궁을 더욱 정리하고 복구하여 빛나는 유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들은 고궁을 참관하던중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래도록 서서 바라보시었다는 보화전뒤 층계앞에 머물렀다.

보화전뒤 아래단 층계중심에 새겨진 룡조각만 해도 200여톤에 달하는 통돌로 되어있다.

이 통돌을 그대로 운반하여 룡조각을 새기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렸겠는가.

우리를 안내하던 시인 한창희는 이 고궁에 있는 하나의 조각상, 하나의 문양을 위해서도 인간의 한 생이 바쳐졌다고 하면서 중국의 문화재보마다에는 근로하는 인민의 지혜의 슬기가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베이징에 체류하는 기간 고궁을 비롯하여 기념관과 박물관, 문화유적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중국작가들과 두 나라간의 문확동향도 서로 나누었다.

4월 28일 베이징을 떠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남경으로 향하였다.

남경으로 가는 도중 우리를 안내하던 중국작가협회 진명선부주임은 조선작가동지들이 남경에 가면 금룡호텔을 참관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드시었던 호텔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류숙하시었던 호텔을 보게 된다는 크나큰 영광을 안고 남경시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먼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드셨던 금룡호텔 2803호와 2804호부터 찾았다.

방안에는 텔레비존과 전축이 놓여있었고 책상우에는 종지와 펜이 놓여있었다.

바로 이 방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꽃을 더욱 활짝 꽃피우시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사업하시었을것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호실을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남경에 사는 시인 로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호실이 지난해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드셨던 방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꾸리지 못한 이 호텔에 그이를 모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은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문하시었던 남경 약전기계공장을 찾았다.

이 공장 직맹위원장 포광영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뜻깊은 말을 하였다.

《오늘 조선작가 동지들이 찾아온 날이 4월 28일입니다. 바로 9년전인 1975년 4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 다녀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것은 우리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공장 로동자들은 이 뜻깊은 날들을 대를 이어 전해가면서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공장의 간단한 연혁을 들려주었다.

이 공장에서는 텔레비존과 라디오, 각종 통신기재들과 의료설비들을 비롯하여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생산은 해마다 4%씩 장성하고있다.

종업원수는 6,000여명이 되는데 거의 모두가 공장종업원대학에 다니고있다.

이 공장은 자체로 두가지 건설을 내밀고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모든 부문에서 더욱 자동화, 현대화될것이다.

우리들은 그의 안내를 받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먼저 보아주신 전람관 록화기앞으로 다가갔다.

록화기에서는 맑게 개인 하늘을 떠인 무연한 대지에 천만송이 붉게 핀 꽃바다가 펼쳐지고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무수한 꽃송이들이 서로 속삭이며 춤을 추었다.

포광영은 바로 이 화면이 지난해 6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아주신 화면이라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들은 록화기에 비친 화면을 보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피워주신 조중친선의 꽃바다가 저렇게 펼쳐졌다고 생각하였다.

천송이 만송이 아름다운 꽃바다  
너의 끝없는 설레임소리  
하늘땅에 넘치는 그윽한 향기  
그 어데 뿌리를 두고있느냐

너는 이 땅 이 흙이 키워준  
단순한 꽃이 아니구나  
너는 이 땅 이 물을 마시고 자란  
자연의 꽃만이 아니로구나

조중 두나라 지도자들이  
만고풍상 이겨내며  
정히 품속에 안아키워준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꽃

너는 눈내리는 날에도

너는 바람세찬 날에도  
꽃잎 사철 지지 않고 피는  
조종천선의 영원한 꽃이로다

우리들은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여러 직장들을 차례로 돌아보고 이 공장을 떠났다.

조종천선의 영원한 꽃을 안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으시였던 장강대교로 향하였다.

우리가 장강대교에 도착한 때는 한낮이 훨씬 지나서였다.

우리를 마중나온 장강대교 해설원 녀동무는 귀한 손님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하면서 감동 어린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1970년초부터 이곳에서 해설원으로 일하는데 이 기간에 나는 나의 일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해설하는 영광을 지냈기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곳에서 일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여기에 모시였던 기쁨을 길이 전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강대교의 간단한 연혁을 들려주었다.

《장강대교는 중국에서 제일 큰 강인 양자강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련결한 다리입니다. 양자강을 따라 상류로 700키로미터 올라가면 무한이 있고 하류로 300키로미터 내려가면 상해가 있습니다.

이 장강대교는 중국로동계급이 모주석의 <독립 자주>, <자력갱생>의 방침을 받들고 자기 힘, 자기 기술로 건설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960년부터 시작하여 1968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장강대교의 쌍줄기 철도로는 동시에 기차가 오고가게 되어있는데 철도길이는 6,772미터입니다. 양편에는 자동차길도 있습니다.

장강대교를 건설하기전에는 기차를 배에 실어 날랐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2~3분이면 기차가 오고갑니다.

이 다리의 통과량은 자동차는 1만대, 기차는 180열차입니다.

장강대교의 입구에는 로동자, 농민, 병사들의 조각군상이 있습니다.》

해설원은 뒤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오르셨던 교각으로 우리들을 안내하였다.

교각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일방무제 그 끝이 없었다.

마치 장강대교는 남북으로 나래를 폭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큰 새와도 같았다.

해설원은 비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들은 력사적인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들은 남경시에 머물러있는기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과의 회담장소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보았고 남경작가, 분회작가들과 좌담회도 가지었다.

남경시를 떠난 우리들은 4월 30일 중국의 아름다운 도시 항주에 도착하였다.

### 3 서호인민공사 쌍봉차잎생산대대를 찾아서

5월 2일, 우리들은 크나큰 흥분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년전 6월 6일에 몸소 다녀가신 서호인민공사 쌍봉차잎생산대대를 찾아떠났다.

우리들을 반기여 선듯 맑게 개인 하늘엔 꽃구름이 피어있었고 길가에는 차잎따는 처녀들의 청맑은 노래소리가 구성지게 흘러넘치고있었다.

차창밖으로 무연한 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로 1년전 이 길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시였을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곱이 뜨거워났다.

우리 나라도 아닌 이곳땅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참관로정을 밝게 되니 어찌 전사들의 심정이 감회깊지 않으랴.

우리를 안내하던 중국작가협회 진명선부주임도 우리의 심중을 헤아린듯 《조선작가대표단은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길로 가고있습니다. 이제 가서 만나게 될 생산대 대장동무도 바로 1년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동무입니다.》라고 말하며 뜻깊은 미소를 보내었다.

우리들이 중국동지들과 조종천선의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이에 차는 어느덧 쌍봉차잎생산대대 사무실앞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마중나온 이곳 생산대 대장 범신방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자기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그는 1년전 바로 6월 6일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자신이 직접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무엇인가 소중한것을 꺼내는것이였다.

우리들의 시선은 일시에 그곳으로 쏠렸다. 범신방이 소중하게 손에 받쳐든것은 한장의 사진이였다.

우리들은 일시에 탄성을 올렸다. 그것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범신방이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우리는 번갈아 사진을 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뜨거움에 목이 메었다.

제나라도 아닌 이역땅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뵈옵게 되는 그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생산대 대장 범신방은 《이 사진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생산대대에 오시였을 때 기념으로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그때 정문앞까지 들어서서 북을 치며 춤을 추는 환영군중을 보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가 왔다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생산대대를 찾아주시었기에 우리들은 더 큰 고무를 받고있습니다.>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생산대의 연혁을 말씀올렸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것이였다.

《이교장은 서호봉과 남고봉 사이에 있다고 하여 쌍봉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중국에서 유명한 룡정차생산을 위주로 하고 그외 벼, 립업, 목축업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농경지는 300헥타르인데 차잎밭은 30헥타르입니다. 룡정차는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합니다. 룡정차생산은 1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룡정차는 색깔과 모양이 매우 아름답고 맛이 향기롭습니다. 룡정차는 음료수로 리용되고 새우채로도 리용됩니다.》

중국해방초기에는 무당 285키로그램밖에 생산못하였는데 오늘은 1,396키로그램을 생산합니다. 해방초기에는 매호 년간수입이 120원이였다면 오늘은 2,623원에 달하며 유치원, 탁아소도 개인이 돈을 안내고 아이들을 맡깁니다.》

범신방은 《이제 조선동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생산대대에 오시였을 때 몸소 걸으신 로정을 따라 돌아보게 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아 먼저 룡정차잎 가공공장을 돌아보았다.

가공공장에는 큰 전기가마들이 런던러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차잎을 넣어 말리우고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을 반겨 눈인사를 하며 부지런히 일을 다그치고있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범신방은 가마의 온도가 200도라고 하면서 날씨가 무덥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손으로 말리우고 날씨가 무더울 때에는 기계로 가공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차잎따는 농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차밭으로 나갔다.

무연한 더기에는 허리를 넘을가말가 하는 차잎나무들이 탐스럽게 서있었다.

대장 범신방은 평퍼짐한 언덕에 류달리 큰 차잎나무들이 서있는곳으로 우리를 데리고갔다.

《바로 여기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념사진을 찍은곳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흥분을 안고 차잎나무앞으로 갔다. 1년전 그날처럼 차잎나무는 푸르싱싱한 잎새들을 흔들며 바람에 설레이고있었다. 순간 나의 머리에는 번개같은 시구절이 스쳐지나갔다.

봄바람에 설레는 차잎나무야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네 지녔구나

너의 잎새 그리도 푸르싱싱함은  
그이의 정기를 받아서이나

너의 줄기 그리도 무성함은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 안아서이나

너를 보며 친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구름타고 평양하늘가로 달리는구나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이 어린 차잎나무를 손으로 쓰다듬고 또 쓰다듬다가 기념으로 차잎나무잎새를 따서 수첩

갈피에 정히 끼워 넣었다.

우리들은 계속하여 친애하는 그이께서 다녀가신 이곳 유치원을 찾았다.

우리를 마중하려고 《환영》, 《환영》하면서 길가에 달려나온 귀염둥이아이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유치원교양실로 이끌었다.

교양실에 들어서자 우리는 또한번 감격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면벽 한복판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행간부들과 함께 아이들의 춤을 보아주시는 사진이 크게 모셔져있기때문이다.

오래도록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며 생산대 대장은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곳 유치원에 들렸을 때 아이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의 정경을 수록한것입니다. 이 애들이 그날에 추었던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느덧 풍금소리에 맞추어 아이들의 춤이 시작되였다. 아이들은 끝없는 행복에 넘쳐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우리는 다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들리셨던 생산대 농민들의 집을 찾아갔다.

2층으로 된 살림집에는 87호, 89호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생산대 대장은 《바로 이 집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찾아주시었던 살림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친절히 안내하였다.

1층과 2층으로 된 살림집은 그날에 반아안은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정중히 꾸려져있었다.

우리들은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마을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아보신 로정을 따라 마을을 돌아보고 귀로에 올랐다.

우리와 헤어지며 이곳 생산대 대장 범신방은 못내 아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표단동지들이 조선에 돌아가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생산대대를 다녀가신 후 그이의 방문에서 고무를 받은 우리 농민들이 지난해 차생산을 계획보다 훨씬 초과 생산하였다는 말을 꼭 보고드리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손을 오래도록 흔들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이곳을 떠났다.

쌍봉차일생산대대의 방문은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전사로 살며 일하는 영예와 행복을 우리는 가슴 부풀도록 받아안았다.

우리는 항주시에 체류하는 기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다녀가신 서호를 돌아보았으며 많은 문화 유적들과 명승지들, 박물관과 전람관을 돌아보고 상해로 떠났다.

## 4 위대한 글밭앞에서

항주에서 2시간 남짓하게 기차를 타면 상해에 닿는다.

5월 3일, 상해에 도착한 우리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기념관을 찾았다.

1921년 7월 1일 모택동동지의 참가하에 국제공산당과견원 2명과 12명의 대표들이 모여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기간에 제국주의정략배들에게 발각되어 상해로부터 절강성 가흥현 남호로 옮기어 유람선우에서 회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들은 그때의 력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회의장안을 돌아보다가 이곳 관장이 가져온 감상록을 보게 되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관장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곳 기념관에 남기신 친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안고 친필을 읽고 또 읽었다.

《감상록》에 기록된 친필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의 창립은 비단 중국인민들에게 빛나는 길을 열어놓았을뿐더러 동방인민들의 해방운동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58. 12. 5

**김일성》**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는 중국공산당에 영광과 승리가 있으라 위대한 중국공산당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정일**

1983. 6. 8》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쓰신 친필을 읽으며 설레는 가슴을 진정 못하고있는 우리들에게 관장은 미소를 보내며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남기신 친필들은 우리 기념관의 매우 귀중한 재보입니다.

저는 이 친필들을 외국의 귀한 손님들이 올 때마다 꺼내보이며 자랑하곤합니다.

우리 중국작가들이 이 친필내용을 가지고 시, 수필 등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관장의 말을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남기신 친필을 수첩에 또 박또박 적어나갔다.

한자 두자 정성껏 써나가는 우리의 가슴엔 세찬 격동의 파도가 일었다. 이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낮익은 친필을 대하는 우리 가슴 어찌 설레이지 않으랴.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친필을 품에 안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영원히 위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전사의 자세를 사진에 담아 찍었다.

기념관을 돌아본 우리는 상해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서교려관을 찾았다.

이 려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친히 드시였던 력사의 집이다.

참대밭이 설레고 설송들이 무성한 서교려관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우리들은 려관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숙소와 휴게실들을 상세히 돌아보았다.

우리들은 상해시에 머물러있는 기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아보신 황포강을 유람하였으며

컴퓨터공장과 조양새마을 그리고 소년궁전을 참관하면서 번영하는 사회주의 중국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 5 문학이야기

작가들이 마주앉으면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간다.

그것은 혁명적인 필봉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작가들의 사명감과 관련된다.

우리는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연회와 좌담회들 그리고 서로 상봉할 때마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와 만난 중국의 많은 작가들은 일치하게 조선의 문학예술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문학교류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하였다.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풍목은 《조선의 문학은 위대한 당의 령도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학에서의 당의 령도는 언제나 견지해야 할 확고한 방침입니다.》라고 흥분에 넘쳐 말하면서 앞으로 창작과 번역,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령계를 취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상해시 소설가 애명지는 문학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백두산기슭》을 읽어보았다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자기 수령에 대한 혁명력사를 소설로 옮기는데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후대들을 혁명의식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항주에 사는 녀류소설가 원민은 우리들이 준 문학총서를 밤새워 읽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를 문학총서로 집대성하고있는 조선작가들의 경험을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녀류소설가 원민—그는 매우 인상적인 신인소설가이다. 그의 나이는 스물아홉살인데 아직 처녀이다. 그는 오랜 기간을 항주 비단공장노동자로 일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중편소설 2편을 창작하였다.

그는 지금 항주 《동해》편집부에서 일하고있다.

우리가 항주시에 머물러있는 기간 그는 늘 우리를 안내하였다.

우리는 가는곳마다에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상해시에 사는 시인 소대는 《서사시 <백두산>은 중국에 번역되어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이 시를 많이 외우고있다고 말하였다.

상해시 작가 임용용은 우리를 안내하면서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꽃분이의 노래를 중국의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

나 다 잘 부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불렀다.

그가 말한것처럼 우리가 상해시 소년궁전을 참관하였을 때 수백명의 아이들이 이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다.

소설과 시문학뿐아니라 아동문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실체험과 창작조건문제, 신인지도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의 이름있는 소설가 로은보는 우리 작가들의 행복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한후 《나는 방금 북유럽 3개 나라를 방문하고 왔는데 조선에서처럼 국가에서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조선의 작가들이 참말로 부럽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기간 중국문학의 현실태에 대하여서도 많이 료해하였다.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풍목은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려주었다.

중국의 혁명문학 맑스주의 새문학은 1919년 5.4 운동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19년부터 1949년까지를 1단계로 보며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를 2단계로 본다.

중국혁명문학의 2개 단계는 4대에 걸쳐 내려오며 진행되었다.

1대는 1919년부터 1937년까지로 보는데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로신, 모순, 파금, 애정이다.

2대는 1937년부터 1949년까지인데 이 시기 중국혁명문학은 두개의 전쟁을 겪었다.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위외, 풍목, 원인, 김근이다,

3대는 1949년이후 새로 육성된 작가들로 구성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작가들은 왕복, 동문에이다.

4대는 1976년 이후부터 이다.

중국작가협회는 35년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창립초기에는 900여명의 회원수를 가지고있었는데 오늘은 2,200여명으로 장성하였다. 작가협회는 근 30여개의 분회를 가지고있다.

작가협회는 사회단체로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다.

작가협회는 사회주의문예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또한 창작과 문예평론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최근 3~4년사이에 중국문학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기간에 해마다 장편소설은 80~100편씩

나왔으며 중편소설은 600~800편, 단편소설은 8,000편이 나왔다.

작가들은 중국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중국에서는 많은 문학상을 제정하여 작가들의 창작을 고무추동하고있다.

장편소설은 3년에 한번씩 《모순문학상》을 주는데 위외가 쓴 장편소설 《동방》이 상을 받았다.

단편소설은 해마다 한번씩 상을 주는데 20편의 작품들이 상을 받았다.

래년부터는 시분야에서도 《파말약상》을 제정하여 주려고 한다고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풍목은 말하였다.

작가협회는 6가지 기관지를 가지고있다.

《문예보》, 《인민문학》, 《민족문학》, 《시간》, 《소설신재》, 《신관찰》이다.

그외 각지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이 수많이 있다.

중국작가협회에서는 작가들의 현실체험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전문작가 (현역작가를 의미함) 가 400여명 되는데 그들은 창작계획에 따라 장기 혹은 단기로 현실체험을 진행한다.

많은 작가들이 공장의 직장장, 혹은 농촌현당사업을 하고있다.

황동용녀류작가는 공장의 부지배인이다.

중국작가협회는 또한 작가들의 창작조건과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있다.

그전에는 창작실을 경치좋은곳에 몇개 세웠었는데 《4인무리》에 의하여 다 없어졌다. 지금은 작가들을 경치좋은곳에 가서 글을 쓰게 조직한다.

작가협회에서는 청년작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문학강습소를 운영하는데 금년에 8기생을 맞이하였다.

중국작가협회는 국제문화교류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는데 한해에 보통 20여개의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있다. 외국의 작가들이 오는것은 한해에 100여개 나라이다.

풍목은 중국과 조선은 이웃인데 앞으로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자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베이징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참관의 길에서도 자주 문학좌담회를 가지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많이 논의하였다.

## 6 조중친선의 꽃은 영원하리

꽃은 산과 들에만 피는것이 아니다.

모진 눈서리와 찬비를 이겨내며 사철 피는 꽃이었다. 그것은 조중 두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피는 친선의 꽃이다.

이 꽃은 영원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중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과 함께 전통적으로 마련하시고 활짝 피워준 꽃이기에 만고풍상에도 시들줄 모른다.

우리와 만난 중국의 작가들과 인민들은 마치 오래 떨어졌던 혈육을 만난것처럼 반가와하였다.

어느 공장 그 어데를 가든지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우리 나라에 나와 한전호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치하게 조중친선은 각별한것이라고 하면서 피로써 맺어진 인간의 감정을 총칼로 가를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베이징에 사는 소설가 위외는 우리와의 좌담회석상에서 자기는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한 작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사에 다시 없었던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전쟁이었습니다. 평양에 성한것이 있었다면 단 한채 그것도 기총탄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벽이 반나마 무너진 4층짜리집 하나였습니다.

한 녀성군인이 그 4층집우에서 신호기발을 들고 호각을 불며 무엇인가 지휘하고있었습니다. 미제공중비적들의 폭탄이 작렬할 때에도 그 녀성군인은 자기 초소를 뜨지 않았습시다.

조선사람들은 그때 땅굴에서 살았지만 전투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미국놈들이 조선의 어머니와 아이들을 생매장하고 거리와 마을을 불태웠지만 결국 이긴것은 조선인민이었습니다.

나는 이 력사적사실을 장편소설 <동방>에 써넣었습니다. 조선인민이 전쟁에서 승리한후 우리가 철수할 때는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조중친선은 각별한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한전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지난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참으로 두 나라 인민은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한길을 걸어온 형제이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상해시 조양새마을을 참관하였을 때 더욱 깊어졌다.

우리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늙은이들이 노래편습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반백이 된 진육정녀인이 우리들의 손을 잡고 몹시 반가와하면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는것이였다.

그 사진에는 양태머리 처녀시절의 진육정녀성이 총을 잡고 보초를 서는 모습이 새겨져있었다.

그는 우리 나라 조국해방전쟁때 문예단으로 나와 공작했던 지난날을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진을 찍은곳이 사리원시입니다.

그때 우리가 든 집에서는 신랑신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머니가 저에게 비단치마저고리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그 옷을 입고 <노들강변> 노래를 부르며 조선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조선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날처럼 <노들강변>춤을 추겠습니다.》

진육정녀성은 《노들강변》노래를 조선말로 부르며 춤을 추었다.

우리들도 박수를 치며 《노들강변》노래를 불렀다.

이날의 감격은 비할바없이 컸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곳 로인들이 준비한 씨클을 보고 정다운 눈길을 받으며 조양새마을을 떠났다.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꽃은 중국의 귀여운 어린이들의 가슴속에서도 곱게 피어나고있었다.

우리가 상해시의 한 소년궁전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정문앞에서부터 어린 꽃봉오리들이 랑옆에 줄지어 늘어서서 수건춤을 추며 환영하고있었다.

우리들이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달려와 저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흔들며 소년궁전의 여러 방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어린 화가들의 방에 들렀을 때 한아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우리에게 주면서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어린 소년이 주는 그림을 받고 꼭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이 한장의 그림을 통해서도 두나라 산과 강을 넘어 오고가는 뜨거운 친선의 정을 가슴깊이 느끼었다.

조중친선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남경의 어느 한 시인은 조중친선에 대한 시를 우리앞에서 랑송하였으며 베이징의 어느 한 일군은 우리와 함께 조선노래를 류창하게 불렀다.

특히 인상적인것은 남경시 금릉호텔 옥상에서 중국동지들과 함께 별바다가 내린 남경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즉흥시를 랑송하던 때의 일이다.

이날 저녁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시인》이 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한 소설가가 시를 랑송하면 또 다른 극작가가 시를 랑송하였고 련이어 문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정일군들도 자기의 걱정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우리를 안내하던 중국작가협회 진명선부주임도 자기가 젊었을 때는 시를 썼다고 하면서 시 한수를 읊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내려  
남경의 불바다를 펼쳤던가  
중조친선의 뜨거운 마음이 모여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바다를 펼쳤어라

우리들은 그의 시를 들으며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은 시일이 아닌 사람도 시인으로 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와 마주앉은 남경시에 사는 시인 로화도 자기의 격동적인 심정을 여러 편의 즉흥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장백산의 소나무 사철 푸르고  
압록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중조친선의 꽃  
두 나라 하늘땅에 영원히 만발하리라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중국의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과 함께 꽃피워주신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꽃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피는 이 꽃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그 어떤 힘도 이 꽃을 꺾지 못할것이다.

1984년 5월



# 평양-베이징

홍 준 성

차창마다 어렸구나

두 나라 산천풍경이

차륜마다 새겨졌구나

천리길 굽이굽이 흐르는 정이

《평양-베이징》행국제열차에 오르니

내 마음 벌써 베이징에 닿고

그대 마음 아직 평양에 있거늘

우리 서로 마주앉으면

친형제의 정이-

배우며 돕는 마음

차칸마다 꽃이 피거니

떠나가면 못다준 정

가슴속에 그냥 남아 아쉽고

떠나오면 못다 나눈 말

마음속에 그냥 있어 서운하고

천리런가 만리런가

낮익은 고향길인듯

우리 함께 어깨 곁고

피로써 지켜낸 땅

고지와 들판은 서로 오라 마중오고

우리 함께 손잡고

피땀으로 일떠세운

공장굴뚝들 반갑다 키돋움하네

평양의 하늘이 푸르면

베이징 하늘도 푸르네

환영의 노래도 함께 부르고

환송의 꽃다발도 함께 흔드네

두 나라 인민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고

희망도 미래도

하나의 념원속에 꽃피여라

아, 평양-베이징

오고가는 철길은 두줄기여도

혁명의 길은 오직 한길

출발역도 종착역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네

## 잊을수 없는 사람

윤 송 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맺어진 우정이 있고 지난날에 대한 추억이 있다.

가슴속깊이 간직된 이 우정과 추억은 평범한 나날에 이루어질수도 있고 준엄한 계급투쟁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맺어질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우라는 말도 있고 친우라는 말도 있으며 벗이라는 말도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흐르는 세월과 함께 로동생활속에서 사귀었던 여러 친우들과 벗들에 대한 적지 않은 인상들은 희미해졌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나와 인연이 맺어진 중국인민지원군 한 전사에 대한 추억은 영원히 잊을수도 없고 또 잊혀지지도 않는다.

어려울 때 벗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만 조종친선은 피로써 맺어진것으로 하여 우리에게 더욱 귀중하고 각별한것으로 되고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따금 세계지도앞에 마주설 때면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함께 형제의 나라 중국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때마다 가슴속에 차넘치는 파스한 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종친선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과정에 꽃피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굳게 다져졌습니다.》**

나에게는 《조종친선》이라고 아로새긴 금촉만년필이 있다.

몇십년동안 더 질 좋은 만년필을 수십개나 갈아쓰면서도 나는 이 만년필을 고이 간직하고있다.

볼수록 친선의 정을 느끼게 하는 이 만년필은 30년전에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전사가 우리 나라를 떠나가면서 나에게 기념으로 주고간것이다.

그때 내가 살던 문덕군의 어느 한 산촌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구분대가 자리잡고있었다.

친형제나 다름없는 지원군전사들은 아침이면 남먼저 비자루를 들고 마을길을 깨끗이 쓸었고 로인들을 만나면 담배불을 붙여주면서 깍듯이 인사하였다.

장마철에 시내물이 불어나 학교길이 막히면 지원군전사들은 우리들을 등에 업어 건넌다주곤하였다.

가을철이면 마을사람들은 지원군전사들이 좋아하는 단감자와 배, 사과를 한광주리씩 이고지고 그들을 찾아가곤하였다.

인민학교에 다니던 우리 꼬마들도 첫서리에 맞아 무르익는 향기그윽한 돌배며 다래, 개암들을 따다가 맛보라고 지원군전사들에게 안겨주곤하였다.

오는 정이 크면 가는 정은 더욱 컸고 가는 정이 뜨거우면 오는 정은 더욱 살뜰했다.

중국 사천성이 고향이라는 한 전사는 손재간이 좋아서 짜리나무로 다람쥐 재바퀴를 맵시있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다.

그의 이름은 장호걸이였는데 우리는 그저 장아저씨라고 허물없이 불렀다.

아직도 기억해 생생한것은 그의 바느질솜씨가 서툰 것이였다.

한번은 그가 군복을 빨아 기웠다.

그런데 바늘로 홀가맨것이 잘 맞지 않아 그런지 옷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몇번 뜯었다맞추었다하면서 그가 신고하는것을 본 우리 어머니는 잠간 손을 대게 되었다.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옷이 단번에 미끈해졌다.

그런 일이 있을 때로부터 지원군전사들은 자주 바느질감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장호걸은 조선말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잘 불렀다.

도라지춤도 출줄 알았다.

우리도 중국말로 **《동방홍》**을 곧잘 불렀다.

양걸춤도 추었다.

참으로 한집안식구와 같이 육친의 정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는 결코 이렇듯 기쁨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나에게도 씻을수 없는 마음속상처를 남긴 시련의 시기였다.

어느날이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이름없는 이 자그마한 산촌에도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우리 조무래기들의 머리우에도 폭탄과 소이탄이 떨어졌고 기총탄이 하늘을 누볐다.

파편에 맞은 나는 폭풍에 날려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구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안타깝게 찾는 귀익은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장호걸의 땀에 젖은 얼굴이 눈앞에 보였다.

그옆에는 중대위생지도원의 근심어린 얼굴도 보였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는 포차에 실리워 안주쪽에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후방병원으로 가고있었다.

나는 출혈이 심했던 관계로 호송도중에 자주 혼수상태에 빠지곤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내가 위급한 고비에 들어서자 장호걸은 차를 멈춰세우게 하고 자기의 피를 뽑아 나에게 수혈해주었다고 한다.

함께 타고가던 나의 어머니가 한사코 만류하자 《어머니, 우리 두 나라는 피로써 맺어진 전우의 나라이며 이 애는 제 동생이나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중에서 피형이 같은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이 죽어간다면 제가 보고만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뜨거운 피를 나의 몸에 부어주었다 한다. 스러져가던 숨결을 쫓피워 주려 나의 몸에 방울방울 흘러드는 그 고귀한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병원에 입원한후에도 나는 전선에서 부상당한 지원군전사들과 함께 침대를 나란히 하고 지성어린 치료를 받았다.

장호걸은 그 바쁜 근무의 나날에도 틈을 내어 25리길을 걸어 문병하러오곤했다.

아직도 나의 눈앞에는 조선음식을 따로 만드노라고 분주히 돌아가던 취사원 호아바이의 모습이며 재미있는 그림책을 보여주던 간호원 싱눈나의 가름한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다정한 사람들이었던가!

물에 빠진 조선의 아이들을 구원해내고 돌도없는 청춘을 바친 라성교며 부상당한 지원군전사를 자기의 몸으로 덮어 원수들의 흉탄을 막아내고 희생된 조선의 한 평범한 농민 박재근, 준엄한 그 나날들에 이어지고 맺어진 전설과도 같은 그 이야기 천이던가 만이던가!

그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던 날 장호걸은 역까지 배웅하러 나간 나의 손을 꼭 잡고 좀 서툴기는 하지만 우리 말로 《공부 잘 해라. 편지도 종종 하고... 울긴, 난 고향에 돌아 가셔도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군복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뽑아내어 나의 학생복주머니에 꽂아주었다.

나는 나의 서투른 솜씨로나마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나란히 어깨결고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모습을 정성들여 그린 크레용화를 기념으로 주었다.

...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나는 자주 우리의 신문들과 잡지들이 중국인민들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보도할 때마다 류달리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읽어 보곤한다.

1982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영화를 보면서 그곳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모습속에 장호걸의 모습도 꼭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나는 그 감동적인 화면을 보고 또 보았다. 정말 나는 그들모두의 웃는 얼굴에서 장호걸의 모습을 찾아 내었다.

...

장호걸, 그는 지금 무엇을 할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가, 아니면 푸르른 고향의 전야에서 오곡을 가꿀가... 벌써 세월이 흘러 30년 그도 펍 늙었을것이다.

그때 철부지 소년이었던 나 역시 이제는 중년기에 들어섰으니말이다.

그렇지만 금촉만년필의 그 색깔이 변함없듯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지향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영원불변할것이다.

그렇다.

조선과 중국은 어제도 함께 손잡고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고 오늘도 어깨나란히 한 전선에 서있으며 래일도 영원히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승리할것이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하고있다.

1983년에 있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우에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우리는 대를 이어 꽃피어나는 조중친선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길이 빛내어나갈것이다.

## 전선을 넘어온 글썽지

김 정 민

분대장 박영덕은 가칠봉남쪽 적후의 이름없는 골짜기 단풍나무아래에 쓰러져있었다.

바지가랭이며 어깨죽지며 옷자락이며 피자국이랑자한 군복은 찢어지고 드러난 살갗은 터지고 굵히워 그의 모습은 엉망이다. 곁에는 둥근 탄창에 총탄이 한알 남아있는 기관단총이 모로 누워있다. 추격하는 적들의 흉탄에 두다리과 옆구리, 어깨에 중상을 입은 그는 종일 기여오다가 여기서 의식을 잃은것이다.

《땅크》, 《사단포》라고 불리워온 영덕이었으나 지금은 물먹은 솜뭉치처럼 돌맹이들과 락엽이 깔린 땅우에 펄쩍하니 누워있다. 늘 불길처럼 이글거리던 눈은 불꺼진 화로인양 폭 패인 눈확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붓으로 꼭 찍어놓은듯한 눈섭과 피떡지가 앉은 모가 진 턱만이 《땅크》처럼 완강하고 결단성있는 성미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너무도 피를 많이 흘리고 기진해버린 지금에는 그 모든것이 아무런 의미도 못가지는 것이였다.

멀지 않은곳에서 산발적인 총소리가 울려왔다. 아마 인민군정찰병을 찾아해매는 적들이 쏘아대는 총소리 인 지도 모른다.

영덕은 자아보호의 본능적인 충격에 움쩍했다. 아, 아직 내가 살아있는가?!

영덕은 자신이 살아있다는것을 확인하려는듯 팔을 들어보았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않는다. 다리를 움직여보았으나 신경과 감각이 통하지 않는듯 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눈을 떠본다. 온 누리가 피로 물든듯 빨갛다. 잎사귀들이 온통 빨갛게 익은 단풍나무가 눈에 비졌던것이다. 그런데 영덕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모든것이 빨갛는가?

정찰조장동지와 《떡보》 전사는 어디에 가고 나 홀로 여기에 있을가?... 아 그렇지, 내가 적을 유인해왔었지, 지금쯤 그들은 그 언제나 엄격한 사단장동지앞에 차렷하고 서서 정찰보고를 하고있을것이다. 미구에 사단장동지의 검스름한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어릴것이다. 그는 작전지도를 들여다 보며 적의 《추기공세》를 물리칠 새 작전을 구상하고있

을거야!... 그리고 정찰조장과 《떡보》는 전령병이 넘겨주는 물통을 받아 시원하고 달콤한 물을 굴럭꿀럭 마실거야. 영덕은 심한 갈증을 느꼈다. 물! 물! 목이 타는듯 끊어지는듯 얼결에 그는 손을 목에 가져갔다. 손에 끈적끈적한 땀건것이 묻어났다. 어깨죽지에서 흘러내린 피였다.

《아, 어디 샘물이라도 없을까. 우리 집 뒤산엔 이처럼 시원한 샘물이 있는데...》 순간 무서운 갈증은 영덕이가 나서자란 광산마을 북쪽산턱에 오בות니 자리잡고있는 고향집 박우물가에서 울려오군하던 정다운 물소리를 불러주었다.

《이 물을 마시고 떠나거라! 이 물은 너에게 장수함을 줄거다. 부디 장군님과 나라를 위해 영웅되어 몸성히 돌아오너라!》

전선으로 떠날 때 따라나오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였다.

하얀 무명옷을 입은 어머니의 주름많은 얼굴이 그를 굽어본다. 어머님! 그리운 어머님! 이 아들은, 어머님의 그 마음을 명심하고 떼뻗이 살았습니다. 비록 아직 영웅은 못되었어도 위대한 장군님과 당과 조국을 위해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쳤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어머니는 마을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을 자랑할수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지금 적후의 외딴 골짜기에 조용히 누워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아, 고향집 박우물! 한바가지만 마셨으면...

《따쿵...》

아까보다 더 가까운곳에서 울려오는 적의 카빙총소리가 영덕의 상념을 형클어놓았다. 그 총소리는 스물 둘하고 이제 다섯면 한살을 더 먹게 되는 그의 길지 않은 한생의 마지막을 재촉하는상싶었다.

영덕은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였다.

아, 나의 삶과 투쟁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가?!

소슬바람이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단풍나무아지를 건드리자 말라버린 가랑잎들이 팔락이며 영덕의 피물은 옷자락에 한잎두잎 조심스레 내려앉는다.

이젠 내 운명도 저 단풍잎신세가 되게로구나! 난 임무를 다 수행했지... 이제 남은것이란 오직 하

나, 혁명전사답게 영웅적으로 죽는것이다. 자기 절개를 고이 지켜... 그러면 나의 한생은 마지막까지 깨끗할테지... 곁에는 기관단총이 자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꼬부리고 누워있었다. 총탄 한알이 남아있다. 이걸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 탄알은 원수들을 쏘고 또 쏘후 자신을 위해 남겨둔 《비상용》이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며 어디론가 멀리 갈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려고 하는듯했다. 영덕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총가까이 늘어져있던 손으로 총가목을 쥐고 당겨보았다.

기관단총은 천근납덩이처럼 무겁다. 천리행군길에서도 무겁다고 생각해본적 없는 그 총은 아무리 당겨보아도 끄떡하지 않는다. 쥐여당기면 손이 풀어지고 다시 쥐여보니 총은 더 무거워진것 같다.

영덕은 다시한번 총가목을 거머쥐고 온몸의 힘을 손에 모으며 안간힘을 써본다. 기관단총은 끌리지 않으려고 두다리를 벌디디며 땅에 달라붙는것만 같다.

영덕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렇다고 물러설수는 없다. 탄창에 남아있는 한알의 《비상용》을 써야 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던것이다.

《따따땅!》

골짜기아래쪽으로부터 이번에는 점발사격소리가 들이닥쳤다.

그 찰나 영덕은 놀라듯 《공!》 하고 배심을 주며 총을 잡아챘다. 오, 고맙다. 나의 따발총, 그때 나의... 영덕은 턱밑에서 산뜩산뜩한 총구를 감촉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격발기는 큰 신고를 하지 않고 뒤로 제낄수 있었다.

《절커덕!》

이젠 됐다. 방아쇠만 당기면 되겠지...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비장한 최후를 각오한 영덕의 마음은 그지없이 평온했다. 그래서 살아서 마지막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가 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차근차근 생각해보았다. 더는 어찌할수 없는 환경에서 혁명전사의 절개를 지키고 최후를 마쳤다는것을 당앞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뇌리에 무겁게 실려왔다. 몸 어디에 종이장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적후로 들어올 때 증명서라든가 수첩이라든가 하는것은 죄다 중대에 남겨두었던것이다. 응, 그렇지》 연필꽂다리는 있지...

정찰락도를 그리기 위해 늘 넣어가지고다니는 연필이 있었다. 종이는? 그래 그래... 바지주머니에 닿아있는 왼손끝에 꾸겨넣은 종이가 마쳤다. 그 종

이쪼박은 어제낮에 전우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요기를 할 때 밀가루빵속에서 나온 애기손바닥 만한 쪽지였다.

영덕은 그 쪽지를 반반하게 펴서 윤기가 흐르는 기관단총 총탁판우에 놓고 연필끝에 허바닥으로 침을 발랐다. 침이 나오지 않아 한참이나 허바닥을 쥐여짜느라고 애를 썼다.

영덕은 그 글쪽지의 금후 운명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은채 엄숙한 의무감에 휩싸이며 한자한자 써나갔다.

《세포위원장동지 앞.

최후의 시각에 나의 량심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원으로서, 전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당이며, 조국이며!

**김일성**장군 만세!

당원 박영덕》

영덕은 다시한번 읽어본다. 무엇인가 미진한듯 연필끝에 침을 발라서 《나의 량심은 부끄럽지 않습니다.》란 글발우에 덧그어서 글자들을 돌구어주었다.

영덕의 우뚝하게 패인 눈에 그윽한 미소가 엮은 노을처럼 피어났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말로만은 표현할수 없는 티없이 깨끗한 미소였다.

이젠 됐어! 글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밀어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될것이였다. 모든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있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노릇이 복잡할리가 없는것이였다.

영덕은 글쪽지를 접기 시작했다. 그러던 그의 흐릿한 눈길에 쪽지 뒤등에 썩여있는 씨원씨원한 반초의 글발들이 줄지어 날으는 기러기들처럼 안겨왔다. 이제낮에 빵 한덩어리로 요기를 할 때에는 그 글발들이 달게 먹는 빵맛에 묻혀 그닥 주의를 끌지 못했었다. 그저 한번 읽어보고는 허허하고 웃고말았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글씨들은 가슴을 쿵쿵 울려주었다. 늘씬늘씬 휘늘어지고 획이 외로 비길때마다 그 끝을 건듯 추켜올리며 상쾌한 감을 주는 그 글씨는 정치부중대장 리후복의것이였다.

얼굴이 너부죽하고 키는 큰축은 아니지만 풍채가 좋은 젊어보이기도 하고 나이들어보이기도 하는 정치부중대장의 부드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서글서글하고 늘 너그러우며 씨원씨원한 정치부중대장을 대원들은 존경하고 따랐다. 영덕이도 다른 대원들도 그가 큰소리를 치거나 신경을 돋구는 일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글썩지의 글발들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어 그의 귀전에 울려온다.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라. 식당에서 더운밥과 따끈한 국이 기다린다!》

정치부중대장은 늘 이렇게 룡을 하는것처럼 말하곤했다. 허나 그 말뜻을 새겨보면 스쳐보낼수 없는 것이 깃들어있었다.

영덕의 눈앞엔 문득 정치부중대장이 호주머니에 넣고다니는 붉은 천을 씌운 뚜껑에 여기저기 다스려지고 책이 바랜 자그마한 수첩이 떠올랐다.

한번은 그가 전호가에 앉아 그 수첩에 무엇인가 쓰다가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 있는것을 목격한적이 있었다. 영덕은 무심결에 그 수첩에 시선을 주었다. 전날 희생된 한 전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고향집주소, 전사한 날과 지명 등이 적혀있었던것이다.

정치부중대장은 이제 그 수첩에 나에 대해서도 써넣고 피로와할테지?

《정찰분대장 박명덕

주소 ; 평안남도 강서군 XX리 15번

적후정찰에서 돌아오지 못함.》

영덕은 의식이 몽롱해지며 눈앞에서 무수한 별들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정치부중대장의 모습이 어머니처럼 친근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차츰 확대되면서 눈앞에 다가온다. 그런데 그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여움이 섞인 목소리로 꾸짖는것이였다. 그 우렁우렁한 목청은 산울림처럼 귀전에 울려왔다.

《흥, 동문, 왜 돌아오지 못했나? 팔다리가 없었나? 눈이 없었나? 그 통방울같이 커다란 눈은 뿔다뿔에 쓰러구 엉?그래두 <땅크>야?》

《전 정말 발동이 꺼진 <땅크>가 뻘습니다. 팔다리가 굳어지구, 눈도 잘 보이지 않구...》

《체, 말 말어! 발동이 꺼졌으면 걸면 될게 아니요. 그대 발동은 왜 못걸어? 그래두 뭐?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구? 그래, 동무의 그 커다란 몸통이에 피 한방울 남지 않았나?》

《제 몸에선 피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당앞에서 해야 할 일도 다했으니... 제겐 이제 죽음을 빗내일의무만이 남아있습니다.》

《체, 다했다구?훌륭한 당원이요! 당조직이 준 분공은 <천당>에 가서 집행할텐가?》

영덕의 눈시울이 푸들하며 들리였다.

《무슨 말씀을... 전 분공을 어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정치부중대장동진 한 당원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있구만요!》

《뭐? 난 지나치게 알고있지. 알아도 잘 알고있단 말이요. 동문 이런걸 생각해보았나? 장군님께서 우리 전투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늘 전사들에게 더운밥과 더운 국을 먹이라고 하시였소! 후날에 장군님께서 우리 중대를 찾으시거나 동무네 고향마을을 현지지도하시다가 동무가 돌아오지 못한것을 아시고 가슴아파하실 그 정상을 생각해보았나? 동문 당과 혁명을 잊어버린 비겁분자, 도피분자, 개인주의자요! 당적분공을 잊어먹다니?! 난 동무가 그런 당원인줄은 몰랐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분공을 도피하는 그런 당원은 우리 당안에 있을 자리가 없소!》

영덕은 와뜰 놀라며 몸서리치듯 몸을 떨었다. 환영은 사라지고 하나의 기억이 또렷이 살아났다.

《박영덕동무는 적후정찰에서 돌아와 정찰경험을 신입병사들에게 소개할것!》

적후로 떠나기 전날밤, 당원협의회가 열렸는데 모임에서는 영덕에게 이런 분공이 차려졌었다.

분공을 다 주고나서 정치부중대장 리후복은 능청스러워보이는 눈초리로 영덕을 쳐다보며 물었다.

《박명덕동무 어렵지 않겠소?》

《뭐, 어려울게 있겠습니까?》

《대답이 씨원해서 좋군... 하지만 식은 죽먹기로 대하진 마오!》

정치부중대장은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무들에게도 묻고 모임을 계속지었다.

《좋습니다. 모두 의견이 없는걸 보니 분공이 훌륭한것 같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집행하고 세포에 보고하시오!》

영덕은 그때 그 분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운명과 어떤 련관이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당원들이 당생활에서 흔히 받아 집행하게 되는 그런 분공으로 여기며 훌륭히 집행하리라 다짐했던것이다. 그런데...

좌-슌을 누비며 밀려가는 신비스러운 바람결이 단풍나무아지를 마구 훑어서는 가랑이를 훑날려버렸다. 그러자 앙상한 단풍나무뒤로 푸르른 잎을 호담스레 펼치고있는 소나무가 군청색하늘을 배경으로 청신한 자태를 드러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영덕의 눈에 정기가 살아나고, 온몸으로는 생신한 기맥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 죽

다니 분공두 수행못하구… 그래두 깨끗하고 땀뻑하게 살았다구?…

영덕은 정신없이 손으로 땅을 허비며 발을 자꾸만 버둥거린다. 《아니, 아니다. 난 마음편히 죽을 자격이 없어 돌아가야 한다.》

줄줄줄… 줄줄줄… 어디선가 물흐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정다운 물소리는 미구에 온 누리를 꽉 채우는것 같다. 아, 물 내가 왜 저 물소리를 못들었을까? 고향의 박우물… 그래 고향의 샘물이다. 물을 마시자.

영덕의 가슴속에서 고요히 잤아들던 삶의 샘물은 다시금 거세차게 소용돌이친다. 남의것처럼 정녕 까딱할수 없던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것이다. 아 어디서 힘이 생기는걸까? 그는 불현듯 초기를 느꼈다.

《더운밥과 따끈한 국이 기다린다!》

×

눈부신 빛줄기가 은폐부안으로 파사로이 흘러들었다.

정치부중대장 리후복은 구석에 놓인 통나무책상 앞에 앉아 기관단총탄창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거기

에는 총탄이 한알 들어있었다. 책상우에는 앞뒤에 글이 씌여있는 구겨진 종이쪽지가 놓여있었다. 한쪽에 쓴 글은 자기가 쓴것이고 다른쪽에 쓴것은 영덕의것이였다.

후복은 탄창에서 총알을 뽑아내서는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그 어떤 신기한 보물이거나 한것처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기웃거리고있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엔 기쁨이 한가득 넘쳐나고있었다.

《동문 당에 모든걸 맡겼지. 그래서 당은 동무가 곁에 있건 적후에 있건 마음을 쓰구 보살펴주는거야. 흥 죽겠다구? 당적분공도 수행하지 않구? 당조직은 동무가 어떤 당원이란걸 알고있기에 그런 분공을 준거야, 알겠나? 그자체는 크게 아닐수 있지… 중요한건 동무가 살아 돌아온거야! 하지만 비판은 받아야 하겠어. 눈물이 쏙 나올 때까지… 퇴원만해오라. 단단히 비판받을 준비를 하구… <땅크>? 땅크도 집중포화를 퍼부으면 녹아날걸… 당적분공도 수행하지 않구 죽을 생각을 하다니?》

나이를 대중할수 없는 선량해보이는 리후복의 쌍꺼풀진 눈에 물기가 펴 돌았다.

《이 친구, 빨리 퇴원해와야 할텐데…》

## 벽시

# 돌 격 로

김 시 권

전사여 그대 물 흐르는 흙을

가슴으로 떠밀며 나가는 돌격로

그 길이는 짧아도

잊지 말라, 그 포복해가는 한치한치 따라

갈라진 이 땅의

반만년의 혈통이 이어지고

그 짧은 돌격순간에

미제가 마지막 비명속에

백여년의 침략사가 끝장난다는것을—

그 돌격로 따라

그대와 나, 부모들이 피타게 갈망한

통일의 만세 터져오르고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고

영원히 행복히 살 웃음 피여오르거니

전사여, 그대의 한자옥한자옥 따라

민족이 가고 조국력사가 가고있음을 알라

(남포감문에서)

## 맑은 하늘

권강일

나의 어린 시절은 자그마한 호수가마을에서 흘러갔다.

언제 보아도 산그림자 길게 비긴 호수의 물은 맑고 마름폴향기 훈훈한 기슭에는 온 여름 파아란 풀밭이 주단처럼 깔리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고향을 떠난지 이제는 20년도나마되지만 나는 물가에 나앉은 마을이며 박꽃처럼 하얀 구름이 둥둥 떠오르던 맑은 하늘, 아침이면 풀잎에 맺힌 억만 이슬방울이 해빛에 구슬처럼 반짝이는 모양을 삼삼하게 그려본다.

예전에는 흘러보냈던 레사로운 일들마저 추억의 실머리를 풀어주는데 그중에서도 나에게서는 한 전사의 얼굴이 고이 간직한 사진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전쟁시기의 어느 여름날에 그 전사와 나와의 사이에는 평범하면서도 흔치 않은 일이 있어 서로의 가슴에 깊은 감명을 남기었으니 아마도 그로 하여 고향의 모습이 더욱 진하게 내 마음속에 채색되는 지도 모른다.

신선한 풀밭을 진흙밭로 짓이겨놓는것 같은 적들의 비행기폭음은 아름다운 음향으로 가득찬 호수가의 하늘을 뒤흔들어놓곤하였다. 전선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것을 깨우쳐주듯 쿵쿵 포소리는 산너머에서 울려오곤했다.

어깨를 겨루고 호수를 둘러싼 산들이 틈을 열어준 사이로 석비레 하얀 길이 빠져나왔는데 그길로는 인민군전투부대의 서열이 흘렀다.

풍을 친 군용자동차들, 적십자표식을 단 위생차들, 씩씩하고 림름한 령군대오들이 준엄한 임무를 안고 끊임없이 흘렀다.

그 흐름은 잠시 호수가에서 멈추어서곤하였다. 그러면 전사들은 달려내려와 물을 뿌리며 법석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는 신발과 군복바지가 축축히 젖어 또다시 떠나가는것이였다. 반기며 달려간 아이들이 미처 몇마디 이야기도 나눌새 없이...

큰길 한가운데 서서 벌여져가는 대오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소원했는가.

군대들이 우리 마을에 들러 하루밤만이라도 쉬여갔으면, 명석을 간 마당 쭉불에 둘러앉아 전투 이야기를 실컷 들어보았으면, 나날이 흘렀다.

큰길이 더 분주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의 소원은 언제까지나 소원대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 안마당과 마루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들썩해지는 군복입은 사람들이 있었던것이다.

《우리 마을엔 군대들이 들지 않는다고 만날 한탄하더니 오늘은 좋게 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보며 하는 말이였다.

나는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그저 굵적 인사를 하였다.

《웁지 이 친구 인사차림이 꽤찮은걸.》

어머니와 마주앉아 풋콩을 까던 전사가 나를 자리옆에 끌어앉히였다.

《그래 군대들이 집에 들면 무엇이 좋지?》

류달리 눈이 서글서글한 전사가 묻는 이 말에 나는 인차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준엄한 전쟁을 이겨가는 이 나날에 군대란 누구에게나 미더웁고 부러운 사람들이였다. 더우기 아이들에게는 그 이름과 함께 마음이 자라고 그 모습과 함께 희망이 싹텄다. 그러나 문득 한다는 나의 대답은 왕창갈았다.

《총알깡대기도 달래고 총도 마음대로 만져보지요.》

무슨 말이 나올가를 여겨보던 어머니가 한심해하며 혀를 찼다.

《원 철딱서니라구야.》

나는 너무도 생각 없이 문득 말해버렸다는것을 느꼈다. 형편없는 코흘리개로 보지는 않을가.

그래도 아무튼 좋았다.

전사는 웃다 말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래 누가 너같은 개강구한테 총을 주겠대.》

앞이발 빠진것이 총을 만져보는 자격에 상당한 지장이 되는것처럼 전사는 어림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손은 벌써 배낭우에 비스듬히 기대놓았던 총을 잡았다. 격발기를 चे켜 총알이 없는가를 검사하더니 나에게 주는것이였다.

《아이구 군대동무 그러지 말아요. 저 애가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르구야말지.》

어머니는 질색하였다. 그러나 총은 벌써 나의 손에 쥐여있었다. 노란 총가목이며 격발기, 방아쇠도 당겨보던 나는 조문에 이상한 장치가 붙어있는것을 보았다.

《아저씨 아저씨들은 저격수지요?》

어머니에게서 금년농사이야기를 듣던 군대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로 쏠리였다.

《자 이 친구 정말 모르는게 없는걸.》



전사가 하는 말이였다.

《그래 저격수가 무엇인지나 아니?》.

《알아요. 총 잘 쏘는 군대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쏘면 쏘는대로 영낙없이 맞힌대요. 미국놈의 대가리 코 겨누면 겨누는대로.》

나는 코에 종주먹을 갖다대며 신이 나서 말했다.

《맞았다. 저 아저씨도 미국놈을 서른놈이나 잡았단다. 무엇이든 겨누면 겨누는대로야.》

마주앉았던 분대장이 전사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새두요?》

《그럼 새두.》

나는 전사를 올려다보았다. 시원한 그 눈이 웃고 있었다. 어른들이 장난삼아 하는 그런 톤담이 아니라는것을 그 눈은 말하고있었다.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해났다.

언제부터 풀고있던 소원을 풀어볼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

《아저씨 한방 봐보지요.》

《총을?》

《예 한방안.》

《네가?》

《아니 아저씨가요.》

일이 이렇게 번져나갈것을 미처 생각 못했던 전사는 어이없어 분대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아저씨!》

나는 전사의 무릎을 흔들며 즐겼다.

《아니 저 애가 왜 저렇게 까불까. 저만치 나왔지 못하겠니.》

어머니는 종주먹을 쥐고 위협하듯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길은 이제 군대들이 가면 턱없이 까불어댄 값을 톡톡히 받아내겠다는 압제를 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물려앉을수 없었다. 그만큼 강한 유착이 나를 사로잡았던것이다.

《한방 봐보잔말이지.》

분대장이 뜻밖에도 엄청난 나의 제기에 이렇듯 기울어지는 태도쯤 보이자 어머니는 더욱 펄쩍 뛰었다.

《일없습니다. 귀중한 총알이지만 미래의 저격수를 위해서 한알쯤 바치는것은 그리 무익한 일은 아니지요》

분대장은 이렇게 말하며 전사에게 눈짓을 했다.

《허 참, 보통내기가 아닌걸.》

전사는 나를 보며 싱긋 웃더니 총을 잡고 일어섰다.

나는 벌써 대문가로 달려갔다.

이런 희한한 일이 어데 있으랴. 총을 쏜다. 백발백중의 저격수가 나를 위해 총을 쏜다.

나는 앞마당으로 뛰어나가면서 혹시 동네아이들이 보아주었으면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래일 학교에 가면 동무들에게도 이야길해야지.)

모자를 눌러쓰고 총을 어깨에 걸친 전사가 내 뒤를 따라나왔다.

우리는 수수대울바자를 에돌아 얼마쯤 호수가를 걸었다. 활짝 개인 파아란 하늘에는 흰구름이 조용히 떠있었다. 해빛에 반짝이는 맑은 수면은 거울같았다.

《자 무엇을 쏜다?》

잠시 들린 마을에서 어린아이의 청으로 총을 쏘게 된것이 마음에 들어서였던지 그의 목소리는 껍다정하였다.

(참으로 멋진 목표물을 골라야겠는데.)

잠시 사방을 둘러보던 나는 호수의 저편 산들이 자기의 봉우리들을 선명하게 그려내고있는 하늘가에 무엇인가 검은 점물이 움직여오는것을 발견하였다. 물오리였다. 늘 보아오던것이어서 인차 알수 있었다.

《아저씨 오리, 저기 물오리!》

나는 급히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전사는 비로소 발견한듯 《오 그래.》 하며 날쌔게 총탁판을 어깨에 대고 총신을 올리였다. 쌍쌍이 날아오는 오리는 열뿔마리 되는듯했다. 조성 조문 이 오리를 따라 점점 들리였다.

나는 귀를 막았다. 숨을 죽이고 올려다보았다.

<어느놈일까, 앞에놈? 뒤놈? 아니 두마리일수도 있지.>

총에 맞아 떨어질 오리를 점찍어보는 사이에도 오리는 점점 가까이 날아왔다. 눈앞에... 머리우에...

검스레한 배가 보이였다. 스르스르 깃을 치는 소리까지 들리였다. 멀리로 날아갈듯싶던 오리들은 머리우에서 한바퀴 빙-돌더니 호수로 다시 돌아서 온다.

(저런 이제 쏘면 물에 떨어지겠는데... 일없어 내가 헤엄을 쳐서라도 건져올텐데.)

그러나 좀처럼 총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오리에서 눈길을 돌려 전사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그는 총을 겨누지도 않고 멀어져가는 물오리를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아저씨 쏘지 않아요?》

《응? 오 그래.》

그는 비로소 깨우친듯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총을 울리지는 않았다.

하긴 벌써 호수의 저쪽 산굽이로 가물가물 사라지는 오리를 쏘기엔 때늦었던것이다.

나는 허전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날아가는 새도 맞힌다면서 저렇게 큰 오리를 그것도 여러마리가 낮추 날아오는걸 쏘지 못한단말인가.

전사는 시무룩해있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 이거 오늘 시험관한테 단단히 걸렸는걸.》

《...》

《꼬마야 저런 오리가 여기 많니?》

《요즘엔 얼마 없어요.》

《그렇게다.》

뿌루퐁한 나의 대답에는 개의치 않고 멀리 폭음이 울려오는 산너머를 바라보던 전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우리 집은 서해바다가인데 갈밭에 저런 물오리가 많이 날아온단다. 너 저게 무슨 오린지 아니?》

《물오리지요.》

《물론 물에서 사니까 물오리지 그렇지만 오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건 정확히 말하면 검목오리란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수 있지. 다른 오리는 여름이 되면 다른 나라로 가지만 저 검목오리만은 봄, 여름, 가을 언제나 우리 나라에 살거던. 해염을 치는데서도 저놈이 으뜸이란다. 보라구 이렇게 뒤집을 지구.》

허리를 구부리고 뒤로 팔짱을 지른 그가 어깨를 기우뚱대며 앞으로 달리는 시늉을 하자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었다.

우리는 호수에 발을 잠근 흰바위우에 나란히 앉았다.

《아저씨 오리를 잡아보았나요?》

나의 물음에 전사는 활기를 띠었다.

《그럼 잡아보았지. 사냥중에도 물오리사냥이 제일 멋있단다. 낚알을 채워넣은 사냥총을 쥐고 갈밭에 숨어있노라면 오리들이 날아오지. 백마리 천마리 바람을 일으키며 헤일수도 없이 많이 말이다. 그러면 획-사냥개를 놓아주지.》

전사는 휘파람까지 불었다.

《얼마 있지 않아 개가 달려간곳에서 한두마리 오리가 푸드득 날아오른다. 그러나 이땐 참아야 한다. 뒤따라 수백마리가 날아오르는데 갈이파리우에 오리때가 뜨는 순간 땅- 방아쇠를 당기면 영낙없단다.》

《아저씨는 포수였나요?》

《포수는 아니었지만 마을사람들한테 명사수라는 말은 들었던단다. 자 이젠 무엇을 쏜다?》

사냥이야기에 정신이 팔렸던 나는 다시 즐거움에 휩싸였다.

우리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마을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나는 전사의 뒤를 따르며 마침한 사냥감을 찾았다. 뒤산 밤나무숲에서 개구마리가 개개개-하고 풀더니 어디론가 날아갔다.

이때 어디선가 뜰부기 우는 소리가 났다. 마을옆에 있는 자그마한 논벌에서 울려오는 소리였다.

《뜸-뜸-땀-땀-》

정적은 깨어졌다. 주위는 활기를 띠었다. 구불 구불 논둑이 뻗어간대로 눈길을 쫓던 나는 한 물고결에서 감스레한 몸뚱이의 뜰부기를 찾아 났다.

《아저씨 보이지요.》

《그래.》

전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벌써 자세를 낮추었다. 그리고 최쪽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앞에 있는 아카시아나무꼭지밭에 총끝을 올려놓았다. 나도 땅에 엎드렸다.

멀지 않았다. 칠팔십미터나 될가.

자기가 목표물이 될줄 알길 없는 뜰부기는 여전히 그 독특한 목소리로 《뜸북》노래를 계속하였다. 리듬에 맞추어 작은 머리가 지휘봉처럼 오르내렸다. 그러다는 제 목소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다른 음악이 반주를 하고있지는 않는지 가늠이라도 하는듯 길고 가느다란 목을 빼들고 한참씩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 여운이 작은 마을과 호수가에 쟁쟁히 퍼져갔다.

(어른들은 뜰부기를 논에서 사는 물닭이라고 하던데 빨간 번두도 있고 생김새도 닭과 비슷하다고 했지. 이제 보면 알게 될거야.)

막연한 불안과 기다리는 마음이 뒤섞여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한동안이 지나도 총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총은 여전히 겨누대로였다. 자세히 전사를 여겨보던 나는 전사의 눈길에서 어딘가 당황해하는 표정을 읽었다.

불신감이 나를 휩쌌다. 아마 이 아저씨는 아직 진짜배기 저격수가 못된 모양이구나. 두줄 석줄 박은 아저씨가 왔으면 벌써 쏘았을걸...

《뜸북-뜸북-》

천연스럽게 우는 그 소리와 함께 또다시 한동안이 지났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마을에서 개가 달려오며 멍멍 짖어댔다. 뜰부기는 노래를 똑 그쳤다. 잠시후 푸드득 날아올랐다. 벼이파리들을 건드리며 거뿔거뿔 날더니 호수의 기슭을 따라 멀리 사라졌다.

전사는 말없이 일어서 무릎을 툭툭 털더니 담배를 꺼내불었다.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성냥 좀 가져오렴》 하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부엌시렁에서 성냥을 가지고 나오는데 분대장이 불러 세웠다.

《아직 좋은 사냥감을 고르지 못했니?》

나는 주춤 멈추어섰다. 《저 아저씨는 총을 잘 못 쏘는것 같아요. 아저씨가 나가자요.》 목구멍까지 이 말이 올라왔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알고 달래기라도 하는듯 《본때난걸 쏘아달래라. 그 아저씨는 소문난 명사수란다.》 하고 분대장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긋한채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전사는 큰손으로 성냥을 그이 담배불을 붙이고 후- 연기를 내불었다.

《애, 너희 마을은 정말 좋은고장이다.》

《좋은게 뭐 있어요?》

나는 툭명스럽게 대꾸했다.

《좋은게 없다구? 봐라. 호수는 얼마나 아름답니. 저렇게 물가에 풀이 자라는걸 보니 물고기가 많겠다. 너 낚시질할줄 아니?》

《낚시질요? 우린 저 내가에서 반두로 잡아요.》

《반두로 잡는것보단 낚시질이 더 재미있단다. 시간만 있어도 좀 잡아보는건데.》

전사는 한동안 호수를 등지고 마을과 둘러선 산들을 바라보더니 《그런데 과일나무가 별반 없는게 좀 안됐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저 산들에 사과나무 배나무를 가득 심어라.》 하며 손을 들어 가리켰다.

《과일나무가 어디 있어야지요.》

《나한테 오너라. 어린 나무를 줄테니. 벌써 불탄 산들에 심으려고 키우는 과일나무들이 많다더라.》

전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데려갈듯 진정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나의 귀엔 새겨들리지 않았다. 이러다는 총을 못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초조감에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재촉을 하자 《그래서 보자꾸나.》 하고 말하며 담배꽂초들 발로 비볐다.

나는 다시 목표를 찾았다. 이번에는 좀 험한것 움직이지 않는것 큰것을 택하려고 하였다. 마을의 들메나무도 생각해보고 까치둥지도 가늠해보던 나는 언덕우에 솟은 선바위를 짚었다.

《아저씨 저것 보이지요?》

《어느것?》

《저 선바위말이에요.》

나는 노가주나무가 몇그루 듕성듕성 서있는 언덕우에 류달리 큰 바위가 우뚝 솟은것을 가리켰다.

《선바위라구?》

《예 우리 마을이름을 선바위라고 하는것도 저 바위때문이라요.》

《그래!》

전사는 희한한 이야기라도 들은듯 바위를 바라보았다.

《맞힐수 있지요?》

《가만 그런데 저렇게 길옆에 서있는 바위를 쏘면 굴러내리지 않을까.》

《일없어요. 전번에 썩새기들이 기총사격을 할 때 몇방 맞았는데도 꿈쩍 안했는데요.》

《정말?》

《정말이에요.》

전사는 이렇게 다짐을 두었지만 쏠 차비는 아니었다. 잠시 호수주변도 둘러보고 산들도 쪽 살피보더니 나에게로 돌아섰다.

《꼬마야, 별로 쓸만한게 없구나. 너 아까 총알 깎대기를 달라고 했지.》

나는 전사가 무엇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뻔히 울려다보기만 했다.

《그저 한방 쏘자꾸나 응?》

《...》

《그렇게 하지?》

전사는 이렇게 말하며 총을 들어올렸다. 그러고 비스듬히 공중으로 총끝을 올렸다. 나는 이때에야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공포》를 놓자는것임을 알았다.

《땅!》

요란한 총소리가 울렸다. 마을이 한번 들썩 추스르는것 같았다. 들메나무가지가 휘친하였다.

전사는 격발기를 철컥 제졌다. 총알깎대기가 뒤로 곤두박질해 떨어졌다. 전사는 그것을 들어 훑 불더니 나에게 주었다. 뜨거웠다. 둥그런 구멍에서는 아직도 파르스름한 연기가 물물 나왔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진품을 얻은것이 무척 좋아 어쩔줄 몰랐겠지만 저격수의 사격솜씨를 보려던 희망이 멧적게 허물어진것이 서운하여 기쁜줄을 몰랐다.

《아저씨는 명사수라더니 광포쟁이야.》

나는 속히운듯한 분한 마음을 이런 응석투로 얼버무렸다.

전사는 웃으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애야 너희 고향마을은 모두 아름다운것들뿐이구 고운 노래로 가득찬는데 어디 총을 쏠데가 있니 바라, 그렇지 않아도 원썩놈들은 저 귀한 바위를 깨려고 하지 않았니. 아저씨 미국놈밖에 쓸줄 모른다.》

전사가 남긴 말이였다.

준엄한 날에 있는 보통일이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그 전사를 생각하면 고향마을 고향 산천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봄이면 하얗게 아카시아꽃이 구름처럼 피어나는 호수가의 산들, 눈부신 해빛과 부드러운 훈향에 한껏 취하여 해종일 즐거운 설레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가하던 이름모를 풀과 꽃들...

오늘도 변모되는 나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속 맑은 하늘에는 물오리떼가 조용히 날고있다. 깃을 치며 멀리 나의 생각을 안고 조국의 넓은 하늘가로 멀리... 이럴 때면 고향의 그리움이 아니 조국의 귀중함이 가슴푸근히 젖어든다.

그 전사도 언제나 나의 고향을 잊지 않을것이다.  
내가 그를 못잊어하는것처럼...

## 나 의 집

유 국 진

나를 키운 어머니의 눈빛이런가  
해빛부신 만경대의 푸른언덕우  
번쩍이는 저 학원의 창문들은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가  
대동강의 정다운 저 물소리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이런가  
학원의 지붕우에 키를 솟구며  
미풍에 설레이는 저 백양나무  
나를 향해 푸른가지 팔처럼 되돌고  
걸음걸음 마주 향해 다가서는듯

아, 출장길에 잠시 들리는 이 순간조차  
내 저 아늑한 잔디밭에  
어릴적 그때처럼 덩굴고싶구나  
내 저 넓은 운동장에서  
동생들과 떠들며 뽀도 차고싶구나

나의 학창생활이 예서 시작되어  
전투적 일과속에 흘러간곳이여  
학원을 떠나 내 멀리 가있어도  
언제나 그리워 오고싶던곳이여  
언제나 그리워 안아보던곳이여

병사시절  
조국을 지켜선 고지의 밤  
학원의 추녀높은 저 지붕은  
천리방선 나의 초소에 닿아  
내리는 눈비를 가려주었고

사격장에 나설 때면 내 눈앞에  
먼저 떠오르던 학원의 사격좌지  
나에게 복수자의 첫눈을 띄워준  
고마운 그 손길 자세를 잡아주며  
명사수의 충성만을 울리게 했더라

목에서 단내 나는 전술훈련길  
하늘땅이 도는듯  
아슬한 칼벼랑을 날아넘을 때에도  
학원이여 너는 내 마음속에  
걸음마다 따라서며 받들어주었거니

세월은 흘러 내 나이 많아져도  
억센 날개만을 퍼덕이게 해주는  
용맹스런 수리개의 성스러운 요람이여  
너는 내 삶이 뿌리내린곳  
너는 내 의지를 강철로 버려준곳

나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언제나 그 사랑 몸빛으로 넘쳐나고  
나의 어머니 자애로운 당의 빛발  
유자녀들의 숨결을 지켜주는 집  
아름다운 희망과 신념의 뿌리를  
어린 가슴들에 심어주는 고향이여

아, 만경대혁명학원이여, 너는  
내 어릴적이나 다 자란 오늘이나  
그 언제나 격정과 사랑만을 안겨주는  
나의 집, 나의 어머니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이여라.

## 기쁨의 나들문

리 계 심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아름다운 한척의 《배》가 떠있다.

어디로 가는 《배》인가?

우리 나라 명승지를 찾는 고층 《유람선》인가?  
그 어디 먼곳으로 떠나가는 《무역선》인가?

아니다. 그도 저도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우리 당의 은정으로 무어진 평양제1백화점이라는 《배》가 봉사혁명의 봉화를 마스트루에 날리며 인민생활의 《바다》를 누벼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한두해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백화점의 이름은 옛그대로이지만 옛 백화점의 규모와 설비에 비하면 초가집을 허물고 큰 아파트를 짓것과도 같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다.

한번 바라보기만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집,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들어가고 기쁨이 나오는 만화경속을 들여다보는듯한 백화점의 유리문, 그 문으로 들어가기전에 벌써 사람들은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에 홀린듯 눈길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흰 구름송이가 떠도는듯한 인민대학습당의 지붕들, 심산속의 바위짜에서 솟구치오르는듯한 만수대에 예술극장앞의 분수에서 피어나는 무지개빛물안개보라, 꽃수를 놓은듯한 학생소년궁전의 푸르른 언덕, 어디를 보아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흥취를 돋구어주는것뿐이다. 인민들에 대한 봉사시설이 집중된 시내 가운데서도 한복판에 자리잡은 백화점으로 사람들은 기쁨의 물결이 되어 흘러들어간다. 나도 그 기쁨속에 휘말려들어 갖가지 부엌세간들이 있는 도자기매대로 곧추 갔다.

《어서 오세요. 꽤 바쁘신 모양이군요. 이제사 오시는걸보니...》 판매원은 문양이 고운 공기를 고르고있었다.

나는 각양각색의 도자기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조화시켜 진렬해놓은 진렬대를 황홀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매대가 아니였다. 그 무슨 공예품전람회에라도 온듯한 느낌이였다. 별의별 모양의 유리그릇, 사기그릇들이 그야말로 진주보석처럼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었던것이다.

《어쩌면 이리도 아름답고 어쩌면 이리도 예술적으로 진렬했어요?》

내가 났나간 사람모양으로 마냥 감탄하는데 대하여 그는 줄거운듯 대답하는것이였다.

《우리 매대가 진렬경기에서 1등을 했답니다.》

기쁨이 샘솟고 공지가 울리는 목소리였다. 서론대어섯은 났을가...? 얼굴처럼 마음도 곱고 차분해비는 그의 모습은 기쁨 그대로였다.

《진렬경기를 해요?》

귀맛이 솔깃해진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그러문요. 우리 백화점에서는 총별 매대별 봉사경기도 자주 한답니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매장을 빙 둘러보았다. 아무데를 보아도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매대, 모든것이 알른알른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수만명의 고개들이 드나들어도 강변에라도 서있는듯 숨쉬기가 시원했다. 언제 와도 백화점안의 공기가 이처럼 맑고 깨끗한것은 결코 공기조하기의 조화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매원들의 남모르는 숨은 노력, 그들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 친 혈육을 대하는듯한 살뜰한 손길, 레절바른 인사... 티없이 맑고 사심없는 봉사정신에서 풍겨오는것이 아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서나는 승강기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매장 한복판에서 쉬임없이 손님들을 안아올리는 승강기를 타고 층층을 다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매대, 녀자 옷매대, 남자옷매대 등 제각기 특색있는 층과 매대들에 진렬되어있는 수만종의 제품들을 바라보느라니 이것이 바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나라 경공업의 전시장이로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나의 가슴은 더더욱 부풀어올랐다.

어느 매대를 보나 손님들로 흥성거리고 판매원들의 상냥한 미소가 방금 피어난 꽃송인듯싶어 마음도 발걸음도 가벼웠다.

녀자들의 맵시있고 굽높은 신형구두로 인기를 끌고있는 매대를 지나 천매대로 다가가는데 판매원이 짜주는 전을 받아안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진달래꽃이 활짝 핀 첫날옷감을 달덩이같은 우리 손주며느리에게 입히면 하늘의 선녀들이 왔다가 울고갈게요. 판매원아지미 잔치날 우리 집에 꼭 오라구...》

너무나 만족해서 어쩔줄 모르는 할머니에게 또  
오시라고 인사하며 바래우는 판매원의 기쁨어린  
얼굴에서 나는 가슴이 뭉클하도록 뜨거운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얼굴,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더 기분 좋게 해주지 못해하는 그의 모습을 한참동  
안 서서 바라보고있던 나는 손님이 뜰해지자 그 판  
매원에게 다가가 새 백화점에서 봉사하는 느낌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윽도록 4층으로 올라 오는 승  
강기를 바라보더니 생각깊은 어조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였다.

《저 승강기를 볼 때면 저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 백화점의 개정을 앞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친  
히 승강기를 타고 4층 천매대앞으로 걸어오시여  
다색단천필을 만져보며 말씀하시던 그 자애로운 영  
삼이 떠올라 늘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과 감격을 안고 매대에 서있노라고 하는것이였  
다.

맑은 이슬이 맺힌 그의 정깊은 눈에는 한 마디로는  
할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있는듯했다. 나는 그  
판매원이 다하지 못한 이야기, 백화점에 숨은 이야  
기를 듣고싶었다. 그래서 나는 지배인을 찾아갔다.

50고개를 넘었어도 아직 40대로밖에 보이지 않  
는 김옥심지배인은 내가 찾아온 취지를 알고 쾌히  
응해주었다.

《내가 처음 단발머리 판매원으로 매대에 섰던 농  
촌상점과 오늘의 이 현대적인 백화점을 대비하면  
꿈같다고 하겠는지… 천지개벽이라고 하겠는지…  
나 한사람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그 놀라운 속도와 위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백화점에 외국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들이 한결같이 감동하는것은 이 큰 백화점에 외국  
상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우리 나라 제품이라는것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백화점의 지배인이 녀자  
라는데 대해서도 놀란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백화점에 기  
울여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고마운 은정에 대하  
여 목이 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평양  
제1백화점을 전후에 선참으로 복구하여 1954년  
5.1절에 문을 열도록 해주신 그때로부터 여러차례

의 현지교시를 주었을뿐아니라 현대적인 백화점을  
지어주기 위하여 건물모양과 터자리로부터 건설전  
과정에 기울여주신 사랑에 대하여 그는 눈물을 머  
금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새 백화점의 개점을  
앞두고 친히 찾아오시여 갑자기 커진 대규모의 백  
화점에 상응한 상품확보를 위해 직송체계를 세워주  
고 백화점의 운영과 관리, 지어 상품진렬에 이르기  
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신 이야기에 가슴이 젖어오는  
것이였다.

그는 자기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판매원으로부터 지배인에 이르기까지 자나깨나  
생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잘 봉  
사할것인가 하는 오직 한마음으로 숨쉬고 사색하고  
움직이고 똬드는것이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인  
민들의 수요와 기호를 연구하고 새로운 모양과 색  
갈의 신발을 위해 신발공장에 찾아가 꽃천과 격자  
직으로 아이들의 신발을 만들어주도록 여러차례 협  
의하고 조건을 보장해준 신발매대 판매원들.

시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색깔과 새 무늬의 천  
을 짜도록 하기 위하여 퇴근길에 평양종합방직공장  
에 찾아가 직포공들과 같이 천도 짜고 토론도 하면  
서 뽀뽀이 새로운것이 나오도록 자극을 준 천 매대  
리명숙, 김명심동무들…전직물매대에서도 모직물  
매대에서도 이루다 헤아릴수 없는 정도였다. 그들  
은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봉사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시안의 영예군인들을 모두 장악해서 가정방문을  
하며 봉사했으며 직장에 다니는 애기어머니들의 수  
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직장탁아소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의 고운옷을 공급해주었다. 진료소를 찾아다  
니며 시안의 환자들을 장악하여 강서약수를 가정에  
까지 날라다주어 치료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그리고 삼산탄광을 비롯하여 여러 탄광에 이동봉  
사대를 보내어 상품도 공급해주고 합숙들을 실속있  
게 꾸려주어 탄부들로부터 좋은 반영이 계속 들어  
오고있다는것이다.

그는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상업일군은 인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고 인민들  
로부터 사랑받는것 이것밖에 더 기쁜것은 없지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 의도하시는  
대로 문명하고 리상적인 인민의 백화점으로 운영하  
기 위해 최대한의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헌신하는것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표이며 삶의 보람이라고 생  
각합니다.》

# 꽃을 피우네

조 창 선

산에 들에 피어날 꽃들

에서 다 피어나는가

색갈도 갖가지

꽃무늬도 갖가지

곱고고운 천으로

사랑의 옷 만드는

재봉공들의 웃음도

꽃수에 흐르는

옷공장 작업장은 꽃밭이런가

같은 옷을 만들어도 고운 색깔로 만들면야

거리가 환해지니 얼마나 좋겠는가

같은 옷을 만들어도 맵시있게 만들면야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영명하신 지도자동지 그 뜻 그 사람

한뼘한뼘 충성으로 수놓아가네

정성다해 만든옷 천정높이 닿으면

재봉공들의 기쁨 하늘가득 넘치려니

재봉공들 옷을 만드네

집집마다 방안가득 웃음 넘치라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꽃물결 넘쳐흐르라고

친애하는 그이 그 은정

만사람들 심장속 깊이깊이 새기라고

아 재봉공들은 작업장에서

온 나라에 꽃바다를 펼치여가네

사람들 심장마다에

사철 피는 행복의 꽃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꽃을 피우네

## 갑문아, 갑실아 외 1 편

백 하

어서 안아보자  
갑문아 갑실아  
까만 눈동자 반짝이며  
불웃음도 복스러운  
건설장의 귀염둥이들아

너의 고향은 남포갑문  
끝샅뿌리에 첫발과 울릴 때  
첫울음 우렁차게 터치고  
압축기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현장탁아소에서 자란 복둥이들

몸소 갑문의 터 잡아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험한 바다길 헤치며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  
영원토록 잊지를 말라고  
아들을 낳으면 갑문이  
딸을 낳으면 갑실이

온 중대가 떠들썩  
휴계실 천막가에서 지어준 이름  
온 공사장이 흥성흥성  
돌격대의 경사로 축복해준 이름

어서 바라보아라  
조갑지갈은 손으로 창턱을 쥐고

저기 기폭에 덮어 일어서는  
갑문 언제를 보아라  
갑실 벽체를 보아라

갑문이 키를 솟구면 너도 자라고  
갑실이 어깨를 추켜들면  
너도 아장아장 첫걸음마를 뎌다  
부대의 자랑, 우리의 미래

준공의 꽃보라 하늘땅을 뒤덮을 때  
너희들 온몸에 오색테프 둘러주고  
첫 러객선에 태워주마  
첫 렬차에 앉혀주마

아, 그날 갑문우에 높이 모신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너희들을 꽃다발처럼  
하늘 높이 추켜들어  
이 세상의 행복을 다 안겨주마  
온 누리의 영광을 다 안겨주마

갑문아 갑실아  
아버이수령님의 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서  
충성동일로 자라거라  
당의 아들딸로 자라거라

##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너를 잊었다 바다여  
이른아침 언제길에 나서면  
우리 눈길은 먼저 기폭에 덮인  
갑실건설장으로 달리고  
자국자국 생각은 오직  
이제 처넣을 쿵크리트타입량뿐

우리의 귀전엔 들리지 않는다  
사납게 울부짖던 너의 파도소리  
이제는 침실에 돌아와도

귀가에 한가득 진동기소리뿐  
통패히 쏟아지는 혼합물 목포소리뿐

바다여  
검푸른 물머리를 추켜들고  
밤낮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너  
철통의 두터운 강판을  
쨍 쨍 찢개던지며  
언제를 쓸어삼키던 너



허나 우리는 끝끝내  
우람찬 철배들의 산악으로  
너의 숨통을 누르고 일어나  
이렇게 언제우를 걸어간다  
줄거이 룡담을 주고받으며

네가 어찌 알았으랴  
애송이 우리의 두볼에  
아직 숨털이 가셔지지 않았건만  
가슴속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를 품에 안아 몸소 키워주신  
거인의 담력이 자리잡았음을

바다의 정복자들  
우리는 걸어간다  
궁지로 부푼 가슴 한껏 펴고

승리자의 미소를 해풍에 날리며

우리는 걸어간다  
뒤덮인 얼음장밀에  
아득히 숨죽이고 누운  
너를 무표정하게 스쳐보며  
들끓는 갑실건설장으로 간다

아, 삼년세월  
가슴을 맞대이고 싸우던 바다  
눈을 감아도 눈을 감아도  
지곳게 보여만오던 날바다  
허나 그 기슭을 걸어가도  
이제는 우리의 눈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 용해공의 노래 외 1 편

차 명 문

늘쌍 좋더라  
아직 집에서 깨어나지 않은 거리  
집집의 창문마다를 노을로 물들이며  
쇠물을 뽑을 때이면

레사로운 날  
남 다 자는 밤에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쇠물을 끓이고  
남먼저 창조의 새날을 낳는  
우리의 용해공

펼 펼 끓는 쇠물  
사품쳐 흐르면서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뽑어올리는 뜨거운 열은  
식을줄 모르는 우리의 열정이런가

눈부신 주홍빛으로  
대지를 붉게 물들임은  
2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 정점에  
남먼저 오르려는  
우리의 붉은 마음 비껴서이리

성미 급한 우리 닮아서이더나  
너의 흐름 그리도 기세차  
노도쳐 달려가고

지심을 울리며 폭포로 떨어짐은  
오, 그래서 쇠물이어  
너는 우리의 불타는 마음  
강철전사의 기쁨이고 노래  
우리의 자랑이고 의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흘렀다  
끊임없이 흘러서  
너는 투쟁하고 전진하는 조국의  
역센 힘이 되고 부강재부가 되거니

공업의 왕좌  
철의 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궁지  
비길데 없고  
우리의 보람  
쇠물노을 비낀 새벽하늘의  
별무리처럼 빛난다

우리의 기쁨이고 노래인 쇠물이어  
식을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처럼  
언제나 뜨겁게 끓어번지라

1,500만톤의 강철고지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의 의지처럼 억세여라  
언제나 변함없이

## 우리의 용광로

평범한 날에  
손쉽게 세운게 아니다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폐허에서 일떠세운 용광로

굴할줄 모르는 조선의 기상  
미제의 머리우에 들썩우는 심정으로  
쇠물을 뽑던 그날에  
아버이수령님께서 오시여  
우리를 뜨겁게 고무해주셨기에  
용해공들의 사랑으로 간직된 용광로

그래서이더냐  
대보수하는 일 그리도 귀중해  
달리고 달려오도  
성차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쉬이 잠들수 없는 마음들

동을 보라 서를 보라  
뜯어낸 낡은 구조물은 실려가고  
새라새 설비들은  
다투어 산으로 밀려들고

용광로탑우에 덮이운  
제관공들뿐이더냐  
직장마다에서 달려온 수많은 지원자들  
이름모를 녀인들, 아이들까지 봄비니  
전투장은 그대로  
열정의 바다, 창조의 도가니

물어보자  
우리의 귀중한 용광로 위해  
첫 나들이까지 바쳐  
한달음에 달려온 신랑신부

정성들여 쌓아가는 신랑을 따라  
수집음에 얼굴 붉은 신부  
아릿다운 그 마음씨 그대로  
내화벽돌을 거울처럼 갈아나갔기에  
축로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했다는  
열한돌기 사랑의 돌기는 어디

출선장에 오신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치하를 받은 로장의 어머니  
진갑상을 그대로 안고와  
전투원들에게 권하고  
밤세워 아들의 일손 도왔다는곳은 어디

어디메냐  
용광로 철갑 씌우기에 드바빠  
학교에서 오던 길로 달려온 소년단원들  
아니, 외지에서 온 출장원 길손들까지  
지원의 가룩한 손길 닿은곳은

내화벽돌 열두층 로바닥에서부터  
로안의 저 아득한 로정까지  
돌기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푸른 하늘가에 닿은 철탑  
철갑의 이음신마다에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있거니

철의 샘터, 용광로여  
너를 두고 사람들 너 나 따로없고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끓는 쇠물보다 더 뜨겁고  
하늘가에 닿은 너의 로정보다  
더욱 높구나

간고한 날에 폐허우에서  
조선의 본때로 일떠세워서만이 아니다  
수령님으로부터  
못잊을 격려만을 받아온 너

굴함없는 의지우에  
진할줄 모르는 더 큰 힘을 지녔기에  
이제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다 큰 믿음을 안겨주시리니

우리의 용광로여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오늘의 우리 마음  
벌써 1, 500만톤의 령마루에 솟았어라  
그래서 너는 우리의 의지 조선의 기상!  
(김책제철소에서)

## 생활의 참된 길동무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작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조선문화편집부에서는 남포지구에서 잡지 《조선문학》에 대한 독자회를 진행하였다. 독자회에는 남포지구의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서 온 문학통신원들과 열성독자들, 대학생들과 현직작가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독자회에서는 금년도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작품들에 대한 독자들의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김영길: 매번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조선문학》 잡지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잡지를 처음 받아칠 때의 기쁨은 누구보다도 우리 문학통신원들이 더 클것입니다. 잡지를 쥐면 놓고싶지 않아 끝까지 다 보고야 마는것이 또 우리 문학통신원들이것입니다.

잡지를 펼치고 제일 먼저 읽게 되는것이 소설입니다. 그중에서도 차례를 훑어보며 어느 제목이 흥미를 끄는가 하는것을 가늠해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작품의 제목부터 독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게 다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정: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상한 공산주의덕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은 독자들속에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단편소설 《초점》과 《다시 쓴 논문》을 보풀이 일도록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생활 그대로 받아안게 하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잡지에 이런 작품을 더 많이 편집해주시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실리는 짧은 형식의 단편소설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런 아담한 형식의 전투적인 작품은 우리의 미감에 맞습니다.

단편소설 《향기》나 《장씨의 소원》 등은 비록 길지는 않지만 낯설은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는 주인공들의 절절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그대로 뜨겁게 안겨지는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서사시 《우리 수령님》은 우리의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줍니까. 시의 구절구절을 두고두고 외우게 됩니다.

시 《당의 위업앞에》, 《나는 화분에 물을 준다》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기 생활을 돌아쳐보게 됩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당의 위업앞에 자신의 나이를 되새겨보게 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겠다는 결의가 새로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 《못잊을 그날의 흰눈송이》,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는 그 제목자체가 얼마나 서정이 풍만하고 열렬합니까. 앞으로 짧으면서도 운율이 있는 시를 더 많이 편집해주시 바랍니다.

박병주: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은 레외없이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얼마전에 룡강지구의 한 광산에 나간적이 있습니다. 광산에는 여러가지 직종이 있지만 아직 일부 사람들에게는 개인타산을 앞세우며 험하고 보수가 많은곳에 가서 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단편소설 《삶의 위치》는 매우 교훈적인 작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자주 보면서도 흔히 스쳐 지나가게 되는 사람들 즉 도로를 청소하는 주인공의 형상을 판이한 두 제도의 대비속에서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안겨주는 매우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광산의 로동자들과 일군들도 한결같이 소설 《삶의 위치》를 읽고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고들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는 우리 제도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일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고 하루와 같이 깨끗이 일해나가는 우리 시대 아

름다운 인간들의 형상을 그린 작품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윤승호: 저는 아직 대학에서 문학공부를 하는 문학애호가에 불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무들 속에서 애독되는 단편소설 《고임돌》과 《박토산우에서》도 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매혹되어 보고보아도 또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것은 《조선문학》잡지에 교육부문주제의 작품이 많지 못한것입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작품도 많이 실었으면 합니다. 고전소설들뿐 아니라 고전시가들, 가요들도 많이 소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용: 저는 《조선문학》잡지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최근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노래한 송가들이 많은것이 제일 기쁩니다. 우리 인민모두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불타는 충성심이 시대열정의 주류가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이런 송가들은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속에 새기게 되고 자신의 지향을 시형에 담게 되는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송가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뿐 아니라 그 예술적형상도 더 높여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잡지에 실리는 가사들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 높여주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권영: 《조선문학》잡지는 우리 문학운동을 선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정이 짙으면서도 짧은 시를 더 많이 실었으면 합니다.

시 《만수대에서》, 《2월의 찬가》, 《연풍호우에서》는 우리의 생활감정에 맞기때문에 많이 애독되며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리수덕: 그렇습니다. 좋은 시는 누구든 애송하며 그속에 자기 생활을 비쳐보게 됩니다. 《추억》, 《꽃도 무심치 않아》 등 좋은 시들이 많다고 봅니다. 서정시뿐만 아니라 담시, 풍자시, 벽시 등 앞으

로 다양한 종류의 시를 편집해주면 좋겠습니다.

짧으면서도 여운이 있는 시는 말그대로 우리 생활의 노래로 되는것입니다.

라은주: 저는 아직 문학창작에 대한 소박한 지향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저는 잡지 《조선문학》의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작품을 본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작품을 쓸수 있을가 하고말입니다. 잡지에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들의 창작수기와 창작경험을 많이 소개해주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작들과 그것을 창작할 때 있었던 일화들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저두 문학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조선문학》잡지를 애독했고 그 과정에 저는 작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문학의 면모는 잡지 《조선문학》만 보아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서사시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열렬하게 울려줍니까.

세 시인이 쓴 편시 《탄전에 별들은 빛난다》도 특색있고 감명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도 새롭지만 시대의 숨결이 그대로 시행마다에 맥박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을 창작하는 문제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잡지에서 시작품들에 대한 분기평과 함께 개별적 작품들에 대한 단평, 작품계렬에 대한 단상 등 여러가지 형식의 평들도 편집해준다면 현실에 있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독자회에서는 이밖에도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독자들의 기탄없는 의견들은 우리들의 편집사업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될것이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이 편집부에 많은 조언들을 주길 기대한다.

**본사기자**

# 풍년 열매

김수

꽃밭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꽃을 가꾼 사람의 마음을 그려보게 되는것처럼 황주과수농장 장사지구 4작업반의 탐스럽게 무르익은 과일을 바라 보며 우리는 그 주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 높지 않은 산들과 골짜기마다에 가지가 휘여지게 주렁진 사과, 배, 그윽한 과일향기를 목에 이게 안겨주는 저 풍만한 열매의 한알한알에는 얼마나 성실한 로력이 깃들었으랴.

《이 과원은 십여년전에 꾸러졌지요.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과수농장의 한 일꾼은 깊은 감회에 잠겨 개간의 나날을 더듬어갔다.

## 그 사랑 꽃피우리

밤 보슬비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새로 개간한 과원-산밭들은 비와 어둠속에 묵묵히 솟아있었다.

밤하늘을 불태우며 여기저기에서 타오르던 모닥불도 보이지 않고 놀라서 잠을 깬 새들의 지저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보슬비 내리는 이 밤, 모든것은 깊은 잠에 취했는가보다.

그런데 웬일인가? 한점의 불꽃, 아니 점점 세차게 어둠을 몰아내며 타오른다.

불길은 저녁교대를 나온 트랙트르운전수 강득현 부부의 얼굴을 붉게붉게 비쳐주고있다. 머리며 작업복은 축축히 젖어왔고 눈섭이며 얼굴에 비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것을 의식하지 못하듯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 먼 후날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추억할까요? 》

강득현의 안해 안장녀의 말이였다.

《글쎄.》 남편은 빙그레 웃었다.

《아마 저 어린 사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풍년과일이 주렁지면 생각하겠지요.》

이 밤따라 안해는 생각이 많은 모양이다.

《그렇가. 생각하건 안하건... 우리는 이 밤도 과원의 래일을 펼치고있소.》

강득현은 불무지를 돈구었다. 툭툭... 모닥불 불꽃이 튕기였다.

...

그들 부부는 이 과원의 첫 주인이였다.

몇해전 그들이 본장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꽃피우고있을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두번째로 과수농장을 찾아주시였다. 또다시 찾아주신다니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그날밤은 못별도 유난히 빛났다.

《잠들수 없군요.》

안해의 말이였다.

《생각이 깊어지는 밤이요. 우리는 너무도. 한일이 적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두번째로 우리 농장을 찾아주셨는데.》

강득현은 오래도록 창가에 서있었다.

《그래요. 우리 힘껏 일해가자요.》

안해도 창가에 나란히 섰다.

한그루 사과나무앞에서도 오래도록 발걸음 멈추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이 차례지게 하겠는가고 하나하나 보살펴주신 그 크나큰 사랑은 그들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왔다.

(그 사랑 꽃피우리. 우리도 풍년과원의 꽃으로 활짝 피여 탐스러운 열매로 무르익으리.)

강득현부부의 주고받는 눈길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후 그들은 본장에서 여기 4작업반으로 이사왔다.

신혼생활이 꽃피던 아담한 문화주택, 안해의 애틍한 손길과 남편의 미더운 손길이 어린 정든 집을 떠나왔다.

좋은 집을 두고 생소한곳으로 기꺼이 이사가는 그들 부부들 마을사람들을 오래오래 손저어 바래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은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들을 맞아준것은 산들과 산을 덮은 다복술, 가시덤불이였고 풀벌레소리 어설픈 외진곳이였다.

아직은 전기불도 켜지 못하고 살림집도 짓지 못한 곳이였다.

(농장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여기를 가리키시며 과수원을 조성하라고 하시였다.

저 산들에 사과나무를 심어 풍년과원으로 꾸리리라.)

그들은 첫삽을 박았다.

다복술 가지덤불을 베어내고 계단을 쌓아 사과나무를 심어나갔다.

일은 험하지 않았다. 낮에 밤을 이어 장마비가 쏟아졌다. 산사태가 지어 도로 쌓은 제단이 무너져 내렸고 비바람이 온 산밭을 휩쓸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동무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개간자들은 천막안에 모여들었다.

《동무들! 노래를 부르자구. 힘을 내야지.》

강득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동무들은 뜻밖의 일이라 뜨아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선창을 때었다.

피끓어라 청춘아 불타라 심장아  
우리들은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자다

...

어느덧 노래는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충성의 돌격전이 벌어졌다. 돌격전의 앞장에는 그들 부부가 서있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파원을 개간하는데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터의 휴식참이면 부부이중창도 선동사업도 했다. 그의 안해 안장녀는 밤을 새워가며 통신원고를 썼고 신문에 내어 동무들을 고무하였다.

별들도 잠드는 깊은 밤, 동지들의 천막창가엔 어둠이 깃들어도 그들은 후방사업을 위해 몇십리 밤길도 걸었고 한주일에 한번씩 차례지는 휴식날 집에 돌아간 동지들이 아늑한 방안에 모여앉아 즐거운 하루를 보낼 때조차 그들은 개간의 기계화를 위해 농기계작업소를 찾아갔다. 실로 잠을 모르는 사람, 쉬를 모르는 부부였다.

그때를 생각했는지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감회가 어려있다. 그들은 일손을 잡았다.

(보슬비가 내린다고 길땀이를 중단하라.)

그들과 함께 저녁교대를 하게 된 다른 동무들도 하나 둘... 해를 들고 달려왔다. 길땀이장은 마치도 불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 불의 뜨거움을 안고 강득현부부의 청춘시절도 흘러갔다. 그들도 이제 중년나이에 들어섰다. 청춘이 무르녹는 파원을 펼치고서...

《아니, 인젠 고개마다 파일이 주렁진 풍년파원을 꾸러놓았으니 하루라도 마음놓고 쉼 쉬구려.》

누군가 새벽별을 이고 일터로 나가는 그들 부부에게 권고하는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풍년 열매를 위한 그들의 마음은 더 극성스럽다.

## 생각많은 사람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들에 서리꽃이 하얗게 핀 새벽이었다.

파수원으로 일나가는 강득현의 생각은 깊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의 주인공들은 불비속에서 용선로를 지켜내고 수류탄을 만들었다. 진후 그 준엄한 시련속에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살자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의 생각은 걸음걸음 무거웠다.

(말로만 영화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우자고 해서 무엇하겠는가.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조건에서 무엇인들 못만들겠는가. 나는 물론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하여 아는 것이 적다.)

《강동무, 강동무.》

강득현의 뒤를 따라오던 박동무가 그를 불렀다.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얼마나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지 어깨를 툭 쳐서야 그는 얼굴을 돌렸다.

《아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오?》 박동무는 의아쩍은 듯 통명스레 물었다.

《응, 뭘 좀.》

강득현은 어색한 듯 한마디 하고는 묵묵히 걸었다. 한잠만 에야 그는 입을 때었다.

《박동무, 사과꽃에 꽃가루 묻혀 주기를 쉽게 하더라도 능률나게 못할가?》

《응, 그랬구만. 이 외진 산골짜기에서 무슨수로 어떻게 하겠나.》

박동무는 어이였다는 듯이 강득현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았다.

《박동무야 누구보다 기술에 조예가 깊지 않은 가오?!》

《맨손으로야 별수있다. 농장의 한다하는 기술자들도 신통한 수가 없지 않은가?!》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강득현은 농장일을 더듬어보았다. 아직도 기계화할 일이 적지 않았다. 소소한 일도 얼마나 품이 많이 들고 농약도 많이 낭비하게 되는가.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기술도서를 뒤적이던 그는 물끄러미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로농통신원고를 쓰고있던 안해는 조용히 말했다.

《창안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힘을 내자요.》 언제나 아는 것 도와주고 신심을 주려는 안해의 마음이 고마웠다. 강득현의 사색은 중단되지 않았다. 트랙터를 몰아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는 늘 이렇게 생각많은 사람이었다. 작업반일을 두고 파원을 두고...

그는 평범한 운전수, 농장의 한 로동자다. 누가 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바라서는 더욱 아니다. 그도 물론 작업반에서 시키는 일이나 그날 그날 해가면 쉬운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한다. 그렇게 일한다면 무슨 삶의 보람이 있고 우리 시대 사람다운가. 사람이란 의리를 지켜야 한다. 아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우리 농장을 4차례나 찾아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 주시지 않았는가...

그의 생각은 요즘에 와서 더 깊어졌다.

(어떻게 하면 될가? 우리 조건에 맞는 농기구, 자재도 적게 들고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는것을 창안할가.)

강득현은 무려 두달 남짓하게 농기구창안을 두고 고심하였다.

열정은 사색의 꽃을 피웠다. 드디어 착상이 하나 하나 떠올랐다.

## 불 빛

산촌의 봄밤, 소쩍 소쩍... 소쩍새가 울었다. 하나 둘, 집들의 불빛은 꺼진지 오래다. 다만 강득현의 집 불빛만 반짝이고있었다.

도면을 완성한 뒤에 며칠동안을 자재때문에 이 작업반 저 작업반을 찾아다니던 그는 오늘저녁엔 초저녁부터 농기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벌써 몇시예요.》 안해의 말이었다.

《몇시, 그건 소급해서 뭇하겠소. 꽃수정기가 몇 개째요?》

꽃수정기를 한개라도 빨리 만들고싶어하는 남편의 말이었다.

《이젠 도면도 다 그렸겠다 자재도 다 준비되었으니 좀 쉬었다 천천히 시작하자요.》

언제나 남편의 일손을 도와주던 안해도 오늘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지 그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눈확이 펴 꺼져보여서였다.

《조금만 더 만들고.》

조금만 더, 한개라도 더 만들자는 마음은 간절했다.

사과꽃이 피기전에 매 작업반, 매 분조에 꽃수정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낮이면 과원에서 일하고 쉬는잠을 타서 이렇게 새 농기구들을 창안제작하였다.

《야, 이게 뭐야, 참 굉장하구나.》

어느날 강득현의 집을 찾아왔던 작업반 정동무는 깜짝 놀랐다. 실로 동화세계 같았다. 울긋불긋 도색된 꽃수정기, 도말기, 살충기, 백도제기들이 옷방에 가득히 놓여있었다.

강득현은 정동무에게 새로 만든 농기구의 성능을 설명해주어주었다.

《야, 희한한데, 어느 기계직매점에서 사온게요?》

모양과 도색에 이르기까지 큰 공장에서 만든 농기구처럼 훌륭하였다.

《기계직매점에서 사오다니.》 그는 빙그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어느 공장에서 가져왔소?》 정동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공장은 무슨 공장, 우리 집에서 만든거지.》

그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지 정동무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도 있다. 집에서 이렇게 멋진 농기구를 만들다니.)

《참 자재는 어디서 나고, 기계는 무슨 기계로 만들었나?》

《정동무, 찬찬히 살펴보라구, 이것은 빈약병이구 이건 비닐관이야. 생각하고 결심하면 동무도 능히 만들수 있는거야.》

소문은 빨랐다.

이튿날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작업반원들은 물론 초급당일군들, 행정일군들, 기술자들, 이웃 작업반장, 비서들,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손으로 살짝 들고 단추를 누르면 폭폭 꽃가루를 내뿜는 꽃수정기며 한번 약물을 넣으면 한손으로 가볍게 들고 하루종일 쓸수 있는 도말기며 살충기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몇십명의 로력을 대신하고 또 농약을 많이 절약한다니 얼마나 좋은가.)

강득현부부의 모범은 농장적으로 일반화되어 새 농기구들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로력과 농약이 절약되었으며 일손은 한결 흥겨워졌다.

전국과수부문일군협의회에서였다.

강득현은 얼굴을 붉힌채 연단에 묵묵히 서있었다. 좀처럼 자기 자랑을 할줄 모르는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뭘 별로 한게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무들이 쉽게 일하면서도 과일생산을 높이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몇가지 농기구를 만든것입니다.》

한그루 사과나무앞에서도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풍족히 먹이겠는가, 생각이 깊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늘 제 가슴에 젖어있었습니다.》 강득현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동무는 평범한 운전수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일도 아니고... 우리들도 이 동무처럼 늘 생각하고 애쓴다면 과수부문일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과수총국 한 책임일군의 말이었다.

강득현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맺으려다.

우리 시대의 평범한 사람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다. 그들은 한알의 사과라도 더 많이 더 잘 무르익으라 간절히 바라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실히 일해왔다.

그들의 그 묵묵한 성실성은 풍만한 열매를 무르익혔다. 산들마다에 끝없이 펼쳐진 풍년과원, 과일의 찬연한 무지개를 흐뭇이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 부부의 근면한 얼굴을 그려보았다.

# 먼곳에서

서 봉 제

산새무리 일쿠며  
내 오르는 숲속의 길  
아직은  
그 누구도 아는지 없으리

노을을 안고  
내 돌아오는 산판의 저녁길  
아직은  
누구의 생각에도 닿은적 없으리

설레는 밀림의 저 한끝에  
조국강산은 끝나건만  
별목공의 이 마음  
언제 한번 기슭에 서본적 있었던가

천년원시림에 찍어가는 나의 발자국  
보는이 없이  
눈속에 묻혀도  
푸른 숲에 정을 쏟는 마음  
순간도 정적을 몰랐구나

설령의 눈사태 휘몰아  
눈보라는 계곡을 메우고  
찌렁찌렁 원시림 터지는 소리  
그 소리 맞받아 내 울려가는  
기계톱의 장쾌한 메아리

무슨 멋이라 눈천지 떠나서야  
아름드리 장대목을 베일 때면  
날리는 눈가루에 비끼는 무지개  
그 무지개 황홀히 바라보며  
빨간 털목도리의 아지파기치녀들도  
소리없이 일손 멈추는 우리의 산판!

말해다오, 숲이여  
내 잠시라도 떠나면  
마음속에 그리운 네 숲의 설레임  
내 순간이나마 정적에 깃들 때면  
마음속에 불러보는 밀림의 눈보라

아, 그것은  
시대앞에 나를 세워주는  
네 숲의 다정한 속삭임이더라  
그것은 투쟁속에 나를 이끌어주는  
조국의 억센 숨결이더라

아버이수령님 받들어  
우리 땅을 받들어  
여기 숲에서 불붙는 이 심장  
그래서 찬겨울에도  
우등불가에 펄펄 끓는 더운물 아니라  
한겨울에도  
별목공 우리의 성미앓아 얼지 않는  
초계수의 샘물로 단 가슴을 적시나니

더운 가슴을 헤쳐 말하련다  
진정 받들어 섬기는 조국은  
뜨거운 심장에만 가까이 있는것!

아, 이 땅의 한끝  
머나먼 산정에 있어도  
나는 한생을 숲에 살 사나이  
그 자랑으로 푸르려  
그 기쁨으로 무성해  
조국에는 가장 가까운 기슭이구나  
너 숲이여 백두산판이여!